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徐聞吉
印刷人 李揆行
主幹 金容喆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金勝培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㉗8131~9
本社直通 ㉗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 發行

今週一言

현명한 사람이란,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모든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두어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하는 사람이다.
〈佛教聖典〉

教科課程
내년부터 전면개정 시행키로
지난21일 교무위원회서 개정지침안 마련
학문·교육의 체계화 도모
교양과정 語學과 컴퓨터 실습교육 강화중점

88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될 교과과정(커리큘럼)의 개정안이 지난21일 학처장회의와 교무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각 학문의 체계화및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과과정의 합리운영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위해 마련된 교과과정의 개정을 위한 작성지침을보면 학문적 구조표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학부와 대학원과정의 학문적연계성고려, 졸업후 진로의 적응력 증대등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번 개정계획은 88학년도 입학생및 88학년도 1학년1학기이후 복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있다. 한편 교양교육과정은 어학과 컴퓨터교육을 강화, 소위원회와 교무연구위원회에서 검토, 개정되며 전공과목은 교과과정 작성지침에 따라 학과별 교과과정을 교무연구위원회 또는 학술부에서 검토, 개정하게 된다.

써클대표자 회의
「써클祭」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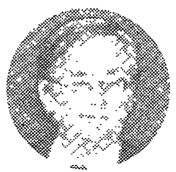
「써클대표자회의」가 써연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5시 학생회관상설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87년도 1학기 각부서, 분과별 사업보고와 써클권리 옹호사업및 그 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써클제의 원칙및 일정보고와 회칙개정안발의등을 놓고 토의를 벌였는데 써클인의 잔치라 할수있는 써클제는 전체 운동의 진로 제시및 민족자주의식 함양등 6개항에 걸친 원칙하에 내달 29~31일까지 3일간 교내일원에서 열기로 확정지었다.

◇제19대 새 총학생회출범식이 지난 24일 도서관 앞에서 있었다.

“파쇼타도의 그날까지 총진군”
지난24일 19대 신임總學生會 출범식 가져

「신임 제19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지난24일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있었다.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각 처장및 학생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총3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부는 부총학생회장 김태선君(경제·4)의 사회로 개회사, 국민의례, 신임 총학생회장 인사, 총장격려사, 권한대행 이임인사, 새집행부 소개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신임 지석규(전자공학·4)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만5천 동국인은 4천만 민중과 함께 파쇼타도의 그날까지 진군, 총진군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모든 동국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개방된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2부는 「일치단결 민주합성으로」의 주제아래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경인지역 민족민주 학생연맹 대표를 비롯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등 타대학 학생대표들과 경주캠퍼스 학생간부가 참석해 새 총학생회의 출범을 격려했다. 끝으로 3부에서는 「어우러져 함께답세란」란 주제로 국민대(아우성), 경희대(노래여울), 덕성여대(솔바람)등의 노래패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일부 운영위원들사이에 계속논의 중에있는 총학회칙 개정여부에 따라 이번 총학의 활동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獨레겐스부르크大 총장 來校
李총장예방 실질교류 4개안 밝혀


◇한스 붕거트 총장

本校 李智冠총장은 지난 28일 오전11시 총장실에서 자매교인 독일의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대학의 한스 붕거트(Hans Bungert) 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눈후 趙熙榮(경상대학장) 교수, 김태선(경제학과·4년)부총학생회장등 교직원·학생 30여명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말로된 조인서에 서명했다. 〈관련기사7면〉
이날 조인식에서 李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교의 자매결연이 人類평화와 共存을 유지하면서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기위해 동서양의 智慧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활발한 학술교류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붕거트총장은 답사를 통해 『동양철학의 요람, 불교종합대학인 동국대학교와 교류를 맺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교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한후 실질교류방안으로▲내년부터 본교에서 파견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술교류의 중점분야를 인문·사회과학분야로 하고 점차 자연과학분야에까지 확대하며 ▲교수교류는 내년 신학기부터 1·2주 정도의 특강등 강연회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차 1학기이상의 장기연구연수로 발전시키며 ▲서적및 출판물교류는 본교에서 필요로하는 것을 전해주겠다는 내용등 4개항의 레겐스부르크대학측 입장을 밝혔다.
한편 李총장은 붕거트총장에게 상감청자를 선물로 기증했으며 붕거트 총장은 답례로 중세기문헌이 실린 달력과레코드판을선물했다.

趙旺基 교수 華甲논문집 기증받아

◇趙旺基 교수

松巖 趙旺基(무역학과)敎授 華甲紀念 論文集 獻呈式이 지난 26일 오후3시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교내외 동문 제자 2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 논문집에는 金시배(법경대학장교수)의 논문을 비롯한 15편의 논문이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실려있다.

추계 農村活動
내달초 보은일원서

농과대와 써클연합봉사분과에서는 내달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북보은군(내사면·장갑리·외속리면·구인리등 4곳) 일대에서 「추계농촌활동」을벌인다.
총1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하게될 이번 농활은 28일 현지답사를 거쳐, 오는 30일 예비모임과 내달 1일 교내에서 사전교육을갖고 2일오전10시 현지로 출발하게 된다.

14일 자치기구화
慶州 써클연합회

慶州캠퍼스써클연합회(회장=신용대·무역3)가 지난14일 자치기구화되었다.
이제까지 총학생회 문화부산하에있던 써클연합회가 그간 제반 학내문제로 유명무실한 단체로 존립했으나 이번에 자치기구화됨으로써 대학문화활성화에 일익을담당할것으로기대된다.

교수동정

▲李箕永(철학과)교수=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일본및 인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세미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

보건지도임무법안 통과요구
한의대 투쟁기간 설정하고 시위벌여

한의과대학생회(회장=허덕수·한의본2)는 지난21일부터 27일까지를 한방보건지도임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2차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이기간동안 각종 교내외 시위를 벌였다.
한의대학생회는 지난22일 한의학관 잔디밭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지난14일~19일까지 있었던 제1차 투쟁기간의 경과보고및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출정식을 가진 후 교문밖으로 진출하여 대기하던 전경들과 대치,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에는 성건동, 터미널, 시내, 천마총등에 1백여명이 17개조로 편성되어 전국 한의과대생연합의 이름으로된 「한방보건지도 업무의 필요성」이 적힌 유인물 1만장을 배부하기도 했다.
가두시위가 있었던 24일에는 1차집결지인 대왕극장앞에서 1백30명가량이 연좌시위를 하던중 정수년(민족의학발전추진위원장·한의본2)군등 79명이 연행되었다가 전원 풀려났다. 오후 7시30분경부터는 한의학관 잔디밭에서 2백여명이 집결해 횃불시위, 사물패 공연, 대동놀이등의 행사를 가진후 한의학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어 25일 오전 8시경 「보건지도 결사쟁취」의 뜻을 재표명한후 자진해산함으로 「제2차 투쟁기간」 중의 시위를 모두 마쳤다.

29일 代總 정기총회서
학생회칙개정안 심의

총학생회 회칙개정을 위한 동국인 공청회가 총대의원회주최로 지난 25일 오후5시 동국관L401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늘(29일) 열리는 총대의원회 정기총회에 상정·심의될예정인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지난22일 이중앙의원회에서 발의되어 이날 공청회를 통해 학생총회의 사정족수의 조정과 각부장의 인준, 학회연합삭제, 동발추위등의 기구개편문제와 회기개정문제등이 중점논의되었다.
한편, 총대의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30분에 중강당에서열리게 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22일 발의된 총학생회회칙의 개정 승인과 총학의 2학기사업예산심의, 총학집행부 인준심의, 총대의원회의 2학기 사업계획및 예산보고와 학원민주화를 위한 결의문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萬海詩碑건립 우리민족의 독립지사로, 시인으로, 東國의 정신적지주였던 萬海 韓龍雲선사의 업적을기리는 높이4m70㎝ 크기의 화강암으로 된 비석이 지난28일 본관우측부지에 건립되었다. 이 시비는 「萬海詩碑」가 앞면에, 취지문과 그의대표작 「님의침묵」이 뒷면에 一中 金忠顯씨의 글씨로 새겨져있다. 제막일자는 미정.

社告

第2回 東大文學賞 入賞者 발표

東國의 문학적傳統을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韓國文壇을 主導해갈 참신한文才를 발굴키위해 공모했던 전국대학생대상 「제2회 東大文學賞」의 入賞者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읍니다.

◇本 賞

문삼영 (東國大 야간강좌 영문2) 詩「山番地 탐방」

◇佳 作

詩 부 문 : 원동우 (中央大 문예창작3) 「악수」
박안수 (順天大 국어교육4) 「교생실습일지 1」
小說부문 : 윤동수 (中央大 문예창작4) 「서있는 사람」
홍은숙 (東國大 국어교육2) 「깨어나는 저녁」
評論부문 : 손영옥 (慶南大 국어교육3) 「驛馬에 나타난 동양적 운명관」

◇審査委員

詩 부 문 : 金長好 (詩人·本校교수)
李炯基 (詩人·本校교수)
申庚林 (詩人·同門)
小說부문 : 金文洙 (小說家·同門)
韓龍煥 (小說家 本校교수)
金容喆 (小說家·本社주간)
評論부문 : 洪起三 (文學評論家·本校교수)

◇施 賞 式

1987年10월5일 (火) 오전11시 본교 총장실
入賞者는 10월5일 오전10시까지 來社바랍니다.

1987년 9월29일

東 大 新 聞 社

보리수

愛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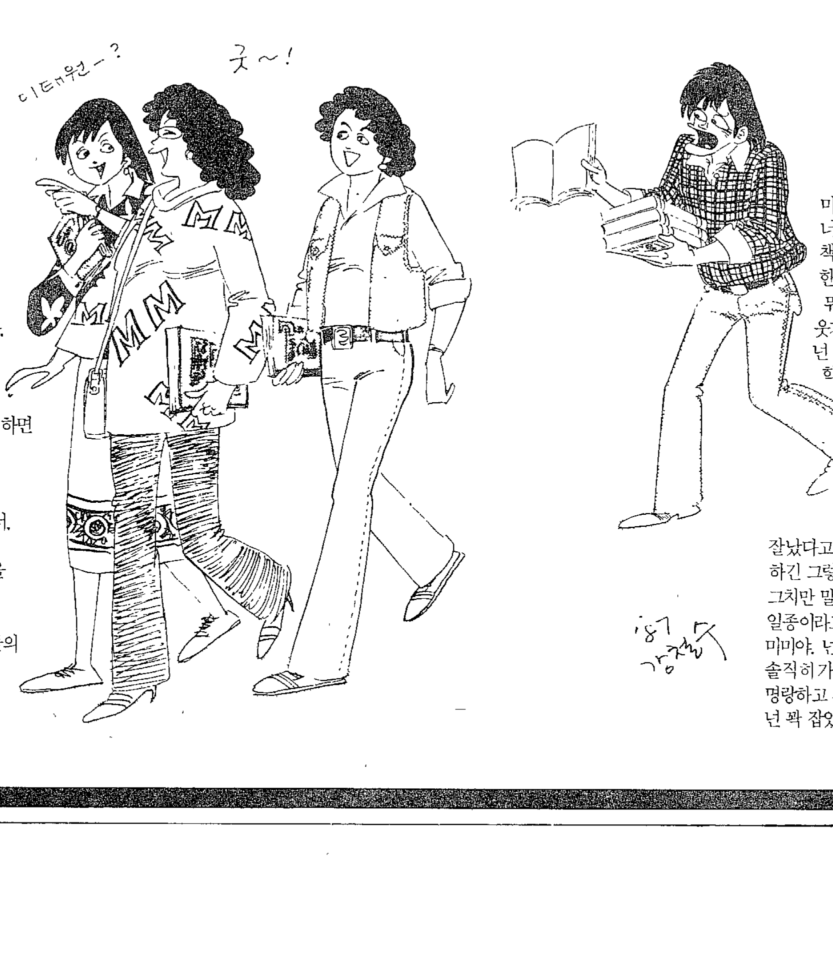
스스로 지혜의 體得을 탐구하는 동시에 다른사람들의 教化를 위해 매진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菩薩이라고 한다. 이를 교육학적으로 번역한다면 자신의 인격완성과 학생지도에 매진하는 불교적 교육자라 할것이다.
이 보살에게는 상대방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攝受) 원만한 교육작용이 이루어질수 있는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네가지 方便 (四攝法)이 있는데 그 가운데 愛語 즉 『사랑의말』이 주목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물을 思考하고 자신을 들어낸다. 無言의 표정이나 몸짓도 사실은 언어의 『中間世界』를 매체로 하여 읽어지고 이해된다. 이렇게 볼때 인간세계에 있어 언어가 없다면 상호의 의사소통은 물론이려니와 서로의 인격적인 交感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겠다. 인간교육에서의 언어의 중요성이 여기에 克明하게 들어난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랑의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인가. 佛典에는 즐겁게 해주는 말(可喜語), 부드러운 표정의 말(舒顔平視語), 잘 왔다고 반기는 말(善來語), 우선 축하하고 위로하는 말(先言慶慰語)등이 예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의 말(綺語)은 바르지 않은 말이라 하여 배척되고 있다. 또한 菩薩本願經에는 『충고로 원수가 될망정 아첨으로 벗을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기도한다. 보살의 愛語란 과연 어떻게 하는 말일까.
불교에 있어서의 慈悲는 나와 너가 하나인 경지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슬픔이며, 이 사랑과 슬픔은 또한 진실에 바탕을 둔지혜로운 삶이기도 하다. 佛陀의 大慈大悲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한다는 觀世音菩薩의 十一面가운데에는 미소의 모습과 함께 분노의 슬픈 표정도 있는 그 의미의 심오성을 여기에서 어느정도 짐작할 만하다.
어린이의 흥미와 욕구에 기초하는 근대의 自然主義 教育思想은 학습자를 고무하고 격려하는 데에는 장점을 가졌으면서도 스스로 참고 인내하게 하며 잘못을바로잡아주는 데는 미흡한 糖衣錠식의 교육사상이 되기 십상이다. 따뜻하게 감싸고 고무하는 말과 함께 때로는 매섭게 굳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말이어야 진정 교육적인 사랑의 말이 될수있지 않겠는가.

朴 先 榮

SS 에스에스패션

뉴망이 제안하는 뉴맨의 대학생활

“철수가 미미에게”



“세계의 명작, 오딧세이의 작가는?”
“헤헤, 그것도 질문이니? 일리어드지”
“그럼, 암굴왕의 작가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지”
“레미제라블의 작가는?”
“호호, 장발장이지. 어려운 것좀 물어볼 수 없니?”
“좋아, 그럼 논술고사식으로 질문하겠어.
세익스피어에 대해 아는대로 논술해봐.”
“어머나 어머나! 너 지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고있니? 세익스피어라면 이 몸이 꽉 잡았어.
한마디로 논술하겠어.
그 분, 일찌기 외국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작고하시지 않았니? 알고보면 불쌍한 사람이지.”
미미, 너는 위의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거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 내지는 비웃음 말이다.
그런데 사실은 너 위의 얘기들을 웃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미미야! 만화책이건 전화번호책이건 하루에
몇페이지씩 규칙적으로 읽어라.
양심적으로 털어놔봐. 넌 솔직히 작년 1년동안
단 한권의 책도 안읽었지?
뭐? 미장원에서 틈틈히 읽은거랑 세금내러 갔을 때
은행에서 읽은걸 합치면 수십권이 된다구?
미미, 난 니가 한심해.
널 보고 있으면 암울하고, 속상하고 슬퍼져.
어디 가서든 니가 여대생이란 말 하지마.
네 친구들 한테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만나기만 하면 한다는 얘기가 뻔하더라.
가수 XY가 이혼한다는 둥.
너희들 뭐 연예계 상식 퀴즈대회에
나갈 일이라도 있냐?
가끔 가끔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 얘기같은 것 좀 하면
누가 구속영장 신청한다대?
뭐? 책 살 돈이 어디있냐구?
그렇게 말하면 수억 비안하다.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닌 처지에 잔소릴 지껄여대서.
그치만 얘들아!
니들이 디스코텍에 가서 껀수를 기웃거리는일을
한번만 줄여봐라. 디스코장 적선해줄 일 있냐?
너희들이 한번쯤 안간다고 해서 그 집들이
파산당하지는 않는다구. 정작 파산하는건 너희들의
대학생활이야.
책값 떼어먹은 돈을 춤추는 집에다 고이고이
갖다 바치는 너희들이 정작으로 미워서 서럽구나.
미미, 난 너를 못믿어.
너의 옆구리엔 항상 학교 도서관 마크가 찍힌
책들이 달려있지. 그렇지만 넌 그 책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적이 있니?
뭐? 그책들엔 손때가 많이 묻었다구?
웃기고 있네. 정말. 겉장에만 손때 묻히면 다냐?
넌 나하구 미팅에서 처음 만난 날도
학교도서관의 책을 부적처럼 달고 나왔었지.
아마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
이었을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넌
그때 그 책이 두눈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미용책인줄
알고 빌렸을거야.
뭐? 철수 짜샤! 넌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목욕시키는거냐구?
하긴 그렇다. 나도 뭐 읽은거라곤 쥐뿔도 없어.
그치만 말이야. 난 너처럼 책이 액세서리의
일종이라고 생각진 않는다구.
미미야. 넌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예쁘고,
솔직히 가진거라곤 매력밖에 없는 여자 아니냐.
명랑하고 쾌활하게 노는 것 계통으로도
넌 꽉 잡았잖아. 다 좋은데 넌 문화라든가 의식,
또는 하다못해 지금 막 얘기한 독서같은 단어들만
나오면 너무 헤매는 경향이 역력해.
도대체 넌 불가사의해. 피라밋이나 잉카의 유적이니
하는 것들이 불가사의하다고들 하지. 그렇지만
그런것들쯤은 너랑 너희 친구들이 대학에 갔다는 거에
비교하면 예고편에 불과해.
대한민국 문교정책이 빚어낸 또 하나의 실수이자
크디 큰 비극이야. 너희들이 인정했다시피 고등학교
3년동안 읽은거라곤 무슨무슨 영어자습서랑
객관식 수학문제밖에 더 있니?
미미,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해. 여태까지 했던 말들은
잊어버려. 널 누구보다도 사랑해.
넌 짙은 화장을 하지않아도 예쁘고
화사한 드레스를 입지않아도 아름다와.
아아!
네가 진지한 눈빛으로
책을 집어들고
아름다운 싯귀로
가슴을
채울 수 있다면
더욱 좋으련만.

NEW MAN JEANS

社說 大學自律을 위한 提言

최근 科別시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새로운 학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능·어용교수문제를 내걸고 敎授퇴진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되면서 全東國人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현실이건만 사제간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한다. 모대학에서 학생들이 無能으로 지목된 교수의 집기등을 무단으로 끌어낸 사건은 우리를 놀랍게 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못하는 스승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파오게 하는 것이다.

아울든 無能問題를 위시한 학내 제반모순해결의 요구는 大學社會에서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經濟科를 시발로 잇단 科別示威가 발생한 本校의 경우도 구체적 요구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學園民主化요구로 집약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번 시위과정에서 학원문제가 단순히 학원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모순과 이의 개혁속에서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도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大學人의 數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와 함께 大學人量産體制로 돌입하게 되었다. 國家의 미래를 생각할땐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高學力인플레로 인한 실업자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대학의 양적팽창을 다시한번 고려해보게된다.

질적향상을 꾀하지 못한 大學의 양적팽창은 大學을 전문인, 기능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社會와 大學人의 관제를 상정할때 이러한 양상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本校도 이런 모순극복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커리큘럼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88년 1학기부터 실시될 이번 개정안은 학문적 구조표에 기초하여 작성하되 학부와 대학원과정의 연계성, 졸업후의 적응력 증대등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語學과 컴퓨터교육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음영도서실 설치, 교양필독도서 선정과 그 脈을 같이 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하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各 學科의 평면성을 탈피하고 價値判斷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人文系列은 사회계열과목을 社會系列은 인문계열과목을, 그리고 自然系列은 인문·사회계열과목을 均衡敎養科目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大學人은 전공분야 여하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교양과 올바른 비판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哲學科目, 기타 교양과목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커리큘럼 개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것이다.

아울러 졸업정원제와 학사경고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한다. 이 양제도는 본질적으로 학생을 학점에 옭아 매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이다. 그 폐해는 매우 커 상호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질 교우관계가 대립적 경쟁관계로 변질되어 他人을 짓밟고라도 이겨야 한다는 병폐적 이기심만을 유발해 오고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열망이 전 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이 마당에 知性을 생명으로 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비민주적 요소는 그 존재가치를 잃어 마땅하다. 이 양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無能·御用敎授는 학내문제의 시한폭탄으로 산재해 있는것이 또한 현 실정이다. 이는 교수진이 원로와 젊은층이 다수를 차지, 중진교수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大學이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學生數에 비례한 敎授의 과부족상태는 교수의 학문연구활동과 학생의 지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우수한 교수의 영입은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또 다른 고민은 교수영입에 있어서의 구조적 병폐라 하겠다. 소위 人脈·學脈·계파간의 알력은 교수영입에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本校 경제과 문제의 근본원인도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本校는 교수영입에 있어 공개초빙을 원칙으로 하며 스카웃방식도 함께 채택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추천권자인 교수간의 알력은 임의적이고 人脈中心의 인선을 가능케 해 효율적 절차를 무시하고도 남을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다. 우리는 이의 명쾌한 해결방법을 알지못한다.

다만 교육자로서의 양식과 품위를 지키고 교수의 각성과 화합속에서 비로소 문제해결의 열쇠가 발견되는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고, 교수협의회가 구성 되어 자율적으로 학원을 운영할때에 학원의 민주화·자율화는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픈 것은 교수·학생간 대화의 場을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최근 쇠퇴해가는 師弟之情이나 보다 활발하고 올바른 학원자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만남, 보다 많은 대화의 場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당국과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촉구한다.

時事論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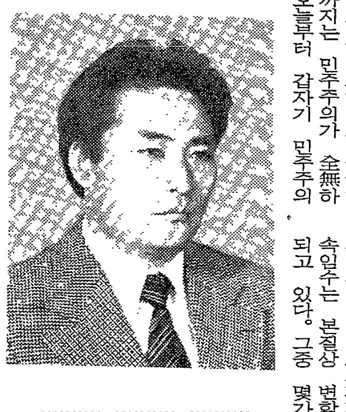
"大權은 국민의 손에 있다"

— 정치와 權力慾

구세주가 강림하듯 야단법석을 떨어선 안돼

權力에 눈먼다툼은 국민우롱 처사

「나는 善하고 남은 惡하다」는 논리 지양해야



張日祚
<한신대교수·철학>

Ⅰ

정치계절이 다가왔다. 그것도 대통령자리라는 大權을 놓고 누가 그것을 거머쥐느냐하는 뜨거운 정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배달되는 신문의 톱뉴스는 모두 이문제가 주제를 이루고 있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올림픽을 치루는 단계에까지 온 국민이 아직도 대통령에게 민족의 운명을 맡기고, 메시아적인 기대를 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통령은 이미 우리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거나 희망의 구세주와 같은 권위와 힘의 상징이 아니고, 계몽될대로 계몽되고 성숙할대로 성숙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맨 뒤에서 行政的으로 봉사하고 돌보는 한낱 국민의 큰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한늘에서 구름을 타고 무슨 구세주가 지상으로 군림이라도하듯, 야단법석을 떠는 것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왕조시대의 군왕이나 황제라도 군림하는 것같이 착각하는 명백히 잘못된 비민주적 풍토와 시대착오적 행태임에 틀림없다. 국민들의 대통령에대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잘못된 인식과 행태가 대통령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자리에 앉겠다고 부채질하는 열기를 더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권력을 휘두르고 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 누구 보다도 더많은 심부름과 수고를하는 자리라는 것이 명백한 데도 서로 앞다투어 그 일을 내가 맡아하겠다니 이러한 풍토와 형태를 정치문화의 미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소리높이 외쳐대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잡고 그것을 즐겨보겠다는 숨은 의도를 스스로 폭로하는 명백한 정치권력의 악덕이다. 밑바닥에서 또는 뒤에서 봉사한다는 민주주의라는 빛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혼자하는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한는것이고, 그 성패도 국민각자가 하기에 달렸다. 민주주의는 어느 특정인이나 당파의 독점물이나 특허품이 아니다. 국민모두의 것이다.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민주주의나 대통령에 의해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매우 낮은 민주주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보다 차원높은 민주주의를 하려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주의는 구호와 법으로써만 되는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말이아니라 삶으로써 되고, 법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마치이날까지 우리는 전혀 민주주의를 알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던 것 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떤 사람들의 작금의 언동은 무엇인가 우리들 스스로를 매우 당황케 하는 크나 큰 자가당착임에 틀림없다. 다만 신장되지 못했던 낮은 단계에서 보다 신장된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아지거나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뿐이다. 과거는 전적으로 비민주 또는 반민주적이다가 오늘날 비로소 갑자기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의 민주주의라면 오늘날의 이러한 민주주의는 그 소리 높은 구호와 열광적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장래가 지극히 어둡다고 보겠다.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어 그간의 민족사적 內外의 우여곡절 때문에 순탄하지 못했을 뿐 끊임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민주주의가 全無하였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처럼 자가당착적인 黑白言動을 일삼는 사람들이야말로 앞으로 참다운 한국민주주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할 요소가 될 것이란는 것이 나의 관점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막스 호르크하이머(M.Horkheimer)의 비판적 분석을 기초로 할 때 더욱 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다.

Ⅱ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 즉 정치선동에 대해서 말하겠다. 대학에서는 역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정치선동이란는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최초의 十字軍에 있어서 은둔자 피터 이래로 힛틀러와 스탈린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선동적 속임수는 본질상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몇가지를 말해보겠다. 정치선동가는 자신을 영웅으로서, 동시에 그의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는 순교자로서 드러낸다.

그는 언제나 최상급의 온갖 좋은 말을 말하고 그는 무엇보다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우리>는 옳고 다른 (상대방)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나 같은 민족이라할 지라도 그를 반대하거나 그와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틀렸고 그만이 옳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보통사람들(민중)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정치선동가)는 속임수의 도구를 사용할줄 아는 세련되고 승승능란한 사람이다. 중립이란 없고 오직 적대적 대립이 있을 뿐이다.

그(정치선동가)는 늘 공격을당하는자이며, 그래서 『우리는 반격을 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를방어한다. 정치선동가는 그의 적이 하는 짓은 더럽고 소름이 끼치는벌러지와 같아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정치선동가)는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대항할<결사적인 맹세>를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으므로<깨어있는것>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맹세와 은밀하고 위협적인 음모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선동가가 그의 추종자들을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그(정치선동가)는 알쏭달쏭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직 할수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나서야만 된다는 시대착오적 의식으로 인해 민주화가 차질을 빚고있으며 이와같은 의식은 권력욕에 기인한다.

이것은 정치선동가들이 늘 되풀이하는 정치적 속임수의 몇가지 예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독일인이건, 희랍인이건, 러시아인이건 (또는 우리 당파건), 언제나 <우리는 善>하고 다른 사람들은 <惡>하다는 것이다』(1969년 베니스에서 행한 『批判理論의 어제와 오늘』이란는 강연에서).

Ⅲ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의 아버지인 호르크하이머의 이러한 정치선동가에 대한 분석과 규정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만한 정치선동가의 선동에 휘말려들어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고 놀라게 한다. 우리는 「흑백논리」의 폐단과 「당파성」의 위험을 누누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반성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말로만 형식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얼마나 「흑백논리」와 「당파성」에 사로잡혀 있고, 노예화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이다. 독단과 독선과 독점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대개 이런식인데, 이것은 명백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위에서 내려오는것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체의 기초단위로부터 올라감으로써 밖에서주어지거나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부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솟아나옴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누구에게 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결국은 틀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그것도 민주적 인간이 문제이고, 민주적 인간의 주체성이 문제다. 이러한 민주적 인간의 주체성이 없으면, 민주적 제도는 형식화되고, 민주적 인간의 주체성이 있으면 민주적 제도는 그러한 주체적 인간들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해 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주의란 제도나 형식이기 보다는 언제나 주체적 인간의 삶과 실천의 결과라는 것이 자명하다.

정치계절에 들어선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1990년대의 한국은 이미 대통령의 정치력에 좌우되던 50년대나 60년대나 70년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대인 지금도 이미 대통령직이나 정치권력은 국민의 강화된 사회·경제적인 힘과 복합적인 사회구조의 힘에 압도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기초적인 힘과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적인 대통령직이나 정치력으로써는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을 만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동적인 구조를 갖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정치력이 국민적 사회·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대통령이 누가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국민적사회·경제력과 복합적 사회 구조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건강하게 강화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력에 달린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사회·경제력에 달린 문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대통령의 힘보다 경제의 힘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된다. 이러한 상황과 단계에서자기가나서면 무슨 <기적>을 가져오기라도 할것같이 대통령의 大權을 둘러싼 싸움은그 자체가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정치권력의 악덕이 연출하는하나의 기만적 국민우롱이다.

大學閑話

파리와 自由

吳京煥
<불교대교수·서양화>

自由가 피로 얻어 진다는것은 自由의 屬性이다.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빠리의거리, 여기 저기에서 건물벽에 붙어있는 墓碑板을 발견 할수 있다.

예를 들자면, 「장·삐엘 1940·8·14 19自由를 위한 저항을 하다 이곳서 죽다」―라는글을 흔히본다.

「그들이 풍요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볼때, 그들은 그것을 피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할 때 피로 수호할 태세를 갖추게 되는것이다.

한마리 쇠파리를 예로 들을 수 있다. 작은 窓門을 통해 쇠파리가 들어 왔다. 방에 비해 열려진 창은 지극히 적었다. 이 용감한 파리는 사방 壁에 부딪쳐 보지만, 투명한 유리창가운데 열려진 작은 문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파리는 포기하지않고 계속 사방으로 날아 보았다. 그 작은 몸으로 강하게 벽에 부딪칠 때의 고통은 소리로 짐작하건데, 말 할수 없으리라. 아마도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 오랜 試圖와 시행착오 에 그 파리는 열린 窓을 통하여 넓은 空間으로 나가 버릴 수 있었다. 드디어 그는 自由를 얻었다. 그 파리가 수십번 벽에 부딪칠때의 괴로움을 克服하지 못하였다면 그는 이 작은 房에 살아야 했다. 規制된 空間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의 全部인것이다. 그것은 그의 삶에 있어 하나의 不幸한 順從일 수 밖에 없었다.

어느날 늦은 오후, 돌연히 내방에 뛰어든, 좌절을 받아 드리지 않는 파리의 이야기이다.

용기없는 자는 자유를 얻을 수없고,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을 가진 보편적 진리임에 틀림없는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무한대의 고리

진보와 발전의
「뫼비우스의 띠」-효성

아무리 세로 자르기를 계속해도 끊어지지
않고 무한대로 고리를 이어가는
「뫼비우스의 띠」—
그것은 무한대의 창의력으로 무한대의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효성의
세계입니다. 섬유공업의 고리를 시작으로
하여 석유화학의 고리, 전자공업의 고리,
중공업의 고리, 건설의 고리, 무역의 고리로
끊임없이 이어져온 효성의 고리—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더 커지는 효성의
고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창의력에도
그대로 이어져 진보와 발전의 미래세계를
창조하고 있읍니다.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하나인 효성의
무한대의 고리에 주목하십시오.
2000년대도 효성의 무한대의 고리가 더욱
무한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曉星그룹

●曉星物産 ●東洋나이론 ●東洋폴리에스터 ●東洋染工 ●元美纖維
●曉星重工業 ●曉星바스프 ●曉星나스 ●曉星히다찌데이타시스템
●曉星B&H ●曉星드라이비트 ●韓国엔지니어링플라스틱 ●東光化成
●韓国타이어 ●韓国電池 ●大田皮革 ●東星 ●大星 ●曉星알미늄
●曉星金属 ●曉星機械 ●東星開発

□불교문화연구원 학술회의 발표논문…彌勒신앙의 현대적 意義

현실개혁의지의 발로 彌勒신앙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大衆化된 사상의 하나

1、彌勒思想의發生背景

불교의 교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나 생물은 끊임없이 生死를 반복한다。이것은 윤회사상으로서 다만 최고의 이상적 경지에 도달한 아라한만은 예외로 한다。최후의 생애를 마침과 동시에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는 出世하지 않는다。이것을 바로 인도종교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불타는 아라한이므로 영원히 모습을 갖춘다。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하면 입멸하신 불타、즉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과거7불은 은린들로부터 영원히 떠나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원칙은 대승경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예를들면「법화경 수기품」에 많은 불타의 기록이 있지만、어떤 시기에는 인간으로 化現해서 장차 불타가 될것을 보증하고、

○…… 미륵은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는……○
○……맹약의 의미를 수용한 까닭에 구……○
○……세불로서 경전에 많이 나타나는……○
○……불교의 미래불이다。本稿는 지난……○
○……25일 本校불교문화 연구원 주최……○
○……로 열린「미륵사상의 한국적전개……○
○……라는 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
○……10여편중 미륵사상을 현대적으로」……○
○……조명한 글이다。 <편집자註>……○

그 뒤 무수한 생애 동안 보살로서 수행을 계속한 결과 마지막 생애에서 불타가 된다。그리하여 석가모니불 자신이『이것은 나의 최후 생이다』라고 한 말은 모든 불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러한점을 보완하기위해 보살은 영원히 성불하지않고 중생과 함께 사바세계속에서 계속 윤회를하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사고방식이 출현한다。그러나 한불타가 두번 다시출현하지 않는이상 이후 출현하는 불타는 반드시 다른 人物이지 않으면 안된다。

인도의 역사관에 따르면 과거에 많은 불타가 출현했듯이 미래에도 많은 불타가 출현해야만한다。과거에 가능했던 史實은 미래에도 똑같은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과거불에대한 이름、시간、장소、활동상황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져있음과 같이 미래불에대한 관심도 보다 구체적으로 출현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실재적인 표현으로 등장한 미래불사상이 많은 원시경전에서부터 출현하여 대승불교 이후까지 구체적으로 발전하게 된듯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미래세에 미망중생들을 구제해준다는 미래불의 대표적인 존재로 알고있으며 한국불교사를 통해 볼때 가장 대중화되어온 미륵불 사상의 전개가 아닐까 한다。

睦 楨 培
<불교대교수·불교학>

2、初期 彌勒思想

초기에 속하는 원시경전 중에서 중요한 경전이 많이 있지만、그 중에서 長部經典 第26、轉輪獅子吼經、經集 波羅延品、賢愚經、波婆離品、中阿含經 13 第66說本經을 중심으로 미륵사상의 초기형태와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彌勒의 出生과 出家—미륵이 역사적으로 實存人物인지 아니면 종교적 인물인지에 대하여는 異說이 분분하다。이에 대해 經集에는 바바리의 제자로 등장하고 賢愚經에는 바라나시 재상의 아들로 나온다。그러나 經集이 가장 오래된 원시불교 문헌의 하나라고 하면、당시賢人이던 바바리와 함께 남 코살라국의 수도에서 고다바리강 기슭에 移住해 살았다는 經集의 내용이 어느 정도 史實에 가깝다고 생각하고、화엄경의 입법계품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

彌勒의 正統性—說本經이나 현우경 등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래 양모마하파자파티는 자신이 손수 실을 뽑아 짠 금색 옷을 준비했다가 석가를 만날 때 獻上했다。그러나 불타는『이것은 교단에 헌상하는 것이 좋읍니다』하면서 받지 않았는데、미륵이 받았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마음이 바로 열려 옷을 여러 승려들에게 차례로 돌렸으나 아무도 받지 않다가 미륵앞에 이르자 그가 곧받았다」

그런데 說本經에는 불타가 금색 옷을 미륵에게 주어 교단에 獻上케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信心의 强調—賢愚經에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라나시에 사는 보석 세공인과 미륵불을 등장시키고 있다。

어느날 보석 세공인은 금색 옷을 입은 미륵—석가모니불의 正法을 계승한 제자—을 보고 마음이 이끌려 집으로 초대한 후 설법을 듣느라고 황금 십만냥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그러나 說法을 듣고 보석 세공인은 매우 기뻐한다。

彌勒의 授記와 前生—석가모니불께서는 남섬부주가 이상국토가 되면 바야흐로 미륵이 출현하게 되며、그때 미륵은 바로 지금의 미륵이 될 것이라고 授記를 내리는 것이 賢愚經에 있다。

그리고 전생에 미륵은 다르마루찌(法樂)러는 왕이었다。그리고、어떻게 그가 미륵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경전에는 다음과같이 표현하고있다。

「이처럼 아난이여、그때 다르마루찌는 지금의 미륵이다。그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런 자비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항상 미륵이라 부른다」

說本經의 내용도 이상과 같다。현실적으로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바로 미륵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初期 彌勒思想의 性格—미륵에 관한 초기경전에는 미륵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명확하지 않고、미륵과 불타의 문답을통해 추적해 볼수 있을 뿐이다。

地上淨土를 건설하려는 역사관 가져

사회발전에 조응한 인간성 회복강조

미륵은 양극단(二邊)을 부정할뿐만 아니라 중도 그 자체에도 비판적이라는데 주목할만하다。初轉法輪時 불타는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二邊을 부정하고 中道를 주장하셨으며、실천방법으로 八正道를 敎示했다。

이때 8정도에서「正」의 定義自體는「淸淨한 戒行」과「愛着에 대한 調心」이라는 意識을 저변에 깔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러한 미륵의 사상에 관한 문답은 經集以外에도 많이 보인다。

後期 彌勒經典의 성립

後期 彌勒思想을 나타내는대표적인 경전으로는 彌勒六部經을 언급할 수 있으며 흔히 이가운데 彌勒三部經이 後期彌勒思想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수 있다。뿐만아니라 彌勒三部經은 또한 크게나눠 下生信仰의 두 계통으로분류할 수 있다。

미륵삼부경중에서 松本文三郎氏는 그의 저서「彌勒淨土論」속에서 미륵성불경이 가장 빨리 성립했으며、그 다음이 羅什譯 下生經、다음에 上生經의 순서로 성립했다고 주장하지만 赤沼智善氏는 下生經에서 成佛經으로、그리고 上生經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왜냐하면 成佛經이 최초의 경전으로는 문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六度、五濁、賢劫千佛등 후기 大乘佛敎용어가 사용되고있는 점들을어 다른 경전보다 정비된 경전이라 보며、경전의 성립例에서도 대개 초기경전이 문장이 단순 간결하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松本氏의 설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上生經의 經文 속에「미륵하생경에 설한 바와 같이」라는 귀절이 보이므로 上生經이 下生經보다 늦게 성립되었다는 설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

3、彌勒下生經의 思想

미륵회상에 참석하여 구제를 받는 중생들은 다음과 같은 선근을 심었다고 하였다。

①경·율·논을 읽고 분별·결정하여 도리를 찬미하고 타인에게 전해줌

②의복과 음식을 타인에게 보시하고 戒를 갖추고 지혜를 타마함

③음악기구、번당、花香、燈을 불전에 공양함

④僧衆에게 음식을 공양、僧房건립、在家戒를 지키고 자비심을 修習함

⑤고뇌하는 중생들을 得樂케 함

⑥持戒、忍辱、梵行을 하고 자비심을 가짐

⑦타인을 초대 음식을 공양함

⑧持戒하고、많은 가르침을 배워 선정을 수행하고 無漏智慧를 얻음

⑨탑을 세워 사리를 공양함

⑩곤궁하고、고독한 사람、노예、처형자등 고통에 시달리는 자를 구제

⑪부모와 이별하고 동료와 다투는 자를 敎化시킴

미륵사상은 현실개혁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진보적 역사의식을 가졌다。(사진은 미륵보살 사유상)

4、彌勒思想의 倫理性

彌勒사상을 포함한 모든 불교사상이 함유한 윤리성은 우선戒律이라는 불교의 규범에서 살필 수 있으며、진일보해서는 上求菩提 下化衆生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불교의 응용 윤리를 살펴 볼 수 있다。

계율의 의미를 어원에서 살펴보자。Pali語에서 Sila(戒)라는 단어는「本性、性格、道德的實踐、佛敎의 倫理」등을 의미하고、Vi aya(律)은「내몰다、통치하다」의 뜻으로「지배아래의 훈련」을 의미한다。따라서 戒는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극대화한다는 자발적 의지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현대 윤리학에서 목적론적 규범 윤리학자들의 주장과 상응할 수 있다。

현대의 규범윤리학자들은 윤리적 가치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도덕의 본성이 공적이고、사회적인 측면」에 평가적 가치나 도덕율의 판단 근거를 두려고하는것이다。그렇다면 實다운 自我를 정립하면서、사회적으로는 선의 극대화를 위해、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엄격한 자기 책임성과 自律意志를 강조하는 十善戒의 정신이 현대사회의 윤리관을 정립하는데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五戒는 在家信者의 戒임에틀림없지만 그 정신은 출가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五戒의 정신은 본래 다섯가지 惡行을 여의려는 자발적인 마음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다。인간이 사회속에서 사는 한 최소한 지켜야 할 덕목이라 보고、불교신자건 아니건 지키는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본는 것이다。

八齋戒는 한달에 4~6회정해진 날짜에 한하여 하루동안 8가지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8종의 계란 전술한 5戒중 不邪婬戒를 不婬戒로 하여 일체의 性관계를 멀리하는 보다 엄격한 戒와 ⑥離非食戒 ⑦離歌舞觀聽香油塗身 ⑧離高廣大床의 戒를 부가한 것이다。

8齋戒의 근본의미는 在家신자들이 언제나 겸손하고、근면하며、겸허하고 절제있는 생활을하므로 자기 실현의 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것이다。

具足戒는 대승계율에 대하여 소승계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비구 250戒와 비구니 348戒가 있다。

이상에서 彌勒思想家들이 강조한 五戒、八齋戒、十善戒、具足戒의 내용과 정신을 일별했다。이중 十善戒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며、다른 戒가 형성되는 모토가 되었다。그리고 이 4가지 종류의 계율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몇가지로 요약할수있다。

첫째는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방지하고、상대적 도덕률의 한계를 극복할수있다。

둘째、對人관계에서 폭력을지양하고 사랑의 정신을 현양하고있다。

세째、백천만겁난조우한 인간생활의 타락을 방지하고、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준다。

네째、인간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고 철저한 책임의식을부여한다。

다섯째、혼자만이 살지않는사회인임을 자각시키므로 협조체제를 구성케하며 평화의 정신을 함양시킨다。자기정화와 참다운 인간성의 자각을 유도하는 5계、8계、십선계、구족계등을 수행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철저히 생활화했을때、바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고 본것이다。따라서 현실을 대공정하고 진리를 사랑하며、미륵의 제자가되고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戒를 지켜야한다고 누누히 강조하는것이다。

5、彌勒思想의歷史意識

彌勒思想의 革命性—전술한 제반 상황속에서미륵사상가들은 현실개혁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려는 진보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듯하다。이것이 바로 미륵정토사상이다。

미륵신앙의 정토관에는 상생신앙의 도솔천에 대해 미륵이 세상에 하생할 적에 출현한다는 지상정토사상이 있다。

시간관념을 무시하고 지금이 바로「미륵 下生의 시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생신앙은 사후의 왕생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세계에 현세의 이상적인 지상정토를 건설한다는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은 중국과 한국에서 시대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적마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사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륵사상은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의한계상황을 극복하고、이땅에 지상낙원 즉 지상부토를 건설하려는 개혁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彌勒思想의 未來 志向性—미륵의 미래사상은 末法思想과 결합하여 나타난다。末法時代가 오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지며、佛法을 수호해야 할 승려들마저 다툼과 반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경전에는 말하고 있다。따라서 파멸을 향하는 말법시대를 구할 자는 오직 當來佛인 미륵의 下生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생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경전에는 말세의 상태가 극한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반성하고 信心을 일으켜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가 되면 일종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게 된 때에 미륵이 하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말법의 구제와 미륵 신앙이 직결되어 온 것이다。

彌勒大成佛經에는 이러한 이상세계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구제하기 위한 現實的 보신불、중생의 질곡을 해방시키기 위한 報身의 이념이 불보살의 보신적인 사랑에 이른다。이러한 구제의 의미 전개에 의해서 미래란는 시간적 요소가 개입되며、거기에 불교의 종교적 史觀이나 역사의식이 발생한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다。그러나 물질적 풍요에 비례하는 의식적 진보가 없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믿음과 협동심、사랑은 사라지고 의심과 반복과 질시가 번성하는 것은 점점 불타의 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이 미륵경전에서 누누히 강조하는 모습이며 또한 그 해결책인 것이다。그렇다고 미륵경전의 제시한 방안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바로 사회개혁 내지 발전에 상응하는 인간 본성의 개발이나 자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이것이 역사의 타락이나 윤리정신의 결여를 제거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위에서 지상정토를 건설해야 한다는 현대사회의 당위론에 상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과거는 경계선이 없으며、현재와 미래 또한 마찬가지이다。미륵이 현대사회에서 절실한 것은 언제나 인간성 회복을 이끌어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인간성 회복이 모든 일의 근본임을 가르쳐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鹿野苑

기다림 수업

▲시몬、들어보게。밤이면 밤마다 자네에게 자랑하듯 고해하던 아름다운얘기들。무릎이시리워 오는 가을 밤공기에도 따뜻하기만 했던 이야기들。의미없는 표정들은 달아나 버리고 뜨거이 응시하는 눈망울은 내옆에서、언제나 밝게 빛나곤했지。시몬、자네에게도 들리는가。사랑하고、사랑받는 이들의 훈훈한속삭임이、머지않아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고 단풍은 바알간 얼굴로 물들어 가겠지。내가 난한 언어들이 至純으로 흐르는 공간이면 어디에서나 나의 천사는 조용히 다가와 밝게 웃는다네。▲시몬、이몸 비되어 이 밤、그녀의 귀를 세우는 빗방울이고 싶네、나 흰 눈으로 이 한밤 그녀의 눈을 밝히는 등불이고 싶네、그녀를 위한、나에게로 달려온는 미래의 문을 열 지혜와 추억의 묘지에 아픔을 묻어버릴 용기를 주게。그리고 그녀에게 검은 구름터기 너머로 작열하는 태양을 기약할 현명함을 일러주게。시몬、그녀 푸르게 피어오를 꽃잎위로 언제나 생기도는 이슬이 되게 해주며 이슬 한방울에 가슴 가득 풍성함을 가지고、풀잎 하나의 간—란 흔들림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을 간직하는 마음이길 비네。손 뻗어 닿지않고 애써 목말라 달려가도 가까와 지지 못하는 평행선 운명에 사랑의 교각을 심도록 뜨거운 이마를 하늘에 묻어버린 기다림을 배우도록 하세。나 또한 천박한 뭇몸짓이기보다 열쇠잃은 자물쇠로 돌아누워 기다림의 수업을 시작할걸세。▲시몬、그녀에게 달려가 전하게。거리를 들줄 모르는 사이는 가까운 사랑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며、부대껴 가까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홀로 된 뒤 사람사이에 존재하던 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뉘우침이 뒤따른다는 것을…(쓰람스레 내리는 가을비에 업혀온 겨울아이 보챔은 옷깃 세운 우리 애비들의 배고픈 새벽시간을 깨우고、「사람아들」의 육체조각은 의식의 난도질로 수평을 찢는낙엽따라 땅으로 땅으로만 떨어져 점점이 말라간다)。〈潤〉

◉사군자－국화

기업의 향기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 기업에도 인격이 있읍니다.
훌륭한 인격에 향기가 있듯
훌륭한 기업에도 향기가 있읍니다.

화려하지 않으나 알차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일하는 기업.
동부그룹은 철강·건설·화학·무역·금융·
보험·전자·운송 등 각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라고 있읍니다.

○ 대졸신입사원 모집안내

동부그룹의 중추 인물이 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10월 8일과 9일 각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동부그룹

◉동부산업(주) ◉동부제강(주) ◉미륭건설(주) ◉한국자동차보험(주) ◉(주)동부고속 ◉국민투자금융(주) ◉(주)동부상호신용금고 ◉코실(주) ◉동부석유화학(주)

—韓國기업의 準租稅에 대한 小考

"조세는 기업이, 부담은 근로자가"

권력에의해 연례화…부실기업초래

부담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케해야

I、企業의社會的役割

現代社會에 있어서 企業은 그 社會的役割(Social role of corporation)이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企業에 대해서 요청되는 寄附, 즉 無償의 財政的 援助는 점차 확대되어가는 경향에 있다. 企業은營利를 目的으로 일정한 영업을 영위하는것을 그 本來의 目的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른 한편 기업은 社會를 구성하는 社會的 實在이기 때문에 사회적 作用을 또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企業이 부담하는 寄附의 正當性에 관한 문제는 70年代 들어와서는 企業은 公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가 또는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미 지나서, 그와같은 문제는 어느程度까지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方法으로 하는것이 효과적인가 라는 단계에 들어와 있으며, 이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最近의 判例를 보면, 法院은 광범위하게 기업의 行動을 허용하는 입장에 있으며 特히 企業을 經營하는 理事는 시대의 요구에 應하는 정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經營判斷의 原則」(business Judgement rule)에 따라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이 强化되어가고 있다.

企業의 기부행위에 관한 입법예로서는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을 들수 있다. 1968年의 同法 4條(一般的權限) m項에서는 공공의 복지, 혹은 자선, 과학, 교육의 목적에 기부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1969年의 法典에서는 여기에 「그리고 전쟁시에 전쟁활동을 원조하기 위해서 기부하는것」이 추가되었다. 그후 1984年 改正法 5302條(一般的權限) 13項에서 공공의 복지, 자선, 과학, 교육의 목적에 寄附하는것, 그리고 14項에서는 1969年 法4條m項의 「in aid & war」라는 표현을 「aid governmental policy」로 바꾸어서 政治上의 원조정책에 따른 적법한 사업의 거래를 할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에 대해서 이와같은 법규정은 없으나 學說上 이를 긍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기부금등을 포함한 準租稅가 새삼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중에서 非自發的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인용문헌의 각주는 생략하였다.

朴榮吉 <법정대교수·상법>

Ⅱ、韓國企業의準租稅의 負擔水準과문제점

準租稅란 일반적으로 企業이 부담하는 租稅이외의 공과금으로서 협의의 公課金과 寄附金性 公課金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기업의 經濟活動過程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租稅를 제외시킨 비필수적인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공과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를 구체적으로 보면<表1>과 같다.

또한 韓國經濟研究院이 標本企業을 대상으로 조사한 準租稅負擔水準은 <表Ⅱ>와 같으며, 준조세와 勞務費의 대비를 보면 <表Ⅲ>과 같다. 이 조사보고를 보면 準租稅負擔가운데에서 41・8%가 각종 誠金, 寄附金, 獻金등 非自發的 조세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와같은 企業의 준조세의 부담은 기업의 사회적역할이란 측면에서 보면, 企業이 그들의 純利潤을 社會에 寄附하는 것은 그것이 自發的인 한 十匙一飯의 상호부조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 하나의 德目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부나 권력의 명령 지시에 의한 각종 모금행사가 年例化되고 제도화되어 기업의 준조세부담은 반강제성을 띠게되고 이것이 기업계에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각종의 준조세를 기업이 자신들의 순이윤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될것은 없다. 그러나 기업은 소득과부의 최종 귀착지가 아니고 이를창조 분배하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기부금성 준조세를 기업자금으로서 부담하게 한다면 그 비용은 직접 간접으로 소비자 근로자에게 전가되어 물가가 상승되거나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지게 되기때문에 그것은 결코 덕목이 될 수 없는것이다.

금년 여름과 같이 勤勞者의 임금수준이 문제되고 있는 때에<표Ⅲ>에 보는 바와같이 勞務費對比 準租稅 부담률은 15・7%로 나타났으며 企業의 非自發的으로 부담하는 準租稅部分(41・8%)을 勞務費로 轉用한다면 임금은 약6・6%인상시킬수 있는 財源을 마련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또한 企業의 準租稅에 대한 부담이 기업내 합리화 戰略次元에서 결정되지 않고 다른 외부적・非合理的・非自發的次元에서 결정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企業은 適正成長經路를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기업의 不實化까지도 초래될 수 있고 또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조직의 革新能力도 제약을 받을수 밖에없다.

特히 近代國家가 예산회계제도를 확립하고 조세법률주의를 도입한것은 국가의 경영을 공개하고 그 경영비용의 갹출과 지출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있는데, 현재와 같은 企業의 非自發的 準租稅의 부담은 國家의 경영을 공개하고 비용지출에 질서를 세우는데 있어서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非自發的인 準租稅의 부담에 상응하여 이를 正租稅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준다면 그것은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다.

<表1>準租稅의 範圍

	狹義의 公課金	寄附金性 公課金
1	防犯費, 汚物性收去料등 使用料	罹災民救護誠金
2	手數料	새마을事業寄附金
3	各種 受益者負擔金	불우이웃돕기寄附金
4	職業訓練分擔金	慈善誠金
5	同業者組合費및 協會費	學術, 예술, 장학관계 기부금
6	赤十字會費	
7	輸出(海外建設)振興基金등 輸出關聯負擔金	體育誠金
8	醫療保險에 내는基金	國防獻金등各種慰問金
9	印刷代	援護關係寄附金
10	事業者負擔貯蓄장려금	예비군, 民防衛關聯負擔金
11	産災保險料	
12	交通安全關聯負擔金	地下鐵工事寄附金
13	기타	기타

註. 例 : 양곡관리기금, 축산진흥기금, 잠업진흥기금, 석유사업기금, 석탄수급안정기금, 폐광정리기금, 합성수지 폐기물처리부담금, 농양관리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등

<表Ⅱ> 標本全體의 準租稅 負擔水準 (단위 : %)

年度	區分	狹義의 公課金	寄附金性 公課金	準租稅
1980	賣出額對比	0.37	0.11	0.48
	附加價值對比	1.81	0.56	2.37
1981	賣出額對比	0.40	0.15	0.55
	附加價值對比	1.99	0.76	2.75
1982	賣出額對比	0.51	0.16	0.66
	附加價值對比	2.54	0.82	3.36
1984	賣出額對比	0.60	0.24	0.85
	附加價值對比	2.63	1.06	3.70
1985	賣出額對比	0.61	0.16	0.77
	附加價值對比	2.71	0.71	3.42
1986	賣出額對比	—	—	1.08

<表Ⅲ>準租稅와 勞務費對比 (단위 : %)

	準租稅/勞務費	非自發的準租稅/準租稅	非自發的準租稅/勞務費
1988.8	15.72	41.8	6.57

Ⅲ、맺는 말

企業은 그 본래의 목적이 利潤追求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企業의 사회적, 公共的性質에 따른 사회적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재해구호자금의 寄附, 지역사회에의 재산상의 봉사, 각종복지사업에의 자금면에서의 협력등 기부금성 準租稅를 분담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모경제연구소에서 主張하고 있는 바와같이 準租稅가운데 企業活動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寄附金과 성금등 기부금성 준조세에 대해서는 企業參與方式을 지양하고 가계 및 個人參與方式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社會的 存在로서의 사회적 공적 성질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企業이 부담하고 있는 各種의 準租稅는전술한 바와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結論에 대신하여 몇가지의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준조세 부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租稅轉嫁(Tax Shifeing) 및 租稅歸着(tax incidence)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각종의 공과금 가운데에서 강제성을 띤각종 회비와 부담금등 협의의 공과금과 기타 寄附金性 공과금가운데 강제성을 띠면 비자발적 준조세를줄이고, 기업자신들의 純利潤에서 지급하게 하는 자율적결정을 존중하여야 할것이다.

②準租稅가운데 새마을감면과 같이 공공적 성격을 띤 감면등은 가능한 한, 政府財政負擔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③기업은 줄어든 準租稅의 부담액을 기업의 순이윤의 증가로 생각하지 말고 勤勞者의 임금의 몫으로 또는 상품가격을 낮게함으로써 消費者의 몫으로 생각하여 기업의 건전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여야할 것이다.

④수개월 뒤엔 새憲法에 의한 새정부가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될것이다. 새정부는 權力의 命令, 지시에 의한 반강제적 準租稅의 징수를 지양하고 모든國家 經營을 공개하고, 경영비용의 정치적 必理를 선행함으로써, 企業經營의 변칙과 비리를 바로잡아 기업의 올바른 경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온 國民의 사랑을 받는 企業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부금이나 성금등은 T.V나 라디오 또는 신문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모금할 것이 아니라, 企業이나 家計 또는 개인이 부담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상부상조의 德目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뷰…全經聯방문 항의농성목회자를 만나

노동운동 탄압은 예정된 시나리오

재벌과 연결된 언론의 왜곡보도 폭로마땅

<노창식 목사・신명교회>

—단식기도를 시작하게된 계기는?

7~8월에 들어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구사대, 또는 경찰들로부터 폭력・감금등의 탄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선거에 관심이 쏠려있고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하여 실상이 알려지지 못하였읍니다. 이렇듯 노동운동이 탄압국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본부나 카톨릭계등에서는 국면을 타개해 나갈만한 활동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읍니다. 더우기 국민들은 언론에서의 노동자들의 폭력성, 분규의 피해, 분규로인한 경제위기등의 왜곡 보도속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입만을 강요당했읍니다.

이에 진상을 올바로 알리고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화요일인 15일부터 단식기도에 들어갔읍니다.

—전경련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이번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우연이 아닌 각본에 따라 진행되어진 시나리오였다고 본는것이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단식농성을 하던중 현장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하소연하는 노동자들을 접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졌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었고 지난9월5일 국무회의에서의 허위보고를 했던「전경련」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읍니다.

—항의방문후 연행되기까지의 사건진행은?

허위보고에 대한 사과문을 요구하며 회장면담을 요구했으나 회장은 자리에 없었고, 책임있는 선에서의 확답이라도 듣고자 했으나 전경련측의 답변은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사례만을 열거하며 허위보고는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인없는 방에서는 나가라는 것이었죠. 이후 6시20분경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었읍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와 종교계의 시각은?

그동안 노동운동 자체가 탄압을 많이 받아왔고 대중성확보와 선도투쟁論등의 이론적대립속에 무리한 부분들이 많아 노력만큼 성과가 없었고, 노동운동계가 통일되어져 있지 못했지요. 성서적으로 볼때는 교회가 노동기층민중들이 핵심이 되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부유한 계층 중심의 대교회주의화되었고 장로가 기업가化 되다시피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구조적으로 관심을 갖기가 어렵게 되어있읍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개선돼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소장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갱신이나 민중운동적 차원에서 이에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활동을 벌여나가야 할때라고 봅니다.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은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6・10민주화운동기간에는 민주화운동에 기여를 한점도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6・29선언후 노동운동기간에는 정반대로 재벌과 연결되어 노동문제를 왜곡보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것은 기업주인데도 노동자들이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편파보도만을 일삼았읍니다. 앞으로의 민주화운동에 있어서도 언론의 역활의 크다고 볼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폭로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헌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의 헌법개정안이 전반적으로 민중들의 의견이 대변되지 못한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국민투표거부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대중성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거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태도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운동과 선거를 이분화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보기때문이죠. 선거를 올바로 치르기 위해서는 노동문제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노동자등의 기층민중이 핍박받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결코 제대로 치루어질수는 없는것이지요.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해나갈것인지?

다시말하지만 성서적으로 복음의 핵심은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억압과 착취받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에는 당파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기독교를 만인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의 소외계층등은 외면하고 있어요. 현재 이번 사건을 통해 노동문제가 교계쪽으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여성단체 연합이 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등 기층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핍박받는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金情均기자>

全經聯 보고의 진상

지난 9월18일「전경련 항의방문 목회자 23명중 5명에 대한 구속사건」은 6・29선언이후 정부가 취해온 민주화정책의 허구성, 특히 언론의 독점기업화속의 제도언론의 왜곡보도와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무차별한 탄압속에 노동운동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나타나고 인식되어졌는가를 알수있는 것이였다. 이번 사건의 경위는 지난 9월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규하전무가 국무회의에서『최근 노동쟁의 실상과 특징』이란 보고가 노동자들의 폭력행위 사례들을 열거했으나 대부분이 허위 날조보고하였고 이를 사실인양 일간지, 방송이 그대로 보도하였던데서 발생하였다.

이에 23명의 목회자는「우린는 왜 전경련 회관에 들어왔는가」란 성명서를 통해 ▲국무회의 날조보고 사과 ▲조규하전무파면 ▲기업가의 봉건적・비도덕적 작태청산을 요구하였던것이다. 실제적으로 조작된 사례를 살피면 ▲기아기공:사장에게 돌세례, 승용차파괴, 폭크레인 삽에 간부를 싣고 내렸다올렸다함, 노래를 시키고 노래값내라고 사장에게요구했다고 보고했으나 승용차는 구사대측이 파괴했었고 폭크레인 부분은 전경련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강원삼척탄좌 정암광업소:사장을 무릎꿇게하고「무얼먹고 배가 나왔느냐」는등 폭언과 함께 발길질 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사장이 광원가족아줌마의 따귀를때리고 농성현장에 경찰과 구사단이 최루탄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무차별 구타감금, 연행해 감 ▲기아산업:임원전원을 묶고 토끼뜀을 뛰게 한뒤 노래를 시켰다고 보고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실무근임을 인정 ▲영창악기:사장을 드럼통에 넣고 굴렸다고 보고 했으나 공장안에는 드럼통이 없었으며 사실무근임이 밝혀짐 ▲동원전자:폭행으로 사장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보고 했으나 사장이 스스로 사실무근이라 해명・이외에도 삼익악기, 통일, 대섬탄좌등의 사례가 모두허위로 밝혀짐.

언론의 왜곡보도 경우는 지난8월1일자 ㅈ일보 사회면 사진설명을 살피면「국제상사 근로자가 하계보너스를 지급한뒤 휴가를 실시하자, 이탈을 막는 농성자를 피해 집단탈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공장안에서는 구사단이 쇠파이프와 망치를 휘둘러 대고 밖에서는 경찰이 무차별 연행해가자 이를 피해 기숙사담을 넘어가는 모습이다. 이외 8월21일자 ㅎ일보의「한세실업」의 근로자 난동기사등 무수한 사건이 왜곡, 날조보도되어 현재 밝혀진 사례는 九牛一毛에 지나지않는것이다. 특히「대정부요망사항」이란 부분을 보면 권력과 기업, 언론이 어떻게 밀착하고 있는가를 살필수 있다.

「급진좌경세력의 기업침투발본색원」「체제유지 발전을 위한 긴밀한 정경협조」「언론인・지식・관료・정치인의 여론선도」등의 항목은 권력과 언론, 기업간의 부도덕한 결탁을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목회자들의 단식기도와 항의방문의 의의는 제도언론의 편향된 보도자세와 정부측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속에 3천여건이 넘는 파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연대투쟁을 꾀하지 못했고 조합주의적 경제투쟁의 단계를 벗어난 정치투쟁으로 엮어내지 못했던 상황이란 점과 자연발생적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승화시키기에 앞서 선거분위기에 가려 탄압받는 노동자의 실상을 제대로 폭로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선거국면은 노동운동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좌우할수 있을것이며 전체사회변혁 운동적 차원에서의 노동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할때 노동운동부분의 역량강화를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획부>

全國大學新聞 광고문의・741-1166, 741-1662
주식회사 애드・젠 ZEN ADVERTISING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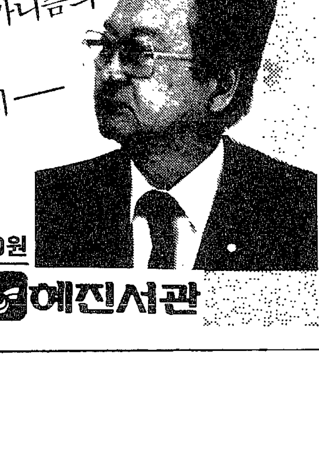
혜진詩選集 29
인당수에 부는 바람
河吉男 詩集
서정의 농숙과 참신성을 지닌 有精卵의 詩篇들!
하길남에 있어서 詩란 바로 인연의 줄을 찾아가는 영혼의 자기구제의 방법일 것이다. 인당수 물의 효험이란 바로 그 죽음과 환생 그리고 눈멈과 눈뜸이란 영혼의 변증법이 아닐 것인가. —
값 2,500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45-3호 ☎712-7398
혜진서관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님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學, 영혼으로 만나는 순정한 사랑의 갈구

〈영의 신랑이신 하나님과 육의 남편이신 장로고 양영재교수님께 첫열매를 바칩니다.〉
맑은 감성과 유려한 가락, 깊고 그윽한 동양적 서정을 바탕으로 사별한 한 사람을 향해 띄우는 김소엽 시인의 사랑 헌시.
유한한 사랑에서 영원성을 지향하며, 초월자에 대한 영적 그리움과 사랑으로 승화시킨 김소엽의 시편들은 한편 한편이 밀도 짙은 시적 긴장감과 가슴을 찌르는 절실성을 동반한다.
그대는 별로 뜨고
2,000원 文學世界社 (764)2672,

문학 교수 尹在天의 끝없는 자기갱신!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

尹在天 隨筆集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전함을강요하는 것도 무리이고, 실수가 전혀 없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있는 일은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 시작만이 있을 뿐 끝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가격 3,300원
혜진서관
서울・마포구 도화동 345 3호
☎712-7398, 718-2468

尹仁永 第3詩集
連詩狀況
尹仁永 詩集
세상은 심혼의 찌꺼기마저 쉴 곳이 없는 時空間의 對立이나 峙立이 유행하고, 우리의 현실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물결이 거세니 그 奈落相은 무어라 설명할 길이 없다.
- 後記 중에서
生動하는 反메카니즘의 힘찬 메세지—

값 3,000원
혜진서관

All Faculty Members have post-graduate training abroad!!
외국어의 명문
학생모집
●동시통역과정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2년 수료후 해외연수 1년)
본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의 빛나는 장래를 보장합니다.
●LANGUAGE COURSE
영어, 불어, 일어(Conversation과 L/C)
Native Speaker들의 집중교육.
현장실습 과정과 같음
●TOEFL
L/C, Structure, W/E, Vocabulary, R/C, Essay,
쉽고 재미있게 600점 이상을 목표로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음. TOEFL 정보, 유학, 취직시험 상담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ABC News (Nightline) 청취반
●Cable Network News (CNN)
Listening의 최고봉 //
본 강의 수강으로 청취력 완전해결
●Native Speaker 회화반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아어
회화를 자유자재로 본국인과 같이
●Donahue, 60minutes, Drama반
흥미, 감동, 긴장의 연속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취력 향상
●영문법
문법, 독해, 작문의 재정리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기초부터 하실 수 있음)
●유학준비반
일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유학시험 철저 준비과정)
영국, 미국, 카나다, 일본, 불란서, 독일, 대만 유학 무료상담
●대학원직학반
영어, 일어, 불어, 독일어, 중국어
(각 대학별 출제문제 및 예상문제 철저 분석강의)
각 대학원 입학요강 무료안내
※토요모임
토요영화감상회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서반아어)
TOEFL Study Club, 영어회화 클럽, 연극클럽
일어모임, 불어연구회, 외국어노래회
(수강생은 상기 모임중 어느 것이나 가입할 수 있읍니다)
549-1536/5117
*미국통역협회(A.T.A)산하단체
亞細亞外國語學院

미국의 對韓전략과 盧대표의 방미

"親美예속 權力의 재편음모"

민중의 민주화역량으로 대동단결해야

對韓정책의 기본축은 군부재집권유도

국내민주세력의 기선제압 의도 드러내

6·29선언이 발표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주지 하다시피 6·29선언은 지난 6월의 예속 군부독재의 장기집권야욕을 분쇄하고 민주적인 민중제권리와 민족자주를 되찾기 위한 한반도전체 민중의 치열한 투쟁으로부터 나온 미국과 예속 군부독재집단의 고육지책이자 일시적 퇴각전술이었다. 아울러 그들의 내부전열 정비와 애국역량 일각의 동요를 유발시켜 분열을 책동코자 하는 음모 또한 간과할수없다.

그러나 6월항쟁의 열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투쟁전선에 대중적으로 집결한 형제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민중들이 민주민권쟁취를 목표로 한치도 흔들림없이 진군하였다.

이것이야말로 6·29로인한 동요를 일축하고 6월항쟁의 부분적 승리의 성과를 확고히 계승하고자하는 정세의 새로운 추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간 애국세력 내부의 지도력 부재및 사상적 혼란으로인한 폭발적 대중투쟁지도의 한계를 뼈저리게 반성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예속군부독재집단의 본래적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6·29선언의 기만적「실체」가 하나 둘 벗겨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애국역량은 보다 올바른 정세판단을 통해 다가오는 선거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할것이다.

1、미행정부의 對韓정책과 6·29

미국은 세계 도처의 제3세계국가에서 날로 상승、강화되어가는 민족해방투쟁에 직면하여 5·16쿠테타 이후 30여년의 군부독재지배가 증명하듯이 군부집단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효과적 한국지배가 불가능했다.

동시에 이는 미국 스스로가 보호 육성하여 안정적 예속지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제도내 보수야당을 불가피하게 철저히 소외시켜 결국 자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87、88년을 둘러싼 한국의 예속지배질서 안정화 재편기도는「제3세계의 어떤 독재든 반미내지 공산독재보다는 낫다」라는 레이건 정권의 정책적 핵심이 언명한듯이 기본축을 군부독재 재집권으로 설정하게끔 했던 필연적 귀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4·13호헌협박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폭로된 바 있지만 결국 한국 민중의 장구한 투쟁이 없는 한 군부가 재집권하는 길을 닦는 책동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6·29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본듯이 미국의 對韓정책의 폭이 그저 단순하고 협애하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6월 항쟁과 6·29선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개헌과 민주화에 관련한 미행정부의 초조한 입장을 잘 대변하는 다음 표현은 의미깊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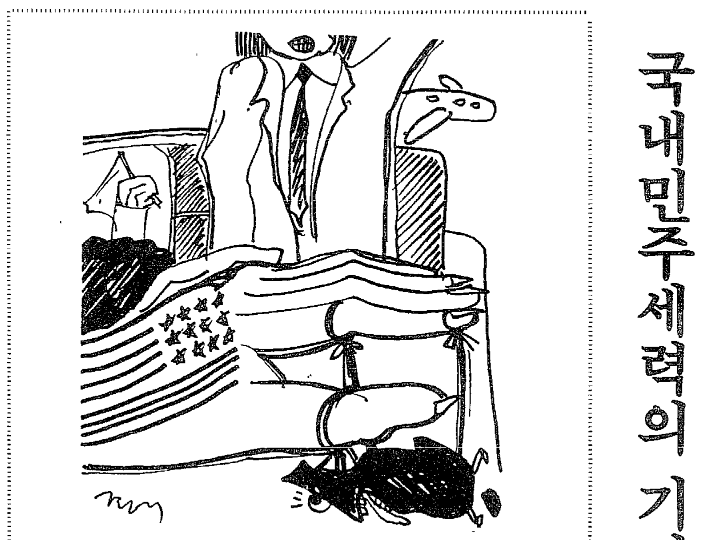
『한국의 발전하고 있는 정치제도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창설될 경우에만 다음 세기에 접어들어 번창할 수 있는 활력 및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전두환대통령은 더이상의 정치활동을 하지않는 은퇴 정치가들의 집단에 합류할 것이다』

이는 6·29직전 방한하여 행한 게스턴시거 미국무성차관보의 對韓발언 요지이다. 이 내용을 통해볼때 우리는 그들의 對韓정책에 대한 몇가지 변화를 읽을수 있다.

먼저 이른바「조용한 외교」로부터「큰소리 외교」로의 전환이다.

둘째로、한국정치에 대한 소위「문민화」의 촉구이고 나아가 친위강경세력의 제거를 함축한다.



아울러 절대로 간과할수 없는 것은 반미의식의 완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데 그간 미국이 한국의 군부강경파에게 暗默的 지지를 보내 전개해온 일련의 정책들—86년 하반기의 민주화운동 대탄압、87년 상반기의 신민당 내부 분열공작、4·13호헌조치—에 대한 책임회피요、향후의 정책에서는 온건군부세력으로 대체한다는 전환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태우의 6·29선언을 전후한 미행정부의 발언에 이르러선는 이와같은 그들의 정책변화를 보다 극명히 드러내준다. 6·29선언이 나오기 몇시간 전 NBC-TV의 아침프로에 출연한 슐츠 미국무장관은『한국정부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꾸려 지금 약속하려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측의 장기적 노력의 일환이며…』라고 6·29를 예언했다. 더불어 6·26선언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국무성은 신속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이 한국민에 대해 민주화의 사도라는 제스처로서의 의미와함께 여권내 강경파의 어떠한 반발도 용납하지 않는다는「경고」의 뜻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민중의 격렬한 반미 반독재투쟁에 직면하여 기존의 노골적 전술구도 수정이 불가피하기에 이른 것이지만 반미의 화살을 피하면서 미국의 이해를보장해주는 안정적 친미정권을 유지하는것、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이 강구한 방안이 노태우를 앞세워 선거에 의한 군부재집권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였다고 볼 수 있다.

2、선거 국면속에서의 盧방미의 의미

이렇듯 급격한 정세를 통해 짜여진 구도속에서 노태우는 새로운 군부통치 예정자로 부상하면서 미·일방문길에 오르게 된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민간단체의 초청에 의한 사적인 방문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가 현 국면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전포석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우선 미·일 조야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이 안겨줄 국제적 지지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효과가 그것이다.

실제로 미행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이 없는 한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심지어 일국의 통치자가 사적으로 방미를 했을 경우조차、미대통령및 행정부의 요원은 만날 수 없었던 것이 관례다. 이번 盧의 방미기간중 있었던 레이건과의 조우에서 비록 그가 야당지도자도 같은 대우를 받을것이라고 강변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 제스처일 뿐이요、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파격적으로 조우했던 사실 자체가 국제적으로 노태우의 지지를 뒷받침한다는 포석에 다름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둘째로、당내에서 친위강경파와의 관계속에서 확고하게 당을 장악하고 운영하는데 한계를 겪었던 노태우가 방미를통해 당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선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점에서 그가 미국방문중에 행한 연설가운데『한국내에서는 좌·우극단주의가 최대의 적』이라고 한 표현은 음미해볼만하다.

셋째로는 민족자주와 민주화·자주적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국내 애국역량에 대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측면을 무시할수 없다.

그의 방미기간 연설중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서울에 와서 TV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게하고 남한측도 평양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는것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든지、남북한 시차 교차승인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한 대목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이 엄존해 있는 상황속에서 통치자의 입장이 아닌 일개 정당의 총재로서 행한 그의 발언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귀결되는 바 논란의 여지가 남지만 그 발언 자체가 지니는 의미는 한국내의 애국역량에 대한 상징적 기선제압을 노렸다는 점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노태우의 지난 미국방문은 미국이 6·29를 통해 그를 앞세워 선거에 의한 군부재집권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한 현재의 싯점에서 이상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차질없는 권력재편구도를 착수하기 위한 계기로서 총체적 의미를 지닌다고 해야할 것이다.

3、결 론

87、88년의 안정적 친미 예속권력 재편구도속에 착착 진행되는 미국과 군사독재집단의 정치프로그램은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그 획을 그을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의도가 일방적이고 자연적으로 관철되리라는 생각은 버려야할 것이다.

분명히 미국의 정책은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력、그리고 여타 경제적 압력수단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우리 민중의 점증하는 자주화·민주화역량에 직면하여 쇠락의 운명을 걷고있다. 또한 현지 지배세력과의 갈등과 이해조정、무엇보다도 우리 민중과의 쉽없는 갈등속에서 지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띨수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결국 친미예속정권을 안정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저들의 의도도 애국역량이 얼마나 대동단결하여 그들의 음모를 힘있게 저지해 낼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때 미국의 의도는 결코 정세의 동력이 될수 없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정 지 민 〈민청련 홍보부장〉

정치방송의 전망과 과제

국민들의 정치참여 유도할 수 있는 장점 지녀

특정정당 후보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당할 우려

공정한 방송은 민주화 분위기 조성

정치의 계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석달도 남지않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방송및 정치광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전체가구의 90%이상、전국적으로 1천만대 이상의 TV수상기가 보급되어있는 오늘날 TV를 통한 선거유세나 정치광고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하고있다.

본 글에서는 정치방송의 중요성과 함께 그 역기능과 정기능、미국의 제도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정치방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李相喆 〈중앙대교수·국제커뮤니케이션〉

우선 정치방송이란 정당이나 정치인이 그들의 정강정책이나 정치적 비젼、그리고 정치적 약속을 방송을 통하여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치방송을 가장 잘 이용한 정치인으로 죤·F·케네디 대통령을 들 수 있다.

196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무명이자 약세였던 케네디가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일약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경쟁자인 닉슨과의 텔레비전을 통한 대토론(The Great Debate)이었다.

케네디는 TV시대에 알맞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참모진과 준비한 메모 카드로 예행연습까지 한 반면、닉슨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긴장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곧 이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케네디는 순발력있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나 닉슨은 늙고 나약한 이미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곧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케네디 신화」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방송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예는 수없이 많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그 대표적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다.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방송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특정입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방송은 수많은 유권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후보자의 인물과 선거공약을 전달할 수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대와 같이 바쁜 세상에 유세장에 직접나가 후보자와 대면하거나 연설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유권자수는 그리많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다.

또한 정치방송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민주정치、여론정치의 핵심인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가져올수도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치방송에대한 회의론도 만만치않다.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좌우할수있는 정치적 선택이 후보자의 용모나 화술등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에 의하여 결정될 위험을 안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TV를 통한 정치토론에서 그의 인간적 성실성이나 정치적경륜보다는 순발력과 임기웅변에 뛰어난 인물이 훨씬 유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방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치적 이미지를 화려하게 포장하여 유권자들에게 팔아넘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처럼 방송이 가지는 엄청난 위력때문에 현대 정치에서 정치방송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치방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될수 없도록 하기위하여 크게 두가지 원칙、즉「等時間의원칙」과「衡平의 원칙」을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를 제한 하는 어떠한 입법도 금지한다는 조항)의 정신에는 위배되지만 방송전파의 유한성과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에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했다.

이들 원칙중「등시간」조항은 명문화된 법조문(통신법 제315조)으로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방송의 공정성(fairness)과 균형(balance)、그리고 양면성(tw-osidedness)를 유지하기 위해 FCC가 만든 여러 규칙은 수정헌법 제1조 정신과의 마찰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이를 해석할에 있어서 방송국에 자유 재량권을 주고 있음에 반해「등시간」조항의 의무는 방송국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명백한 법법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게된다.

「등시간」원칙의 핵심은 두가지다. 하나는 한 입후보자가 방송국을 이용하면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갖춘 다른 입후보자에게도 방송국을 이용할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기회는 방송국의 자유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방송국은 입후보자가 요구하면 먼저 기회를 준 후보자와 동일한 기회를 다른 후보자에게도 줄 법적 의무가 있다. 다른 하나는「등시간」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법 제315조의 입법취지는 모든 공직 출마자들에게 방송 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줌으로써 편파적 파당주의(favoritism)을 막고 정치방송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있다. 등시간(egual time) 원칙은 일반 선거의 입후보자는 물론 특별선거、예선、그리고 정당의 후보지명선거등의 입후보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단、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하더라도 공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방송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원칙은「형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다. 이 원칙은 등시간의 원칙과는 달리 FCC가 방송의「공익 원칙」(public interest principle)을 행정적으로 해석한 정책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조항은 아니다. 즉 방송국의 자율규제정신에 입각한 일반적 지침에 지나지 않는다.

「형평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방송시간을 할애해야 하고、둘째는 반대되는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동일한 방송기회를 가질 수 있게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원칙 중「형평의 원칙」은 지난 8월 FCC가 폐기를 결정했지만 공공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조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의 편파적 보도에 대한 비판은 아직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방송은 집권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방송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부 홍보를 위한 관영 방송이라는 것이다. 방송이 지니는 엄청난 위력을 감안할 때 공정한 정치방송이 착실한 민주화의 진행、지방자치제의 정착、건전한 국민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난 25일 여야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과 관련、公民營방송을 막론하고 방송시설 관리자는 대통령후보자의 주요 경력사항을 선거일 전날까지 3회이상 실시하되 횟수와 내용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조항을 미국의 경우와 같이 정치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제를 다루는데도 적용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정치방송의 활성화와 더불어 공정하고 균형있는 방송을 통해 한국의 정치를 비롯 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착실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외국어교육의선구자
PAGODA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인영어회화·S.L.E. (각반 12명 / 강사전원 학사·석사출신 미국인 / 10달완성)·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Active회화
ENGLISH영작, 문법·TIME·영어순해·TOEFL·종합영어 영어독해·성문기본영어·영어실력기초·KOREA TIMES VOCABULARY·AFKN청취· TOEFL L/C ·무역영어
S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표준일본어·NHK일어청취·일어통역가이드· 프랑스어·프랑스인회화·독어·독일인회화·중국어· 중국인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어학교수법 외국식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철권발급 ·수료증 취득 PLACEMENT TEST를거친LEVEL배정.
274-4000, 274-8821, 8822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종로 2가파고다공원건너편흰빌딩
I CAN DO 파고다 외국어 학원

KH 英字日刊紙 The Korea Herald 直營
개강 : 10월 2일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佛語·独語·中国語!
*Korea Herald 社説
*Time·Digest·영문해석
*TOEFL 이재욱 아카데미
*Voca 22,000
*영문해석·L/C, Hearing
*성문(綜合·基本)영어
*생활 영어회화
*英作文·三位一体
*영어실력기초· 기초영어
*미국인 회화
*Stream Line English
*AFKN-TV, 스크린 合同
*English Alive, P·T·P
*日語 스크린會話
*일본인 회화
*日語 다이제스트
*中國語·독일어
*프랑스어· 서반아어
코리아 헤럴드 外國語学院
지하철 을지로 입구역앞 ● ☎ 757-0419·0420
※관공서 기업체의 외국어 위탁교육은 별도로 협의
시청각 영어회화 과정 개강➡10월 6일 (선착순마감)
●기초부터 최고급까지 6단계—각 40일수업(2개월)
●전원강의 경험이 풍부한 Native Speakers
TOEFL 종합 코스 개강➡10월 5일
●TOEFL을 Structure, L/C, Reading, Voca, Writing으로 학습과목을 세분한 고득점 코-스
Korean Language
●Intensive Course(40days/2months)
●Conversation Short Course(16days/2months)
코리아헤럴드 語学研修院
퇴계로 본사사옥3층 지하철명동역앞 ☎756-7711
신문구독신청 ☎778-4388, 778-0834

통역가이드·유학·무역·外国会社 취업코스
英·日語통역(반액)장학생 모집
★6個月에 資格證 취득 그리고 취업★
〈새벽·낮·저녁班〉
本院은 15年의 전통을 가진 觀光要員양성학원으로 앞으로 급증하게 될 통역업무에 종사코저하는 인재를 수강료 반액 장학생으로 모집 6개월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100% 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케 하고 全員 취업을 알선할 것입니다.
• 모집인원
英語科 各班 20名/日語科 各班 20名
• 응모자격
高卒이상 만 18세~40세 男·女
〈大學生·직장인·家庭主婦〉
• 접수마감
10月 11日(日요일) 오후 5時
〈휴일도 접수함〉
• 전 형
접수시 면접 및 필기로 合格여부 결정
실력에 따라 班編成(日語는 면접만으로)
• 개 강
10月 12日 (外國語 초보자도 가능함)
• 교육기간 : 6개월
英語代表講師 金東一 教授
日語代表講師 金正泰先生 (最新日本語著)
※ 문의환영
特典
●선발된 인원 수강료 반액 장학혜택
●우수자전원 국가고시합격 통역GUIDE 취업
●우수자전원 무역회사, 외국회사 취업
●성적우수자 교육중 외국어권 아르바이트
범아관광학원 814-1192 814-1805
노량진역⇨제일한강대교 400m 본동 BUS STOP앞

제2회 東大文學賞 수상작

本賞受賞作

문 삼 영
<東國大·야간강좌영문과2>

옛날 어느땅도 山 아닌 곳 없었고
고개 아닌 곳 없었던 시절에
낮고도 보잘것 없는 산 밑둥으로
흘러 흘러
야트막한 하늘 지고 앉았더니
그 언덕 뭉텅깎고 내질러
버섯처럼, 가늘지 않은 목숨 하나로
넉넉히 지붕들을 떠받친 이웃들을
보기도 하는구나.
가난이야 또 한번 내지르면
너르디 너른 우리들의 영토
없는자들이 곳곳에 모여
山과 언덕을 이루더니
맑은 물 한 사발로도
세상의 배고픔의 그맛조차 알겠더니,
때로는 사나운 바람 맞아
훌렁 날아가 버린 그대들의 하늘
지붕 잃고 밤새 어지러운 꿈자리를
보기도 하는구나.
가난할수록 높은 곳에 살아
하늘이 가깝다던,
그 높은 곳에 앉아
들끓는 세상의 그늘을 내려다 보며
칠순을 넘긴 돌이 할아버지의, 집 잃고
失性한 웃음도 보는구나.
그 옛날에는 모두 나무 아닌 것 없고
풀잎 아닌 것 없었던 이곳에
오늘은 굳은 살 손바닥에 침 퇘 뱉고
허리 불끈 동여매고
저 맨땅 더 깊이 뿌리 박는
풀잎들을 보기도 하는구나.

당선소감

말의 "사슬"속에 몇마리는 날아…

문 삼 영
<本賞수상자>

유독 할말이 없는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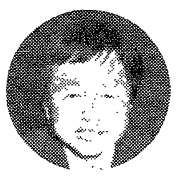
하고싶은 말을 모두 써버린 뒤의 허탈감일까. 아니, 해야할 말을 했다는 그런 섣부른 안도인지도 모르지. 가난과 그동안의 너무 손쉬웠던 좌절과 오랫동안 나를 뼈아프게했던 無力感이 나의 말들에 사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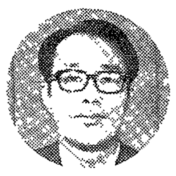
오랫동안 내生活에 대해 肯定도 否定도아닌 망설임속에서 지내왔다. 그동안 내게 傷處를준 모든것들은 환상이 되어 곤충처럼 내속 어디엔가 웅크려있었다. 이제 비로소 그중 몇마리를 날려보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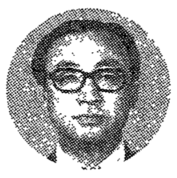
넘어야 할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느낌보다 막상은 앞에 놓인 더 큰 검은山들이 두렵다. 그러나 곧 이 단단한 기쁨에서도 빠져나와 다시 건들거리는 풀잎이 되어야지, 그녁함이길 바라고싶다.

보잘것 없는 글을 뽑아주신 審査委員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내 나태함에 자극을 주었던 벗들에게 이기쁨을 돌리고 싶다.

가려뽑고 나서


申庚林


李炯基


金長好

詩 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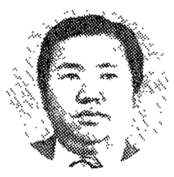
심사는 2단계로 나누어 했다. 첫번째는 예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두번째는 자연 본선에 해당한다. 두번째의 그 본선과정에서 검토대상이 된작품은 17편이었는데, 전년도보다는 모두가 현저한 수준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경우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로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두고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하여 원래 장원과 차상 두편만을 고르게 되어있는 규정을 바꾸어 세편을 뽑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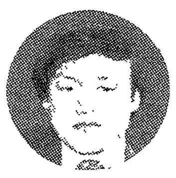
작품수준의 전체적 향상이란 반가운 현상이 이러한 변칙을 낳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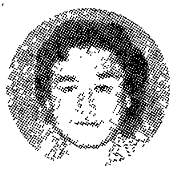
장원으로 뽑힌 문삼영군의「山番地探訪」은 그 시정신과 언어구사능력이 모두 어떤 노숙성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그의 시가 모더니티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그의 장점으로 보았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착실하게 자기 세계를 개척해 가는 그의 작업은 남의 눈치 살피기 바빠 자기를 잃은 경향이 농후한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값진 것이다.

원동우군은 뛰어난 테크니션이다. 이미지도 선명하고 또 그 이미지를 의미있게 조직하는 재능도 놀랍다. 어떤소재든 그는 그것을 무난하게 작품화할수 있을 것이다.

박안수군에게는 건강한 청춘의낭만성이 있다. 박군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관심이 농후한 작품은 이런 요소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법이다. 한데도 그가 그렇지 않은것은 그의 시적자질이 그만큼 뛰어남을 입증한다.


金容喆


韓龍煥


金文洙

小說 부 문

작년보다 많은 50여편의 응모작에 큰기대를 걸고 심사에 임했으나 작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해 섭섭했다.

그런대로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墨月〉〈末年日誌〉〈서있는 사람〉〈겨울에서 겨울로〉〈길들이기〉〈깨어나는 저녁〉〈침묵〉등 이었는데, 대부분 감상적이거나 통속적인 삶의 斷面, 군대생활에서 흔히 겪는 반항의식, 광부의 가족이 겪는 불안, 학원사태를 에워싼 전경의 갈등, 애정문제에 대한 여성의 잠재의식 등일뿐 그 주제가 우리삶의 아픔을 부단히 일깨우거나 나름대로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주는 감격이나 감동을 주는 작품이 거의 없었다.

그런가하면 文章도 진부하거나 요령부득인것도 많았다.

따라서 심사위원 셋은 아직 소설을 공부하는 학생들인 만큼 메시지쪽 보다는 언어쪽에 중점을 두고 고르기로 합의를 보았다. 다시말하면 주제보다는 소설문장의 기본 수련을 쌓은 학생작품을 入賞권에 넣기로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서있는 사람〉(中央大 文創科·윤동수)과〈깨어나는저녁〉(東國大국교과·홍은숙) 이렇게 두 작품을 각각 佳作1席과 2席으로 정할 수있었다. 〈서있는사람〉은 극장에서 광고를 부치러다니는 젊은이가 그나마 실직을 하게됨에 따라 겪는 불안과 자의식을 끈끈한 문장으로 엮은 작품인데 그 진술력과 언어의 구사가 습작을 많이 거친 인상이고, 〈깨어나는 저녁〉은 기혼여성이 학창시절의 추억을 잠재의식 (꿈)을 통하여 현실로 환치시키는 모험인데 그런대로 문장이 섬세하고 탄력이 있어 좋았다.

아뭏든 응모자들은 소설을 한갓 신변잡기 비슷한 잡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다부지게 천착하는 고통스러운 作業으로 거듭 인식해 주기바란다.

洪起三

評論 부 문

끝내 남겨진 작품들은「결여와 초월」(노태맹)「處容說話와 春香歌의 對比的 考察」(金周容)「驛馬에나타난 東洋的 運命觀」(손영옥) 등이다.

「결여와 초월」은 무엇보다도 비평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과도한 자의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곤혹감을 갖게 한다. 萬海詩의 심층에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함축적 언어들로 보이지만 비평용어로서 적절치 못한것들이 과용되고 있다. 典據의 제시를 생략하고 있는 논리전개방식도 합당치 않다.

「處容說話와 春香歌의 對比的 考察」의 경우 문학비평의 범주이기 보다는 전형적인 문학연구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술적문헌주의 연구방식과 비평의 차이를 명시하기란 손쉬운 일이 아니지만, 비평가 자신의 비평정신과 결과적귀속으로서 當代性의 문제는 분명 文學비평의 두드러진 몫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허재관의「사랑과 통합성의 시학」은분명 전형적인 文學비평의 양상을 갖는다)

손영옥의「驛馬에 나타난 동양적 운명관」역시 문학비평적 접근이 아니라 텍스트의 성실한 해석을 시도한 대학비평물의 하나로 보여지게 한다. 언어비평과 과 원형이론의 방법적 배경을 통해 주인공들의 삶을 치밀하게 해석한 성실성에 주목하면서 佳作으로 선하는 바이다.

詩部 가작 1席

악 수

원 동 우
<中央大·문예창작과3>

약국을 나서다 문득
만나는 사람
별의 行間에 잠시 멈추어
내미는 손, 우주가 만나고
삶이 만나고 나의 태양이
너에게로 건너가
다시 나의 명왕성이 되기까지
너의 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화성시절 얘기로
너와 나의 머리 위에
새로운 별이 돌아 오르면
서로의 이름적힌 나무들처럼
하늘이 왜 저리 푸른지
이제 풀어진 손과 손
두통이 없는 우리의 별에도
우리의 자리곁에
사소한 일처럼 밤이 오는데
다시 삐걱이며 집으로 가는 길
믿기지 않는 도시의
모퉁이에서

썩 좋은 것이, 더 좋아질 때.

남자패션 캠브리지가 브리티쉬 클래식문화의, '캠브리지 멤버스'로 새로와졌읍니다.

옷은 자신을 표현하는 매개체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봄을 통해 저희는
옷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문화'라는 믿음으로,
작은 치장거리 하나까지도 잘 짜여진
'브리티쉬 클래식의 옷문화'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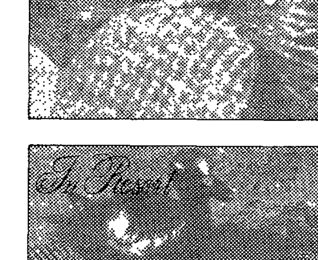
오늘, 썩 좋더라도 더 좋아져야 할 때. 과거를 되돌아보고 옷의 바른 새 길을 찾음 ③ 80년대, 오늘,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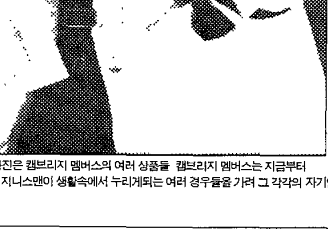
80년대 – 그 우후죽순의 시대.

앞서의 ②편 광고에서 잠깐 적었던 것처럼, 기성복은 신사복 시장에 발을 딛자마자 무서운 기세로 팔려 나갔읍니다. 1980년대 초에서 중반에 걸친 그 길고 긴 불황도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을 뿐, 그 기세를 다 꺾어 놓지는 못하였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복점에서 옷을 마추어 입던 그 많은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차차 기성복의 간편함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반대로 양복점들은 그 옛날의 영화를 하나 둘 잃어가기만 했읍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기성복 상표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읍니다. 그리고 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수 많은 상표들로 하여 신사기성복의 국내 시장이 거의 완전하다 할만큼 팽창되었던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옷들.

그러나 그처럼 고를 수 있는 상표들이 많아졌음에도 한편으로는, 기성복이 소비자의 욕구를 상당부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라는 그 흔한 말 그대로 소비자의 아는것, 느끼는 것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었음에도, 또 소비자의 일과 생활의 영역이 옛날과는 비교도 안되리만치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와있는 옷가지들 대부분이, 품질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음을 빼고는 그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스타일과 감각, 그저 비슷한 품목의 수준에서 성격없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었으니, 그것은 옷을 만드는기업이 전체사회의 문화에 보탬이 되는 옷의 문화를 보급한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만들어 잘 팔리기에 안전한 것'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더 앞서 하였기에 생겨난 일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사진은 캠브리지 멤버스의 여러 상품들 캠브리지 멤버스는 지금부터 비지니스맨이 생활속에서 누리게되는 여러 경우들을 가려 그 각각의 자기연출에 필요한 상품들을 모두 제공한다

그 세월들의 반추를 통해 얻은 확신.

이렇듯, 여러가지의 즐겁고 때론 괴로운 일들로 얼룩져 온 우리나라 양복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옷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저희가 모시는 손님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지니스맨들에게 있어서, 겉모양을 이루는 옷이라는것은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견식과 품격을 표현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분들이 입는 옷은 자신이 생활속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가지 경우에 맞도록 다양하면서도, 작은치장거리 하나라도 스스로의 기품을 잃지 않는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싱글수트 한 벌 자켓 한 벌이 아니라, 일관된 안목에 의해 잘 짜여진 옷의 문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수백년동안 세계의 신사들이 지켜온 '브리티쉬 젠틀맨의 페어플레이 생활원칙'을 잣대로한 '옷의 문화'를 제안하게된 저희의 작은 깨달음이요 믿음입니다.

울마크! 100% 순모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증거
Choose Woolmark, Take Pride.

멋부리지 않은듯이 멋부리는 정통 방식 – 캠브리지 멤버스.

20여년간, 처음 일을 시작할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오직 한가지로 추구해온 것은 본디 서양사람들의 옷인 양복을 우리나라의 생활인들에 맞게 제대로 보급하고 그 입는 방법과 문화를 누구나 우리식으로 소화할수 있도록 잘 일러드리는 일이었읍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러한 노력이 작은 힘이 되었음인지, 그동안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읍니다. 우리 누구나가 늘 입고 지내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해 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 면세계를 은연중에 표현하는 하나의 '의미있는 문화'라는 것을, 대개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고 생활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옷을 만들어 보급하는 기업의 자세도 달라져야만 하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저희의 새얼굴 '캠브리지 멤버스'는, 20여년동안 인정받아온 빼어난 품질과 저희가 늘 추구해온 브리티쉬 클래식의 썩 든든한 뼈대위에, 우리나라 비지니스맨들의 무르익은 문화감성을 살로 더한 고유한 멋의 문화입니다. 단순한 한 품목 한 품목의 옷가지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신사복은 물론 비지니스맨들이 생활속에서 겪게되는 여러경우의 스타일연출에 필요한 모든 연관상품들까지, 세계 일류 브랜드들의 오리지널 상품들과 함께 더 훌륭해진 품질로 제공됩니다.

CAMBRIDGE MEMBERS
SINCE 1966 SEOUL

'더 포멀'은 캠브리지 멤버스가 만들어 보급하는 브리티쉬 클래식 스타일의 예복문화입니다. 단순히 어둠침침한 옷들만이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할 여러가지 경우에 필요한 모든 옷들과 그 연관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The FORMAL
By Cambridge Members
SINCE 1966 SEOUL

(주) 캐ㅁ브리지·삼풍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461-15 캠브리지빌딩
우편번호 135 전화. 586-0303

제2회 東大文學賞 입상작

評論부문 佳作

손 영 옥 <경남대·국교과3>

東洋적 운명론과 토속적서정성이 어우러져

―「驛馬」에 나타난 동양적 윤리관

I、서 론

김동리의 「驛馬」는 향토적 정조를 바탕으로 한 낭만적 색채와 서정성이 풍부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치밀한 암시와 상징들을 통하여 신비적인 분위기를 부여해 주고 있다. 그것은 작품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주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역마」에 대해서는 김동리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충분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소설 「역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역마」는 전체를 8개의 핵심적 의미단위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이야기를 통하여 이글에서는 먼저 花開라는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의 성격 및 운명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즉, 화개란는 특정한 공간에서 이들 인물들이 겪는 만남과 이별의 문제가 그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수용되고 극복되어 가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개개의 인물들이 주어진 운명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체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논리적이라기 보다는 비논리적 세계의 동양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양적 운명론은 한국의 토속적 서정성과 함께 우리 소설의 한 전형을 이룬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역만」를 동양적 운명관과 함께 향토적 서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본 론

1、공간 구조와 그 의미

「역만」의 서두는 대부분이 지리적 배경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단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징조단위로써 볼 수 있을 만큼 작품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드러내고 있어서 배경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소설의 중심 무대로 설정된 花開장터는 바로 주인공이 탄생한 곳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이 이 「花開장터」라는 지리적 배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곳은 모든 것의 혼합, 교류, 만남과 헤어짐, 열려 있음의 이미지를 풍긴다. 게다가 花開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꽃」이 「활짝 피었다」는뜻이다. 즉, 花開장터란 난숙한 여자가 있는 장터라는 말로 옮겨 볼 수 있다. 「장터」는 그 자체로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보다는 오히려 윤락적인 행위가 잦은 곳이다.

이런 장터에서 주막을 경영하는 여인은 나그네들에게 있어선 路柳墻花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막앞에 늘어선 능수버들은 매우 상징적이라 할수 있다. 또한 주막 주인인 옥화는 그 이름에서도 이미 작중 인물로서의 성격이 드러난다. 즉 命名法(Appellation)을 통해서 볼때 玉花는 「아름다운 꽃」을 의미하는데 장터에 핀 아름다운 꽃이란 결국 노류장화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장터는 세갈래 길의 길목에 위치한다. 이말은 대단히 암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거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우연한 만남의 가능성과 함께 각자의 길로 또다시 나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측할수 있게한다.

더구나 이 길과 함께 나란히 강물의 「흐름」이 있다는 것은 각자의 운명의 길을 따라 모두가 흐르는강물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까지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이란 결국 할머니-어머니(玉花)-아들(性騏)의 운명을 상징하는 세개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모였던 남사당, 중, 계연이 장터에서 스치듯 할머니, 옥화, 성기와의 「만남」을 갖고 인연을 맺은 채 또다시 이 길을 따라 떠나야만 했던 것은 세 갈래 길이 던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 소설의 중심무대가 되는 화개장터라는 공간적 배경은 한국의 민속신앙에 널리 퍼져있는 풍수전설과 관련지워 살펴볼때 주인공의 운명을 더욱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있다. 즉, 작품 서두에 산천의 지형을 제시하여 등장인물의 탄생부터 운명의 힘에 묶여져 있음을 암시하려한 의도는 다분히 널리 펴져있는 풍수설의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동리 소설의 세계에서 인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신비한 느낌을 더해준다.

2、낭만적 사랑과 비극적 운명

「역마」는 그것이 지닌 운명론이라는 주제적 측면에 비해서 소설 전체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이유는 물론 「역마」의 전체적 구성이 성기와 계연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서정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때문에 성기와 계연의 사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향토적 서정과 비극적 운명에 대한 이해 또한 필연적 요소가 될 것이다.

2-1、향토적 서정과 낭만적 사랑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이 작품전체를 지배하는 낭만성과 서정성의 본류다. 성기에게 있어 계연의 출현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계연을 처음 본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떠어진눈」이 되고 계연을 마주 바라볼 수도 없어서 집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쳐다 본다. 여태껏 성기의 뿌리내림을 위한 옥화의 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성기가 계연을 처음 본 순간에 이런 감정을 느낀것은 두 사람의 만남과 사랑 자체가 하나의 예정된 운명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契姸 이라는 이름이 주는 인물의 성격적 특징에서도 드러나듯이 계연이 성기와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인연이라는 불교의 윤회적 운명의 사슬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어머니 옥화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장됨으로써 더욱 가까와 진다. 옥화는 성기의 시중은 모두 계연이 들게 한다. 그리고 두사람이 칠불암 구경까지 같이 가게 만든다. 이는 옥화가 아들이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살을 없애고 그곳에 뿌리내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편을 떠나보낸 옥화로서는 자식마저 그렇게 보낼수가 없었던 것이다.

차츰 이들의 사랑은 깊어 간다. 때때로 두 사람 자신도 알지 못하는 비극적 운명이 암시되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르는 지리산속에서의 묘사들은 낭만적 서정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모룽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기를 탈 때마다 연방 더 우악스런 멧부리요, 어두운 수풀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편한 골짜기에 차 있는니 머루·다래 넝쿨이요, 딸기, 칡의 햇덩굴이다.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난장판으로 뻐꾸기들은 울고, 이따금씩 낄낄거리고 골을 건너 날아가는 꿩 울음 소리마저 야지의 가을 벌레 소리를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숲 속에서의 이러한 분위기는 그 원시적인 순수성으로 인해 근친상간과 같은 인간의 윤리적 금기가 끼어들 틈이 없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된 에덴 동산의 바로 그것처럼 느껴진다.

작품전체의 분위기는 낭만적 성격이 강해

두주인공의 비극적 표현은 자연과 대비해 강렬한 효과 표출

「으름」과 「면경」은 두사람의 사랑 매개물로

인간은 자신이 만든 윤리와 금기의 사슬에 묶여 스스로 슬픈 운명을 지고 연약한 존재로 전락했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성기와 계연은 이 숲 속에서 사랑과 행복의 절정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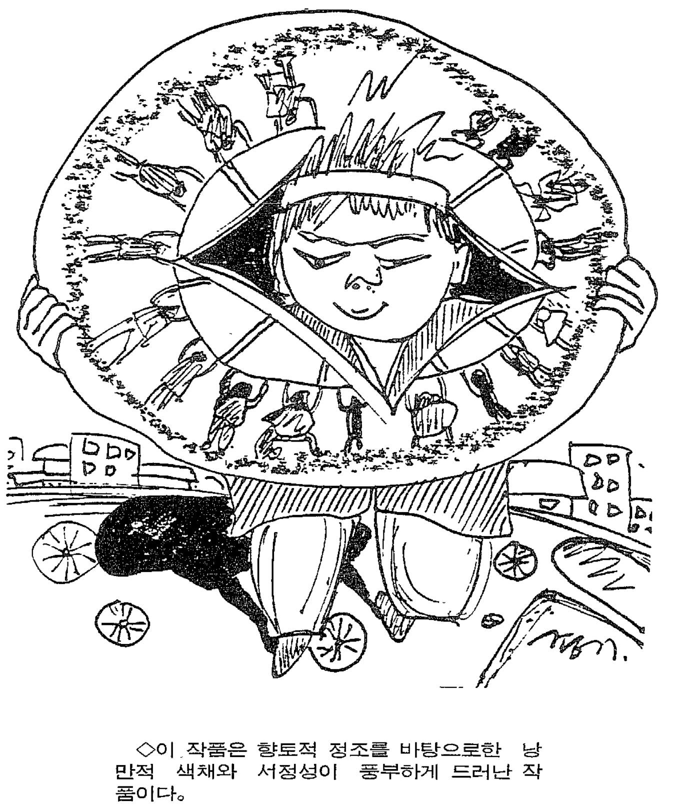
성기가 계연에게 면경과 찰떡을 주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행위 이면에 도사린 비극적 운명과 달리 정겨운 시골 장터의 풍경 속에 펼쳐진 젊은 남녀의 소박한 사랑의 행위가 오히려 더욱 아름답고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서의 둥근 면경은 지리산 숲 속에서 계연이 성기에게 내민 으름과 대비해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 비평의 관점에서 볼때 「파아란 오이를 만지듯 딴딴하고 우들두늘한」 으름은 남성 상징으로 볼 수 있으며 「둥근」 면경은 여성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으름은 계연이 성기에게 준 것이고 면경은 성기가 계연에게 준 것이다. 계연이 몹시 갈증을 느끼다 으름을 골라 따 쥐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띤다. 즉, 「갈증」은 성적인 욕구로 대치시켜 볼 수 있고 그때 「으름」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 지는 것이다. 계연이 으름을 내민 순간 성기와의 근친상간적 행위가 유발되었다는 점도 암시적이다.

또한 거울은 여인이 화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계연이 성기에게 거울을 요구한 것은 애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음과 아울러 계연과 성기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으름과 면경은 두 사람의 사랑을 유발하거나 깊이를 드러낸 매개물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기가 이웃 주막의 놈팡이 하나와 참외를 먹고 있던 계연을 몹시 때리는 행위나, 거기에 대해 계연이 아무런 반항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 졌는지를 알수 있다.



◇이 작품은 향토적 정조를 바탕으로한 낭만적 색채와 서정성이 풍부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자신의 윤리적 사슬에 슬픈 운명으로 전락

지형제시로 운명의 암시수법은 풍수설적 사고에 근거

섬세한 지리산 묘사는 낭만적 서정의 극치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헤어져야만 하는 비극적 아이러니의 희생자들이 된다.

「오빠、편히 사시요」하고、거의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있는 항라 적삼을、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 오는 뻐꾸기 울음속에、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뿐이었다.

두 사람의 비극적 아이러니는 무심한 자연과 대비되면서 더욱 강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들의 이별과는 상관없이 자연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이 헤어질 수밖에 없 [illegible] 적 서정 속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전개되어 왔듯、그들도 알지 못하는 운명에 의한 단절의 아픔이지만 그 아픔까지도 토속적 배경 속에 아름답게 승화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2、소설의 상징과 비극적 운명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무척 아름답고 깊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운명적인 비극성을 안고 있다.

비극적 운명은 많은 곳에서 암시되고 있는데、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토속적 서정 속의 낭만적 사랑을 사건으로 하면서도 그 밑바탕에 많은 상징과 암시를 둠으로써 신비성과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까마귀 울음은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는 몇가지 상징물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칠불암으로 오르는 지리산 기슭에서 성기와 계연이 누리는 행복이 절정에 이르른 순간、그들의 머리 위로 지나간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이들의 사랑이 결코 행복으로 맺어질 수는 없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근친상간의 금기를 파괴한 것에 대한 불길한 징벌의 의미와 함께 비극적 운명에 대한 豫示이다.

「비」역시 하나의 징조가 될수있다. 계연이 옥화네 주막에 있는 동안에 두번의 비가 내린다. 한번은 계연의 아버지인 채장수가 옥화에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한 바로 다음날에 내린 비다. 채장수는 서른 여섯 해 전에 이주막에 와서 옥화의 어머니와 인연을 맺은 남사당패였다. 옥화는 「서른 여섯 해전」이라는 말에 「자못 놀라운 시늉」을 보이기는 [illegible] 품전체의 구조를 통해 볼때 이비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암시해 준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비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볼때 여름의 비는 대개 긍정적인 것이 못 된다. 많이 오면 장마비로 홍수가 지고 적게오면 소나기가 되어 만물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옥화 자신、아니 작중인물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비는 그들 모두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해 주는 보조적 장치가 되는 것이다.

다른 한 번의 비는 소나기다. 옥화가 악양 명도에게 다녀오던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를 보고 의심스러워 하다가 역시 자신의 동생임을 알게 된 날이었다. 그동안 「어디로 훨훨 가 보고나 싶던 것이 소망」인 아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즉 아들의 역마살이라는 운명에 대한 거역의 한 방법으로써 아들과 계연이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일부러 그렇게 조장해온 옥화로서는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유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소나기에 젖은 옥화의 모습은 마치 운명에 패배한 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 외에도 산속에서 계연이 딴 세개의 으름이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해 준다. 이「으름」에 대한 묘사는 아주 세밀하고 상징적 의미를 더하고 있어서 감탄할 만하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핀 으름의 의미와는 다른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비릿하고 떫직스레한」설익은 으름은 성기와의 사랑이 완성될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설익은 으름은 먹을 수가 없다.

즉, 조카라는 근친이、먹어서는 안될「설익은」으름으로 표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비극적 운명을 암시해 주는 또하나의 보조적 장치로써 냇물의 의미를 생각해볼수 있다. 냇물(강)은 공간적으로는 이별과 단절을 상징한다. 이 작품속에서도 냇물이 배경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이별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발생이 암시되고 있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성기는 그녀의 뒤를 좇아 나갔다. 하늘엔 별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으나 나무 그늘은 강가를 칠야같이 뒤덮어 있었다.

성기와 계연이 이별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소다. 여기서의 강은 그 단절과 이별의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파랗게 빛나지만 그들의 앞에놓인 운명의 그늘은 강가를 칠야처럼 뒤덮고 있는 어둡고도 적막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 계연이 이 냇가에서 찾다가 그냥 절로 올라가 버렸는데 이때의 냇물도 마찬가지 의미다. 다음 번에 만났을 때는 둘은 이미 헤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부분은 작품에서 세갈래 길과 나란히 흐르는 강이 두 연인의 이별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암시를 더욱강화해 주고있다. 계연의 앞에놓인 냇물은 그대로 성기와 그녀자신을 갈라놓는 단절과 이별의 상징이된다.

이러한 모든 징조는 결국 성기와 계연의 이별에 대해 보이지 않는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그것은 작품내부의 사실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런 일련의 암시와 상징들을 통하여 독자는 성기와 계연의 이별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필연성을 지닌 것임을 알게된다.

성기와 계연이 이별 또는 떠남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근친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근친상간적 관계의 성립은 「운명」에 대한 거역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즉, 역마살 때문에 뿌리가 없이 떠돌아야 할 운명을 지닌 성기가、계연과 맺어진다면 그것은 옥화의 절실한 願望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는 성기 역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소망했던 일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운명이며 또한 운명에 대한 거역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사랑은 낭만적이고 원시적인 순수의 극치를 이룬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운명、즉 삶에 의해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 숙명적인 비극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결합이 근친상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이별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음은 모두가 이미 예정된 비극적 운명으로써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3、운명의 거역과 수용

소설「역마」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윤회적 운명관이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주인물 性騏는 玉花나 契姸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서부터 작중 인물로서의 성격이 드러난다. 즉、그의 이름이 이미 말(馬)과 연관을 가짐으로써 그는 어딘가를 향해 항상 달리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부여받았음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서른 여섯 해 전에 꼭 하룻밤 놀고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에 반하여」옥화를 배게 되었고、옥화는「구름같이 떠돌아 다니는」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막연히 기다리며 살아 간다.

家系의 핏줄 속을 흘러 내리는 살의 秘意的 운명은 어머니의 운명을 딸이 닮고 아버지의 운명을 아들이 닮아 가는 기묘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핵심이 되는 성기의 역마살은 결국 그의 윗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숙명적인 흐름이다. 남사당→떠돌이 중→성기에게로 이어지는 이 역마살에 대하여 할머니나 옥화는 그 업을 벗어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을 시켜서 살을 때우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이번에는、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 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비극적 운명의 아픔도 토속적 배경속에서 아름답게 승화

그리고는 또 계연이 나타나자 옥화는 계연을 통해 성기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아버지를 따라 떠돌던 계연 역시 성기와의 결합을 원한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운명에 대한 거부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 할머니→옥화→계연으로 이어지는 이들 여성들은 하나같이 역마운이 있는 남자들과 인연을 맺는다. 그래서 할머니와 옥화는 평생을 기다리다 지쳐야했고 계연은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성기가 길을 떠나기 이전까지의 작품 전개는「할머니→옥화→성기」와 「남사당→떠돌이중→계연」의 구조로 되어있다.

할머니와 옥화는 여성인데 성기는 남성이란는 점에서 이 흐름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즉、계연과 성기의 자리바꿈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바른 흐름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성기는 숙명적으로 길을 떠나게 된다. 성기의 운명은 그의 어머니、할머니가 아무리 거역하려 해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기와 계연의 이별은 단지 비극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가 그렇게 거부만 하던 자신의 운명을 받아 들이고 그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는、다시 말해 유랑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성기가 맞이한 현상계에서의 이별은 하나의 진통으로 그를 자리에 눕게까지 한다. 그리고 그 현상적인것의 이면에 깔린 계연이 이모라는 심층적이며 근원적인 사실은 그에게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캐어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온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한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성기가 의외로도 힘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나 한듯이 보이는 입술을 깨문행위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알게 되는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즉、옥화가 그러했듯이 성기 역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역마살에 대한 거역을 계연과의 결합을 통해 피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저버리게 될을 안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 뛰어듦으로써 도리어 운명을 초극할 수있었다. 운명은 거부하면 할수록 더욱 철저히 자신을 따라 다닌다.

계연과의 이별、그리고 그것으로인한 사경에까지 이르는 진통은 근친상간에 대한 징벌의 의미와 함께새로운 출발에 대한 통과제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성기가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살게 되는 것을 더이상 부정적인 의미로、즉 운명에끌리어 그것에 굴복하여 패배한 것으로 독해할 수는 없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경칩(驚蟄)도 다 지나、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살구、복숭아、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지고 하는 날이었다.

이는 성기가 계연이 자신의 근친의 근친(이모)임을 안 이후이며 옥화가 더이상 성기를 붙잡아두려는 생각도 않게 된 때이다. 그리고 봄이다. 봄은 부활과 재생을 의미하는 계절이다. 게다가 비가 내린다. 앞에 나타났던 부정적인 여름의 비와는 달 [illegible] 징한다. 그리고 물이 지닌 정화와 속죄의 이미지는 긴 겨울 동안 성기에게 있었던 진통까지도 함께 씻어주는 의미를 더한다. 이들은 성기가 계연과 자신의 운명을 받아 들이고 역마살까지도 온전히 수용하는 행위가 결코 운명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징표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계연과 헤어진 늦여름 이후、비극의 가을과 겨울을 거치는 긴 시간 동안 성기는 숨어있는 진실과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의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어머니에게 하직을 고하고 길을 떠난다. 무척 암시적인 이 표현에서 성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길은 비록 삼거리길이라는 부정적인 길이지만 그가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살아가려고 한는 그 운명의 길은 맑게 개인 날씨처럼 오히려 긍정적이고 희망찬 것임을 느낄 수 있다.

아버지를 찾는 길이며 자신이 여태껏 살아온 길인 화갯골 쪽으로는 「처음부터 등을 지고」、계연을 찾는 길인 구례 쪽에서도 몸을 돌린 성기는「제 3의 길」인 하동 쪽으로 발을 옮긴다. 발을 옮겨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침내 어머니의 주막이 보이지 않게 될 무렵에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린 성기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이것 역시 운명을 철저히 받아들여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인 행복을 찾아낸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성기는 어쩌면 지리산 숲속에서 누렸던 에덴의 낙원을 그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것으로서 찾기 위해 떠나가는 것인지도모른다. 그것은 인간적인 인과율들을 모두 잘라버린 재생의 힘찬 발걸음이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삶과 추억이 담긴 두 길을 등지고 전혀 알지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떠날수 있었던것이다.

III、결 론

[illegible] 소설「역마」에서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지、또 그 운명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역만」에 나타난 인물들의 경우는 그들에게 주어진 윤회적 운명의 기저에 그들의 삶의 공간이 커다란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삼거리길에 있는 장터는 많은 만남과 이별을 낳았고 결국 주인공 성기가 유랑의 길을 떠나게 하였다. 윗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마살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들이는 자세는 인물들 각자가 조금씩 달랐다. 할머니나 어머니의 경우는 거역에서 체념으로 바뀌었다면 성기 자신의 경우는 거역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으로 바뀌었다.

성기가 그렇게 바뀐 데는「당초부터 어디로 훨훨 가보고나 싶던 것이 소망」이던 그의 본능 탓도 있겠지만 계연과의 이별을 통해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는 태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이 비록 역마운이라는 불행한 것일지라도 도피하기 보다는 뛰어들 때 오히려 훌륭히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기가 가고자 하는 길、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철저히 삶으로써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것과 더 나아가 인간의 본능속에 잠재한 이상 세계에대한 끊임없는 추구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제2회 東大文學賞 입상작

小說부문 佳作 1席

윤동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4>

서 있는 사람들

1

문은 굳게 닫혀있다. 그는 눈을 감고있다. 새벽 몇시쯤 잠이 들었는지 종잡을수가 없다. 아마 아침이 거의 다되어서야 잠이든 듯싶다. 그렇다면 밤새 잠을 설친 셈이된다. 꼬리를 물고 달라붙는 꿈을 숱하게도 꾼것같은데 한웅큼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확연하게 잡히는 것은 없고 몸시 흐리마리하다. 똑딱, 똑딱딱. 귀에 익은 소리다. 「어김없이 해는 뜨는군」 어지로운 미로 속을 해매다 겨우 잠길을 떨쳐 버린다. 뒷골이 쑤시고 묵지근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몸을 뒤척이다 눈을 뜬다. 팔베개를 하고 한참이나 천정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하루가 밝았다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 세평짜리 숙직실은 회칠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가 흉하게 일그러져 있다.

모퉁이에는 늘어진 거미줄이 제멋대로 얽혀있다. 마치 음산한 폐가를 연상시킨다. 눈이 쓰리고 아린다. 간밤에 잠을 못이루다 그대로 켜놓고 잠든 알전구가 누르스름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팔베개를 푼다. 출입문의 손잡이는 덧칠이 벗겨져 녹이 슬어있다. 거뭇거뭇해진 그것은 오늘도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저문을 열어야 할때가 왔군』 그는 주문이라도 읊조리듯 중얼거리며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숙직실 내부를 찬찬히 훑어 지나간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출입문 상단에 빛바랜 여배우의 사진이 언제나처럼 붙박혀 있다. 그녀는 이순간에도 그를 위하여 흰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고 있다. 『잘 있어요. 그동안 내게 보내준 부드러운 그 미소를 난 잊지않으리라』. 그는 여배우에게 작별을 고하고 상체를 비스듬히 벽에 기댄다.

일상을 함께 나누던 자신의 분신들이 오늘 따라 낯설게 느껴진다. 똑딱거리는 시계의 규칙적인 울림이 정적에 잠긴 실내를 흔들어 깨운다. 외관이 짙은 밤색인 괘종시계다. 세월에 찌들은 것임을 입증이라도 한듯 퇴색한 나무판이 제법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언제쯤인지 확실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겨울이었던것 만큼은 분명하다. 세삼스레 묻어 두었던 일들이 떠올라 그는 피식 웃는다.

첫눈이 내린 것이 12월 중순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세월은 달력의 마지막 달을 갉아 먹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이 땅에까지 닿는가 싶더니 이내 솜털을 흩뿌렸다. 늦게 선을 보인 답이라도 하려는지 솜방울만한 눈송이가 세상을 뒤덮을 기세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오전 일찌감치 영화광고 안내지를 석간신문에 옮겨 놓은뒤, 야채시장 언저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탓으로 넓직한 시장바닥은 황량하게 버려져 있었다. 점점 더 시계가 흐려졌다.

건어물가게 좌판에는 연탄화덕을 끌어안고 남자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보아하니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그가 다가가자 아는 체를 하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건어물가게 주인이 건네는 잔을 사양했다. 그들의 불콰해진 볼따구니가 연탄불에 번들거렸다. 그는 남자 둘이 주고받는 수작을 들으며 몸을 녹였다. 얼얼해진 손마디가 풀어지며 온기가 스며 들었다. 손바닥을 비볐다. 잔을 털어 넣고 손등으로 입술을 훔치는 정육점 주인의 불끈거리는 목울대를 보자, 식욕이 들끓었다. 「얼추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군. 일한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니. 여기까지 왔으니 오복집에나 가서 뜨끈한 칼국수나 먹고 갈까」 그는 사내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가 출출해진 배를 쓸며 막 식당 골목으로 접어들 때였다.

등뒤에서 부르는 사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 꿈결같았다. 웅웅거리는 눈바람소리가 거리를 헝클어놓고 있었다. 눈발은 여전했다. 힘차게 줄을 죽죽 그으며 퍼붓고 있었다. 그는 환청인가 싶어 두리번거렸다. 끊어질듯 소리는 점점이 이어졌다. 그는 소리의 주인을 곧 잡아낼수 있었다. 허씨였다. 『저양반이 어쩐 일로 날도 궂은데, 하긴 얼굴 대한 지도 꽤 되는군. 바쁜일도 없었는데 어쩌다 그리되었지』. 허씨는 홀아비였다.

몇년 전부터인지 극장 초대권을 쥐어주며 오가다 알게 되었다.

지금은 친동기간 이상으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전쟁이 터졌을 때 고아가 되어 세상 곳곳을 굴러다니다 이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열 두어살때 고아원을 탈출해서 살아남기 위해 손에 닥치는대로 안해 본 것이 없었다.

떠돌뱅이 생활을 청산하고 공장을 전전하다 처지가 엇비슷한 여자를 꿰차고 살았는데, 살림이 펴질만하자 여자가 몇푼되지 않는 돈을 훔쳐 줄행랑을 쳐버렸다. 그뒤로 허씨는 주위에서 부추겨 두번인가 선이라는 것을 봤다. 그러나 헐쭉해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 어쩌다 술이라도 한잔 걸치는 날이면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않게 꺼이꺼이 목놓아 울먹이며 도망간 여자를 못잊어했다. 『그년이 지금쯤 어느 구석에 처박혀 지지리 고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앵못난다고 내가 언제 지년 구박 한번 준적이 있나. 미친년 이왕 내뺄려면 돈이라도 왕창 싸들고 튈것이지. 모질지도 못한 년인데. 제까짓년이 삼시 세끼 끼니 때우며, 밤이면 이슬이라도 피할 거적때기라도 있는지』

그는 허씨와 처음 술자리를할때 뭐, 이런 남자가 있나 할정도로 어이가 없었다. 허씨는 고물상을 차린 뒤로는 고물과 폐품더미에 갇혀 지냈다. 알수 없는 것은, 이상하게도 허씨가 홀아비라는 점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내심으로 참한 여자가 나타나면 허씨에게 새장가를 권해볼 작정이였다.

허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입가에서 양손을 떼고, 팔을 흔들며 어서와 보라는 시늉해 해보였다. 희뿌연 눈발 저너머에 허씨의 털외투가 어른 어른거렸다. 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끊어져 있었다. 퍼붓는 눈으로 노점상들은 아예 물건펼 엄두를 못냈고, 그나마 문을 연 점포는 가게문을 반쯤은 닫아걸고 있었다. 노점상에 쌓아둔 물건들의 형체가 두리뭉실하게 그 원형을 잃어갔다. 상점의 간판이 지워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무슨 급한일이라도 생겼는가해서 절룩거리는 걸음을 재게 놀렸다. 고개를 들었다. 하늘 저끝에서 눈송이를 따라잡으면, 그 줄기는 금새 원을 그리며 어지럽게 뒤섞여 맹렬한 기세로 달겨들었다. 수없이 많은새털이 날무하고 있었다.

『그동안 잘지냈어?요즘은 통나다니질 않는것 같애』

허씨가 장갑을 벗고 악수를 청했다.

『별일 없었어요. 얼마전에 감기가 좀들어서 며칠 쉬었을 뿐예요. 장사는 어때요?』

그는 인사말을 던지고 허씨뒤를 따랐다.

『그저, 그렇지뭐, 이 놈의 밥벌이야 겨울 한철은 구들장지고잠이나 퍼자는 거지. 용빼는 재주있어』

허씨는 공허하게 웃어 넘겼다. 고물상의 야적장은 하얗게 두터운 솜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빈병과 쇠붙이는 눈에 덮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고, 거꾸로 세운 손수레만이 묵묵히 눈을 맞고 있었다. 웅웅거리던 뒤울음이 잠잠해지더니 눈발이 성기게 하늘 하늘 내려오고 있었다.

『첫 눈 치고는 굉장하지』

『풍년들어서 좋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큰일이예요』

그의 어깨에 눈이 더금더금 엉혔다. 발에 밟히는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내리는 눈발을 따라 깨불 거리며 날뛰던 겁둥이가 윤이 번드르한 꼬리를 살랑거렸다.

『야!이 자식, 그래도 날 알아보네, 난 개라면 질색인데, 겁둥이는 맘에 든단 말야!』

그는 자신의 옆구리에 기어오르려고 하는 겁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겁둥이야 변함없지, 그놈땜에 살맛이 난다니깐』

허씨가 털모자를 벗으며 진저리를 쳤다. 허씨가 기거하고 있는 판자집에도 처마밑에 삐주룩한 고드름이 키 순서대로 날을 세우고 있었다. 허씨는 장대비를 들고 지붕에 쌓인 눈을 쓸어내렸다. 허씨가 손을 비비며 그의 등을 밀었다. 실내는 훈훈한 열기로 달구어져 있었다. 홀아비 살림답게 어수선한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이불이 깔려있는 철제침대와 사무용 책상이 전부였다. 허씨가 난로의 뚜껑을 열고 톱밥을 집어 넣었다. 연통이 벌겋게 달아 오르더니 불꽃이 탁탁 튀었다.

『물건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처분하기도 마땅찮고해서 동생이나 줄려고』

허씨는 선반에서 시계를꺼냈다.

『잘 닦아서 쓰면 웬만한 고급시계 빰칠거야』

허씨가 팔뚝으로 시계유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이거, 그냥 저 줘도 되는거예요』

그는 시계를 받아들며 몸둘 숫는 더운 정을 느꼈다.

『내가 대충 수리해놨으니깐, 밥이나 굶지말고 잘쳐, 아직 한참 쓸만할거야, 어찌된건지 요즘 사람들은 옛날거면 사죽을 못쓴다니깐』

허씨는 예의 그 웃음을 푸실거리며 그의등을 두드렸다.

벽에 걸린시계가 2시를 지나고 있다. 시계의 탄종소리에 허씨의 너털 웃음이 묻어나온다. 그는 눈두덩을 지긋이 누른다. 「눈이 왜 이리 피로할까」 신경이 예민해진 탓인가, 눈을 깜빡거려본다. 떴다, 감았다하기를 두번, 세번씩 반복해 본다. 「아무래도 안되겠군」 눈을 감는다. 차츰차츰 넓게 붉어온다. 그는 별똥같은 것이 치솟았다가 곤두박질하는 상상의 세계에서 엎치락거리다 상체를 일으킨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기계적인 동작으로 출입구에 버티고 선다. 그는 흘거리는 정신을 수습하고 벽에 손길을 들어 올린다. 엄지에 네모난 것이 잡힌다. 그는 비틀듯이 전기켜개를 아래로 누른다. 음울하게 실내를 쏘아부치던 누리끼한 전구가 빛을 잃는다.

사장은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전경이 필요하다고, 아뭏든 난, 괜시리 전경들이 맘에 안든단 말야…

2

그는 시계의 여음을 뒤로하고 고개를 창으로 돌린다. 한낮이어서인지 귀밑이며 이마에 송글송글한 땀이 맺힌다. 창틀에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다. 두 뼘 남짓한 유리창이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채광이 전혀 되지 않는 붙박이 창이다. 숙직실은 영사실 지나 3층으로 오르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창고로 쓰던 곳을 개조한 것이어서, 빛이 헤집고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다. 그나마 희끄므레한 창문을 영화광고 현수막이 해를 차단하기 일쑤다. 날씨가 맑더라도 칠칠한 실내 분위기를 걷어 내기에는 빛이 미치지 못한다. 「유리를 투명한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꼭 유리를 갈고 싶었는데, 이방에 좀더 많은 빛이 넘실 거리기를 고대했었는데」 그는 유리창을 올려다 본다.

바깥 세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돌아갈 것이다. 「아침이면 월급장이들은 자동인형처럼 정확한 시각에 허둥대며 전철을 탈것이고, 백화점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계절에 맞는 상품을 들여오고, 극장은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새로운 영화를 상영하고, 음, 그리고 영화상영하기전에 늘대하는 뉴스는 판에 박은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고, 볼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째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러온 사람들에게 억지로 뉴스를 상영하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겨울이면 연탄가스 조심, 봄철이면 산불조심, 그리고 일년내내 간첩조심, 조심, 조심, 관객들은 지루하게 조심에 신경을 쓰다가도 예고편이 시작되고 본영화가 흥미진지하게 전개되면 잊어버리기가 십상인데, 그런데 당분가 이 도시에서는 극장하나가 문을 닫는군, 거대한 도시에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극장의 일시적인 폐쇄에 관심을 가질까」

그는 길게 한숨을 토해낸다.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불은 한쪽 귀퉁이에 개켜놓고 의자에 털썩주저 앉는다. 짧은 왼쪽다리가 공연히 신경쓰인다. 그는 떨구었던 턱을 치켜든다. 달력이다. 11월6일 토요일에 붉은 동그라미가 울타리를 치고 있다. 「기어이 오고 말았군」 달력의 날짜와 요일이 급작스럽게 확대되면서 그의 전신을 휘감아돈다.

『낮에 뭘, 어떻게 했길래 극장으로 전화가 다오고 난리야! 그따위로 일 할려면 다 때려치우란 말야! 지금이 어느때인지 알아? 사장님이 말야. 답답해서 나원. 때려치워!』

웅웅 거리는 총무의 외침이 그의 귀를 할퀴고 지나간다. 곤혹스러운 통증이 훅하고 뒷덜미를 뜨겁게 만든다.

그는 다음주에 상영될 영화포스터를 붙이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숙직실에 붓과 풀통을 처박아놓은 뒤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다. 시월의 끝맘음을 하는 때인데도 낮에는 등짝에 땀이 맺힐 지경이었다. 그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줄기가 보기에도 시원했다. 힘차게 콸콸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지저분한 벌레라도 떨어내듯 푸아푸아 소리를 내며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 목덜미에 물을 끼얹었다. 세면기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오십줄에 접어든 사내가 화장실문을 쾅하고 열어 제꼈다. 그의 눈에 사내의 불룩한 배가 가득히 들어왔다. 사내는 갈퀴눈으로 그를 힐끔거리더니 끄욱하고 트림을 했다. 소변기앞에서 바지를 추스르더니 콧노래마저 흥얼거렸다. 그가 세면기에서 절룩거리며 비켜서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실룩거렸다. 사내는 겨울에 이리저리 얼굴을 굴리더니 손을 씻고 나갔다.

그는 물묻은 머리카락을 세차게 흔들었다. 정신이 맑아졌다. 거울에 담긴 그의 얼굴이 발갛게 익어 있었다. 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시월이야 여름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한낮에 반짝하는 해만 피하고 나면 하루가 금새 기울어갔다. 칠, 팔월에 포스터를 끼고 쏘다니다보면 어지럼증이 끓일날이 없었다. 날 뜨거운거야 어쩔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를 가장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가끔가다 부닥치는 개였다. 을 여름 칠월의 마지막 주였다. 여름특선으로 상영할 괴기영화의 포스터를 들고 실내를 누비고 있었다. 열흘이 넘도록 빗방울마저 열씬거리지않아 하늘에는 엷은 구름만 오락가락할 뿐이었다. 후끈달아오른 아스팔트는 퍼붓는 열기에 몰통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녹진녹진하게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더위에 허덕이다 산으로, 바다로 내몰리고 있었다. 찌는 여름의 도시는 생기를 잃고 잔뜩 늘어져 있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장을 벗어나자, 이윽고 주택가가 나타났다. 동네전체가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그가 포스터를 부착시킬만한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주택의 [illegible]

[illegible] 리에는 이빨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수도 꼭지를 잠궜다. 언제라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작업을 나갈때에는 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렇다고해서 신통한 수가 있는것은 아니었다. 단지, 개만 눈에 뜨였다하면 슬금슬금 피하는 것 외에는 달리 자구책을 강구할수가 없었다. 그는 버릇처럼 넓적다리에 손을 가져갔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머리에 물기를 떨어냈다. 화장실을 나서자 왁자하게 떠드는 사람들의 무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부닥치며 복도를 빠져나왔다. 수건을 목에 걸고 계단을 밟아 내려갔다. 사무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총무의 전화받는 모습이 보였다.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은 총무가 양미간을 일그러뜨리며 눈이 찢어지도록 그를 쏘아보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총무가 금새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총무의 짙은눈썹이 한껏 치켜 올라갔다.

그는 뜨끈해진 목덜미에 손을 가져간다. 「영화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다 별별 수모를 다 겪어 보왔지만, 끝이 이런식으로 될 줄이야. 결국 그 일이 마지막이 되는 셈이군 그래 어쩌면 총무의 말대로 사장의 얼굴에 먹칠한 것인지도 몰라. 일년365일이면 하루도 달라지는것 없는 나날들인데. 극장 청소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매일매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삶인데. 하긴, 역광장에서 붙박이 인형처럼 늘 그자리에 서 있는 전경들도 있지, 방패를 허리춤에 느슨하게 기대놓고,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을 살피면서. 처음 그들을 대했을 때에는 멀찌기 떨어져서 그들의 괴상한 옷차림을 구경했었는데, 요즘은 도리어 행인들이 신기한 동물 구경하듯 해. 나만해도 그렇지, 사실 아무짓도 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이상했었잖아, 요즘은 도리어 내가 그들을 구경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사장은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질서가 있어야한다고 했지.

그래서 전경이 필요하다고. 아물론 난 괜시리 전경들이 맘에 안든단말야, 그나저나 질서를 강조하는 사장에게 욕먹일 짓을 했으니」 그는 침대 머리맡에 칙칙하게 붙은 포스터를 손으로 쓸어본다. 「포스터·영화포스터」

그는 오전에 객석청소를 하고 여느날과 다름없이 영화포스터와 풀통을 들고 극장을 나섰다. 어제 작업이 미진했던 시장을 돌고 역사뒤켠에 자리한 희망촌으로 발길을 정했다. 역사를 비롯한 중앙로터리에는 시민의날 경축 아치 설치작업이 한창이었 [illegible]

> "극장은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새로운 영화를 상영하고, 음,그리고 영화상영하기전에 늘 대하는 뉴스는 판에박은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고…"

「東國」 대학극장 제1회 작품발표회

■작·연출/안민수
■출 연/주종휘 조동호 이효정 서정희 김창용 최민식 박현숙 임혜택 김승철 유재오 손정우 이복실 서영진 양성주 김현주
■일 시/87년9월29~10월5일(오후3시·7시)
■장 소/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스튜디오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제25회 本社學術賞 원고모집

本校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 매해 알찬 수확을 거둬온 本社 學術賞이 올해로 25회의 연륜을 쌓게 되었읍니다. 傳統과 權威에 빛나는 本社 學術賞에 동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募集分野
▲人文科學賞 ▲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應募要領
▲원고매수=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枚내외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本校 재학생에 限함
▲심사위원=本社에서 위촉하며 당선작발표와 함께 공고
▲시 상=상장및 상금(분야별 당선작20만원, 가작15만원)
▲작품제출기간=10월31일까지 本社에서 접수
▲당선작발표=11월10일 本紙 紙上(예정)

1987년9월 일
東大新聞社

제2회 東大文學賞 입상작

↙수위실에서 똑같이 녹색모자를 쓴 사내가 얼굴을 내밀고 무어라 떠들고 있었다. 사내는 동료를 의식한듯 한치의 틈도 주지않고 다그쳤다. 교문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여학생들이 힐끔 거리며 저희들끼리 쑥덕거렸다.

『너, 이따위 사진 붙이는 인간을 만나기만하면 다리 몽뎅이를 분질러버리려고 벼르고 있었어, 아주 잘걸렸다구! 따끔한 맛을 봐야지 정신차리지!』

사내의 악다구니는 끝날 줄을 몰랐다. 그는 왼쪽다리가 빳빳하게 굳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사장님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총무의 입에서 침이 튀어나온다. 그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머리를 뒤로 젖힌다. 「그때 내입이 얼어붙었던 건 아닐까, 악을 써대는 수위앞에서 어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머리속이 텅빈것같다. 어깨를 주무른다. 온몸이 나른나른하게 조여든다. 5년이나 뒹굴던 숙직실에서 막상 떠나야한다고 생각하니 실감이 가지않는다. 「5년이 지났다니. 내일 모레면 삼십이군」 바람이 바람에 덜컹거린다. 「바로 오늘이다. 그래, 이제 떠나야할 시간이 다가오는군」 그는 가방을 집어든다. 총무의 목소리가 은근하게 귓가를 파고 든다.

『내가 이렇게 자넬 보자고 한 것은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야, 나도는 소문도 있고. 내, 다 얘기하지. 다음 주부터 우리 극장이 전면적인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어. 부분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탄생할거야. 사장님이 결심을 단단히 하셨어.

이미 설계도도 나왔고, 시공업체선정도 끝났고. 당분간, 아 아니지, 그렇게 되면 자네도 아다시피 여기서 할 일이 없어져,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도 시에서 지정한 공연안내판이 따로 설치될 예정인가 봐. 물론 다른 광고는 안되고, 공연관계만 따로 사용하는 거야』

총무는 담배 한 개비를 빼물더니 불을 붙였다. 상체를 비스듬히 제낀뒤 허공을 응시하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바닥에 재를 떨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긴 말 안해도 알겠지. 고대하던 직할시승격도 이루어진 마당에 거기에 발맞춰 도시환경도 산뜻하게 꾸미자는 얘기지. 그건 그렇고 이젠 사장님이 서서히 일어설 때가 되었단 말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그해가 언제야. 여하튼 그 봄에 세상이 발칵 뒤집혀 지면서 사장님이 뜻하시는데로 착착 돌아간단 말야, 자넨, 언뜻봐서 이해 안가는 일도 있을거야, 톡까놓고 얘기하자면, 사장님이 확실한 줄을 잡으셨다는 얘기지. 사실말이지 한평생 살면서 우뚝일어서기가 말처럼 어디 쉬운 일이야』

총무는 달콤한 얘기에 취해 떠벌였다.

『어렵게 생각할거 없다구. 거 왜, 자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듣고 보고 했을거야. 봄만됐다면 연례행사처럼 뒤숭숭하니 시끌시끌 하잖아. 그해봄에 그저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때처럼 풀어주지말고 꽉꽉 쥐어짜야 하는데 조금 풀어주니 그 지랄들을 아냐, 자네도 봤을테지, 영화시작하기 전에 돌리는 뉴스있잖아, 허구헌날 자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돌팔매질은 왜들 그리 극성스럽게 해대는지, 저번 달이였지 아마, 역광장에서 설치는 바람에 최루탄에 눈물 쏟은것 생각하면, 그돈이 다 어디서 나온는 거야, 국민의 피같은 세금아냐, 그 비싼걸 그 짓거리로 낭비해야 한다니, 그저 정해준대로 선을 딱그어놓고 제자리에 갖다앉혀 놓으니아무 탈없이 잘 돌아갔잖아, 꼭집어서 빼버릴 것은 털어내고. 허허!

이거 실없는 소릴 너무 지껄였군, 아뭏든, 다잘되자고 하는 일이니 지저분한 것들은 허물고 새로 번듯하게 지어야지, 그리고 저번일은 섭섭하게 생각 말라구, 요즘 사장님 때문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구, 알아듣겠지. 음, 그리고 나중에 꼭 놀러와 멋들어지게 꾸며놓을테니깐』. 그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지긋이 누른다. 총무의 말이 무얼 말하는지 헷갈린다. 알것도 같고, 모를것도 같고, 총무는 은근하게 속삭이듯 얘기했지만 쫓겨 나간다는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다.

3

그는 가방을 어깨에 맨다. 가방안에는 옷가지 뿐이다. 다른 물건은 팽개치더라도 저것만은 가져가야지.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내려서 끈으로 묶는다. 노끈으로 들고 가기 편하게 묶는다. 시계를 옆구리에 끼고 출입문을 연다. 뒤돌아 보지말고 나가자,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 길이며, 숙직실문이 닫힌다. 그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계단을 향한다. 영사실은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영사실이라고 쓴 아크릴간판이 반은 달아나 있다.

휴게실은 텅빈 진열장만이 휑뎅그레하게 차지하고 있다. 「일주일전만해도 관객들로 붐볐고, 벽에는 세계의 유명한 배우들이 환하게웃고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는 의자가 뒤집힌채 쌓여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도 보이는 사람이 없다. 「모두들 어디로 간 것일까. 어째 사람을 볼 수가 없지. 맞아, 오늘쯤 직원회식이 있다고 했지」 화장실앞 의자 더미에서 화환이 유별나게 눈길을 끈다. 꽃더미가 풀어헤쳐져 있다.

극장의 처지만큼이나 형편없이 구겨져 있다. 황해도 도민 향우회라고 씌어진 글씨가 꽃더미에 달려 있다. 하단에 인쇄된 글씨가 유독 크게 다가온다. 「황해고향우회 회장이신 김복태선생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향우회 회원 여러분의 열화같은 지지를……」

사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사이도 없이 좌중을 휘젓고 다녔다. 총무도 말쑥한 새 양복에 가슴에는 꽃을 달고 사장의 꽁무니를 따라 다니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머리에는 전에없이 기름까지 자르르하게 바르고 있었다. 극장안의 무대에서는 간드러지는 여자의 비음섞인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장은 살점이 축쳐진 볼을 연신 실룩거리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데 정신이 없었다. 극장간판을 내리고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향우회의 잔치가 한창이었다. 사장은 여태껏 해왔던 향우회모임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켰다. 도시안에 산재해있는 향우회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그 단합대회를 거창하게 열고 있는 것이었다. 선물꾸러미를 받아든 중년의 사내들이 어울리며 술잔을돌리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사장에대한 칭송이 끊일 줄을 몰랐다.

사장은 휴게실을 분주히 오가다 객석에서 나온 사내들에게 팔목을 붙들렸다. 사내들은 사장에게 무대에 올라가 노래 한 곡 뽑기를 간청했다. 사장은 못이기는 척하며 그들에게 이끌려 가고 있었다. 무대에 오른 사장은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의 환대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고향 어르신들께 이 자리에서나마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조국이 있기 때[illegible]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illegible] 사람도 아닌 여기 모인 [illegible]이야 말로 자유와 조국의 [illegible]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illegible]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illegible] 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부 몰지각한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모르면 알려줘야할 의무가 저희들에게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여러분의 종으로서 힘껏 일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차린 것은 없지만 아무쪼록 많이 드시고, 흥겨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김복태, 다 여러분이 키워준 덕분에 오늘날 이자리에라도 설 수 있지않았나…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못하는 노래지만 이왕 자리에 섰으니』

사장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헛기침을 두어번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미이이아리이이 눈부우울 고오개. 님이넘던……』

그는 구겨진 꽃더미에서 우렁차게 외치던 사장의 목소리를 찾는다. 예전에 들어본 사장의 연설은 어느 구석에서도 끄집어 내기 힘들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 사장이 극장을 인수하고 상견례를 가질 때 그 어리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처음 얼굴을 대하던 날 사장의 행동은 두고두고 뒷얘말을 낳았다.

사장은 직원들을 휴게실에 늘어서도록 만든뒤 헛기침을 연발했다. 갑자기 모인 직원들은 신임 사장의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장의 입에 눈길을 모았다. 사장은 기침이 멎자 엄숙한 얼굴로 돌변했다. 사장은 금테안경을 만지작거렸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본인이 문화사업이랍시고 큰 맘먹고 극장을 사들였읍니다. 사실, 전 군 생활을 좀 겪었기 때문에 딱딱한 인상을 풍[illegible] 가도록 극장에 가[illegible] 돈도 돈이지만 이제 문화사업도 해가면서 군에서 배운 것과 회사경영에서 얻은 것들을 합쳐 나보다는 이 사회를 위해서 힘을 쏟까해서 어려운 길을 내딛었읍니다. 사장이 바뀐 것을 염두해 두시고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 주기 바랍니다』

사장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생각난듯 느리게 머리까지 숙였다. 극장직원이래야 총무까지 합쳐서 겨우 열명이었다. 세줄로 서서 사장의 취임사에 귀를 기울이면 직원들은 돌연한 사태에 어찌할바를 몰랐다. 「영사실에서 껌이나 쩍쩍 씹으며 지내던 그들에게 난데없는 사장의 취임사라니」 직원들은 놀란눈으로 옆의 동료들에게 난처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자 맨앞에 서있던 총무가 재빨리 사장을 향해 직각으로 허리를 꺾었다. 총무의 뒤를 따라 다른 직원들도 얼떨결에 덩달아 허리를 굽혔다. 사장은 그제서야 눈치를 채고 머리를 들었다. 사장의 연설이 끝날 무렵 떡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다. 사장은 수고스럽지만 직원들 전체가 나서서 시장의 가게마다 나누어주기를 바란다는 명령으로 취임식을 끝마쳤다. 직원들은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듯 사장의 연설에 똑같이 박수를 쳤다. 사장은 매우 만족한 얼굴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총무에게 자신이 연설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총무는 가슴에 두손을 끌어모으고 훌륭했읍니다라는 대사를 잊지않고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휘둘러보고 극장의 문턱을 나선다. 「그래도 긴 날이었는데. 이젠 끝이 난 셈이군」 그가 극장의 입간판을 지나치는데 흰색 자가용이 다가와 멈춘다. 차는 그를 가로막고 섰다. 총무가 내리고 사장이 뒤에서 손수건으로 콧물을 닦으며 내린다.

『이제가는 모양이군. 회식이 있는데 참석하고 가지, 마침 사장님도 오셨는데』

총무가 극장 맞은편에 있는 함흥냉면 간판을 가리킨다.

『우리 직원이예요? 같이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지』

사장이 그의 차림을 보고 묻는다.

『괜찮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 어디 일자리라도 구했오?』

『네, 이 도시에 있을것 같읍니다』

『그래요? 어려운일 있으면 언제라도 총무한테 찾아와요. 내힘 닿는데까지 봐 줄테니깐』

사장은 재채기를 하려는지 코에 경련이 인다.

『박총무, 어서 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얼굴만 들어밀고 나와야겠어요. 감기가 걸렸나, 몸도 찌뿌둥한 것이 영 시원치가 못해. 요즘 같아서는 발이 열개라도 모자랄판이니』

사장이 고생한 이력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기업체의 부하직원들에게 전설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다. 물론 시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설은 입과 혀로 떠돌아 다니며 살점을 덧붙였다. 사장은 저 만치 몇걸음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자신에게 날아드는 입바른 찬사를 들기며 자신의 그림자를 키워 나갔다. 전쟁이 터지자 죽을 고비를 무릅쓰고 단신 월남하여 이를 악물었다. 돈이 굴러 오는 일이다 싶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사장은 극장말고도 시외곽공단지역내에 중소규모의 공장을 다섯이나 소유하고 있었다. 사장의 급속한 성장은 세상이 바뀐 그해의 봄이후였다.

그는 도시에서 떠도는 사장에 관한 얘기거리를 떠올린다. 아무래도 사장의 취미는 잘훈련된 군인을 연상시킨다. 무표정하게 목표물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추석이 다가오자 사장집에서 나흘간이나 시끌벅적한 잔치가 열렸다. 잔치를 벌이는 명목은 새로 인수한 공장이 잘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나흘씩이나 회사직원들을 불러모아 소란을 피울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면서도 사장의 꿍꿍이 속을 점쳐보며 제각기 야릇한 상상에 사로 잡혔다. 그역시 직장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나흘째 되는날 사장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말로만 듣기로는 대지가 이백평이 넘는다는 집이었다. 대문이 열리자 반틀반틀하게 다듬어 놓은 잔디가 사람을 압도했다. 넓직한 정원에는 보기에도 값이 엄청난 정원수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집이 있었다니」 그도 총무의 입을 통해 익히 들었던 바위가 정원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다. 강원도 어느산의 깊은 계곡에서 캐온 것이라 했는데 가격이 천만원을 집어줘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정원에 눈을 팔다 걸음을 옮기려 했을 때 아! 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빈틈없이 잘 가꾸어진 정원 원켠에 연못이 있고 그 너머에 거대한 규모의 개집이 위압적인 버팀으로 서있었다. 이층으로 나뉘어진 개집은 강력한 철망으로 단단히 봉쇄되어 있었다. 그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며 적의를 품고 있는 갖가지 사나운 개들로 가득차 있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송아지만한 개들, 사람들은 애초에 가졌던 호기심을 팽개치고 가까이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발이라도 내딛으면 이내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는 뱉았던 탄성을 주워 담았다. 탄성은 두려움으로 그를 엄습했다.

사람들은 개집의 위용에 주눅이 들어 할일없이 뒷덜미만 쓸고 있었다. 『크르르』 당장이라도 철망을 부수고 뛰쳐 나올 듯 한 위협적인 울부짖음이었다. 다분히 살의가 가득 담긴…

총무가 사람들의 발길을 재촉했을 때에야 비로소 악몽에서 깨어난 듯이 굳었던 입을 열고 정원의 아름다움과 개집의 어마함을 작게 얘기 할 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두어 발짝 떨어져 쭈빗거리며 뒷걸음을 쳤다. 그는 돌아서면서 똑똑히 보았다. 사장이 이층에서 턱을 괴고 지긋한 눈길로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부여잡고 약국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향해 걷는다. 주머니에 십원짜리 동전 두닢이 잡힌다. 사장을 그려보면 두터운 껍질의 양파가 아닐런지…그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래, 목욕을 해야겠군』

그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돌린다. 『구르륵. 뚜뚜』

『여보세요. 거기 형님, 접니다. 막 극장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뭐? 목욕을 하자고? 난데없이 무슨 목욕이냐?…아무말 말고 나오라고, 참 별일이다. 그래, 알겠다. 그럼말이지. 음, 시장입구에 온천탕 알지? 그곳으로 와』

그는 횡단보도를 건넌다. 극장은 백화점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일상의 반복에서 풀려난것일까. 그렇게는 영원이 될 수 없겠지」

> "그해 봄처럼 풀어 주지말고 꽉꽉 쥐어짜야 하는데. 허구헌날 자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돌팔매질은 왜들 그리 해대는지… 허허! 이거 실없는 소릴 너무 지껄였군"

> 불꽃놀이가 걷히고 먹빛 하늘이 찾아들자 도시는 제자리를 되찾는다. 버스는 피곤에 찌들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싣고, 우울하게 도심을 헤쳐나간다. 또 다음번 버스가 도착하면 약속이나 한듯 한무더기의 사람들이 우루 달려가고……

4

수증기로 목욕탕이 희읍스름하다. 물끼얹는 소리가 좍좍 들린다. 토요일 오후여서 인지 사람들이 다섯밖에 보이지 않는다. 뿌옇게 흐려 앞을 가늠하기가 힘든데도 텅빈 것같이 한산하게 느껴진다. 볼따구니가 투실한 청년이 한증탕에서 살을 익히고 나온다. 청년은 팔을 휘두르며 찬물로 뛰어든다. 청년의 입에서 어이구 션해라! 하는 건장한 음성이 탕안을 맴돈다.

『어쩌자고 시계는 다 가져오고 그래』

허씨가 텁수염을 쓰다듬으며 그에게 말을 던진다.

『안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제물건이 있어야죠』

그는 비누를 온몸에 칠한다.

『어서 탕안으로 들어와, 삭신이 살살 녹아드는 것 같애』

허씨는 얼굴만 드러내 놓고 몸을 탕에 담근다.

『사장이 아주 난리던데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것처럼 보이니』

『누구나 그렇지, 그정도 재력에 든든한 배경있겠다. 출마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긴, 김사장은 워낙 요 몇년사이에 부상한 인물이라, 떠도는 소문도 요란하던데. 그나저나 내쫓긴 신세가 어때?』

『섭섭하긴해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죠』

『나도 들리는 말이 이상해, 선거가 끝나면 안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둥』

『안좋은 일이라뇨?』

그가 탕안에 들어가며 묻는다.

『고물상터를 옮기란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모양이야. 미관상 보기가 안좋다는 얘기지. 서울에서는 실지로 사람이 들어살고 있는 집을 때려부셨다니』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극장의 객석에 묻힌 듯한 착각이 든다. 컴컴한 객석의 안락함이 그리움으로 젖어든다. 영화가 상영되고 어두운 객석에 틀어박히면 편안하다. 바로 옆좌석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깜깜한 객석의 어둠은 누구나 다 덮어준다.

『편안하고 좋지』

허씨는 여전히 수염에 물을 끼얹고 있다.

『그 수염 안깎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보다 서너살은 더들어 보인다구요』

그는 허씨의 텁수염이 불만이다. 「저 수염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장가를 갈수 있을텐데」

『이렇게 멋진 수염을 왜 깎아, 미안한 얘기지만 그년을 다시 만날때까지는 깎을 수가 없어』

허씨는 자랑스럽게 수염을 쓰다듬는다.

『일루 나와봐, 내가 등을 밀어줄테니』

허씨가 때미는 수건을 손아귀에 움켜쥔다. 그는 탕에서 나와 허씨의 무릎앞에 등을 대고 앉는다. 허씨의 두툼한 손이 그의 등을 문지른다. 허씨가 때를 벗기고 등에 물을 붓는다. 이번에는 그가 허씨의 등을 민다. 허씨의 등판은 가마솥 뚜껑처럼 넓다. 그는 힘을 써서 때를 문지른다. 물컹잡히는 허씨의 살이 정겹다.

그들은 목욕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다. 어둠이 가라앉고 있다. 낮과의 기온차가 심하다.

『순대집이나 가서 소주나 한잔할까』

허씨가 시계를 들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긴다.

『좋죠! 오랜만에 형님하고 술이나 진탕 마셔보지요』

살갗에 와 닿는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순간, 평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 저 편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밤하늘을 쳐다본다. 불꽃이다. 도시에서 별을 헤아려본 기억은 까마득했지만,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인공적인 별을 만들어 낼수 있다. 시민의날 경축 불꽃놀이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한길로 나와 하늘에 고개를 박고 손뼉을 치며 발광한다. 불꽃이 파파파하고 섬광을 터뜨리며 작열할 때마다 와!하는 거대한 탄성의 함성이 동시에 터진다. 저녁식사를 마친 사람, 귀가를 서두르는 피곤해 지친 직장인, 까불거리며 날뛰던 아이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밤하늘을 흔드는 불꽃에 똑같이 빠져 들고 있다.

『섭찟하지 않아요?』

그는 허씨의 팔소매를 붙들고 묻는다.

허씨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시계 아직도 가고 있는데』

허씨는 시계 유리판에 귀를 대고 있다.

불꽃놀이가 걷히고 먹빛 하늘이 찾아들자 도시는 제 자리를 되찾는다. 버스는 피곤에 찌들은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싣고, 우울하게 도심을 헤쳐 나간다. 또 다음번 버스가 도착하면 약속이나 한듯 한무더기의 사람들이 우루 달려가고…

그는 허씨의 귀를 지나 흐르는 시계소리를 들으며 순대국이 코를 찌르는 골목을 걷는다.

한국최초의「英譯 한국佛教詩選」

The Ferryboat and the Wayfarer

宋 堯 仁([illegible]) 교수編譯

■제1부 : 나룻배와 행인(한용운)등 불교시 69편

■제2부 : 난 초(이병기)등 불교시조 40편

국판 152면, 값 4,500원

동국대학교 출판부

전화 : 267—8131～9 (교)3341～2

北漢山 벼랑 — 章 湖 교수 두번째 山詩集 — 4·6판 108면, 값 2천원 — 평화출판사 刊

비평정신과 삶의 인식 — 金 善 鶴 교수 評論集 — 국판 346면, 값4천5백원 — 文學世界社 刊

시와 언어 — 李 炯 基 교수 評論集 — 국판 390면, 값4천5백원 — 文學과 知性社 刊

東大新聞 缺號를 찾습니다

本社에서는 지령1천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東大新聞축쇄본」을 제작코자 다음과 같이 東大新聞 缺號를 찾습니다.

2.4.5.6.7.8.9.10.11.13.14.16.359.363.368.373.374.375.376.377.378.395.396.409.519.520.684.694.695.

◈연 락 처 : 본사 총무부〈전화267—8577(직), 267—8131～9交2194〉

◈접수기간 : 수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東大新聞社

문제時代 문제作家

그의 시들은 왜소함을 느끼는 난장이 의식에 절망하고있다

정권과 결탁한자본주의 폭력에 짓밟힌 빈민들

◇글싣는차례

1. 머리말
2. 이하석論
3. 이성복論
4. 최승자論
5. 황지우論
6. 김정환論
7. 김용택論
8. 연재를 마치며(좌담)

김 정 환
◇1954年 서울生
◇서울대 영문과 졸업
◇1980年「창작과비평」으로 등단

항상 저술행위나 문학비평은 일종의 정치행위 또는 사회적 행위일수 밖에 없다고 마커스 클라인은 말했다. 문학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역사적 요인들의 영원한 충돌과 화해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문학이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연관성을 상실하게 될때 문학의 당위성 자체가 의심받게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 한국적 상황에서의 비평방법은 이러한 시각에서 떠날 수 없다.

문학과 비평이 생성되는 토양이자 배경인 역사·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텍스트의 이해나 비평도 가능하다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견해를 한국 평단은 더 곱씹어야 할 것이다. 해서 김정환에 대한 이 단평의 시각도 앞의 황지우의 것과 같아질 수 밖에 없다.

그의 시<와우아파트>는 허약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소외당하는 도시 변두리 빈민의 절망과 좌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년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은 한국 산업화 과정 속의 구조적 허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국으로부터의 정치 사회적 주종관계, 6·25이후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종속, 그리고 무역의 비중이 크고 다국적기업이 늘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수입대체적 공업화정책의 이데올르기였던 ECLA경제발전이론에 대한

전투적 절망과 서정성

반성과정에서 출연한 종속이론에 의하면 수입대체적 공업화정책이란 60년대 민족해방후 정권을 장악한 민족부르조아들이 정치적 독립을 위해 추진했던 경제자립정책이다. 그러나 식민지시대의 종속상황으로부터 구제되거나 정책결정이 국내로 돌려지거나 정치적 민주화와 과학 기술 문화적 독자성이 극복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외국 무역에 지나친 의존, 외국 자본에 의한 지배, 문화적 제국주의의 가속적 침투로 말미암아 민중의 궁핍화와 대외 종속만심화되었을 뿐이다. 그 이유중 하나는 민족브로조아들이 외자도입, 원조도입은 하면서도 공업화에 필요한 국내 사회개혁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전혀 배제될 수 없다.

㉠와우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전/우리는 그 산으로 곤충채집을 다녔었다/방아깨비노는 풀밭 사이를 뒤지며/아카시아 꽃잎을 따서 훑어 먹고/몽롱해진 정신으로 다시 풀밭에 누워/수풀에 꽉찬 매미소리가 푸른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도 한강 나루터까지 고깃배가 척척 들락거리구/새우젖 팔아먹고 살던때가 좋았어」/「그땐 마포가 얼마나 번화가였었다구」/그 철둑길 밑에 있는 경보극장이 우리나라에서 몇번째로 생긴 극장인데 그래,

㉢양놈들이 나라를 집어 삼키더니/그 바람에 미쳐 무슨 신식/도깨비같은 집속에서 살겠다고 나라가 망쪼가 들은 게야,

㉣와우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망치소리가 귀를 때리고 산 주변에/목책이 쳐지고 입산금지 팻말이 세워졌지만/와우아파트가 무너져내린 다음에도 우리는/와우산으로 곤충채집을 가지 않았다.

위 시의 단편들에서 보듯 정치권력과 결탁한 독점자본은 마구잡이로 영리를 위해 아름다웠던 우리나라의 모든 풍경과 삶의 환경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고향의 익숙하던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인간적 상호관계는 단절되며아이들은 탈선해 간다.

새우젖 냄새는 오래 전에 사라져 버렸고/그 경보극장에서는 객석까지 오줌지린냄새가 났다/<킥 킥>왜 이래, 이 애가, 간지러, /에이샹! 학교고 뭐고 때려쳐야지. /부모없는 가시내들의 킬킬대는 소리가/극장 어둠속에서 들렸다.

<거대한 것이 약한것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빈민들은 <살아 있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오히려<살아있다는 것이 더 비참>함을 느낀다. 그들의<희망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다>니며<천막 속에서 깡통밥으로 연명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둥 버둥 버팅기며 눈물뿌리채 삼키며/배가 고프고 하늘이 노랗고 허기가 지는 것은 이제/이미 오래된 습관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산업화라는 거대한 자본의 폭력 아래서 습관적으로 희생되었을지라도<약한 자들의 설움>과<약한 자들의 분노>는 가만히 있을수만 없다.

당해야만 하나 어이구 당해야만 하나/이러구 견디구 살아남아서/누구 좋은 일 해줄끄/살아야 하나 당해야 하나 이러구 견뎌야만 하나

그럴 수만은 없다. 절망의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일어난다.

누군가 두려움을 노여움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눈물이 타는 불꽃으로/변했다. 살가죽 앙상한 근육에 핏줄이 불끈 불끈 치솟았다. 아비규환의/아우성소리 아우성소리가 함성소리로 변했다. 함성 소리가 피를 부르고/피가 다시 피를 불렀다. 몽둥이를 불렀다. 헐벗은 끼리끼리 모여/ (…) /와아 와아/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개처럼 끌려갔다.

항상 빈민들은 정권과 결탁한 자본의 폭력하에서 항상 터지고 째지고 짓밟인다. 그러나<선량하게 꿈벅이>는 그들의 꿈은 죽지않는다. <복수공천을 했어도/야당후보만 둘 당선>시키든가<개처럼끌려>갈 때까지 반란한다.

그의 시<키자라기>는<언제나 어디서나 하늘 끝까지 솟아 있>는<동네 고무공장 굴뚝>아래서 현상적<왜소>함을 느끼는<난장이>의식에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람은

자라도 하늘에 좀더 가까와지는 듯한/교회당 첨탑끝같은 상쾌한 키자람 아니라/머리는 머리쪽 다리는 다리쪽으로 제멋대로 늘어나서/가운데 척추가 늘어나고 뱃속이 텅비어 아픈/<어떤잘못 자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같은>자람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싸워야 키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해서 그는 항상 싸운다. 그의 시들에 나타나는 전투성 절망성 서정성 즉, 전투적절망성과 전투적 서정성 으로 우리는 그의 싸움의 치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선량하게 꿈벅이는 소시민의 꿈은 죽지않는다

공 광 규
<시인·인문대 국문과>

쌀 한톨의 소중함을
—추계농활에 대하여—

학생들의 농촌활동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관례에 의하면 여름, 그리고 겨울 농촌활동으로 크게 대별된다.

후속활동으론 봄에 모내기 가을에 벼베기 활동으로 구분지을수 있다.

투교함

물론 그외 여러가지 방법으로 후속작업이 수행되어질 수 있으나 금번 추계 농촌활동이 써클연합회, 농대 차원에서 진행됨에 있어 올바른 의의 설정 속에서 진행되어야겠기에 전체적인 농활의 올바른 위상, 그리고 기존 활동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속에서 추계 농촌활동의 의의를 설정해 보기로한다.

1. 농활의 의의와 몇가지 문제점

농촌활동이란, 학생들이 농촌현장에 들어가 농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역사 변혁의 주체인 농민의 삶을 이해하며 대중에대한 신뢰감을 심화시키고 학생운동에 있어서 민중지향성을 구체화하고 내용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모순해결을 지향하는 학생과 농민의 집단적, 의식적, 지속적 활동속에서 농민운동의 측면지원 역할 또한 수행되어야 함이 의의로 설정될수있다.

그러나 기존 농활은 위에서 설정된 의의와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오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전체운동에서 농민운동의 위치와 역할을 올바른 관점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운동에서 농민운동의 역량이 부족되며 민족모순 해결에 있어서 농민, 농업의 중요성을 경시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농민운동은, 농촌의 계속적 억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성화 될 것이며 전체운동에 있어서 지역단위에서 대중들과 함께 하는 중심 역량으로 위치를 설정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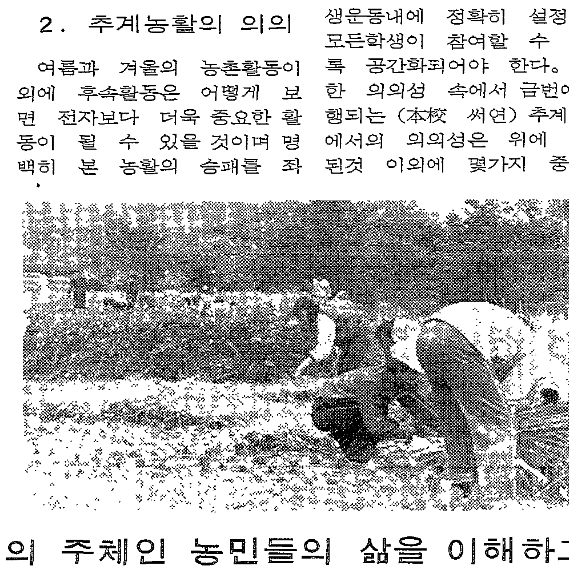
둘째는 농활의 계획 진행에 있어서 농민을 대상화 시킨채 학생측의 일방적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정확히 농촌이 농민의 삶을 터전으로,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이 밀려난 채 학생들의 연례적 대중활동 공간, 혹은 학생들의 이론 검증의 장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활동이 있었으며 이는 지역 농민운동의 주체적 자주적 의식의 결여와 함께 결부된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이였기에 농활은 학생들의 자기 훈련 차원에 머물게되며 지속적 후속활동은 더 말할나위 없이 안되었다.

셋째는 농민운동기구나 농민대중조직과의 적극적 연대가 부족했으며 일회적 일시적 차원이었다. 그간 농민대중조직과 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기껏 지역선정 차원에서 협의정도 였다. 우리가 농활을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학생 만족적인 활동이 아닌 농민운동의 측면지원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고 이러한 지속성의 유지는 학생운동내, 농민운동내 책임성을 계속적으로 담당할 주체를 설정하여 농민운동내 학생운동의 이해 결여, 학생운동의 진보성, 관념성을 옳게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농활은 역사변혁의 주체인 농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농민운동의 측면지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2. 추계농활의 의의

여름과 겨울의 농촌활동이외에 후속활동은 어떻게 보면 전자보다 더욱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명백히 본 농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될것이며 추계농활은 이러한 관계속에서 위치 지어진다. 그러나 춘계, 추계농활은 농촌에서 가장 바쁜철에 즉 농민의 노동이 가장 가중되는 시기에 농민과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함으로써 현실을 더욱 절실히 느낄수 있으며 쌀의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의 고마움을 느낌으로서 관념적이 아닌 구체적 현상과 노동의 실천 속에서 농민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으리라 본다.



◀本校 추계농활 장면

이와같은 성과물은 우리 학생운동내에 정확히 설정되어 모든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의성 속에서 금번에 수행되는 (本校 써연) 추계농활에서의 의의성은 위에 설정된것 이외에 몇가지 중요성을 들 수있다.

첫째는 본교 농활의 책임성을 담보할 주체인 상설적 기구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의 절감이다.

지금까지 단편적, 일회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농활이 정확한 책임성을 갖는 집단적 활동을 할수 있는 계기가되어 개별, 분산적으로 수행되었던 농활이 학교전체 차원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학생차원의 자기만족적 차원이 아닌 농활의 두 주체인 농민과 학생이같이 수행하는 농활로서 지역농민운동조직과의 연계가 맺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운동의 민중지향성 실현과 아울러 농민운동의 측면지원활동으로 의식적활동이이루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추계농활이 학교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방학만을 이용한 계절적 행사가 아닌 일년 내내 계속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 부분에 대한 선전과 아울러 올바른 농민의 실상을 알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춘계, 하계, 추계, 동계 농촌활동이 정확한 목표설정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이 추수를 하며 느끼는 벼 한포기, 쌀한톨에 대한 애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마음을 농활에 일하는 대원은 진지한 마음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금번 총학의 출범이 늦어진 관계로 학교 전체 차원으로 이루워지지 못한 서운한 감은 있으나 써클연합회의 봉사분과와 농대 차원에서 수행될 추계농활은 실천을 통한 검증의 원칙적 활동 목표 속에서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쌀 한톨의 소중함,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노동을 통해 함께 느껴 봅시다.」

김 덕 일<문과대 국문과>

추계대학리그 MVP 곽연수君

本校야구부는 지난 23일 동대문구장에서 벌어진 87전국추계대학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단국대를 꺾고 패권을 차지, 지난6월의 백호기우승을 포함해 올 2관왕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아마최강임을 입증했다.

東岳路

이로서 야구부는 83년춘계리그를 시작으로 84년대통령기, 85년 춘계리그, 86년 대통령기, 87년 백호기, 추계리그 우승등 최근 5년동안 우승만 6번을 차지, 함과 동시에 매년 1번이상 정상에 오르고 각종 아마대회 우승기를 한번이상씩 차지하는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本기자는 이번 추계대회서 4할7리 (27타수 11안타) 의 타율에 홈런2개, 타점8개, 도루3개를 기록, 공격전부문에서 중심타자의 역할과 좌익수로서 탄탄한 수비를 보여 최우수선수로 뽑힌 郭연수 (국사교3·보성고卒) 군을 만나 보았다.

"앞으로 올림픽출전과 프로무대에서 야구인생을 펼쳐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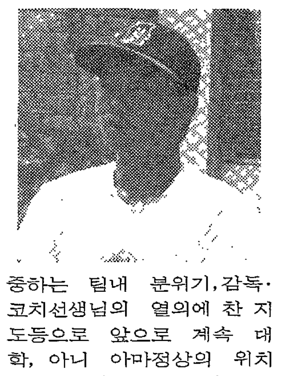
郭군은 특히 난적 고대와의 예선전서 결승점이 된 2타점 적시타를 비롯, 단대와의 결승전서 결승타점이 된 귀중한 2루타와 3대1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주자가 되는등 팀이 필요할때 제몫을 해주었다.

이번 추계리그서 郭군은 홈을 파고들다 오른쪽 무릎뼈가 밀리고 인대가 늘어나는 전치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러한 郭군에게 MVP 수상소감을 묻자, 『감독, 코치선생님을 비롯, 팀내 모든선수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혼자만 큰상을 받게되니 미안합니다』라고 겸손해 한다.

『앞으로 국가대표가 되어 88올림픽에 출전하는 한편, 프로에 진출하여 야구인생을 펼쳐보겠읍니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이는 郭군은『프로선수중 MBC 이광은, 해태 백인호, 박철우선수를 좋아합니다』라고 밝힌다.

동국야구의 미래를 전망해 달라는 질문에「본교 야구부는 현재 선수층이 두텁고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훈련에 열중하는 팀내 분위기, 감독·코치선생님의 열의에 찬 지도등으로 앞으로 계속 대학, 아니 아마정상의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



고교때 후배에게 밀려 야구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으나 당시 감독님 (현 본교 김종우감독) 의 설득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함과 동시에 분발하는 계기가 된적도 있었다면서『본교시합마다 경기장을 찾아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는 본교생및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며 고마움의 말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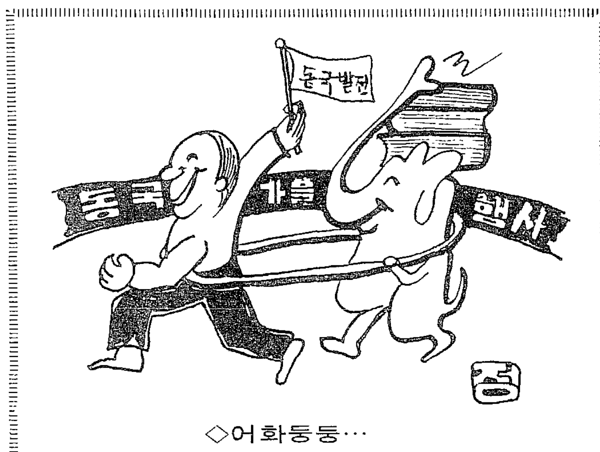
야구부는 올 4개대회에 출전, 19승1무3패를 거둬 8할6푼4리의 탁월한 승률을 올리며「무적함대」「스타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는 현선수들중 송진우(무역4) 이강철 (회계3) 박준태 (경제3) 한경수 (경영4) 군등 4명이 국가대표로 활약 했고 이숫자는 아마팀중 최다대표선수 보유수이기도 하다.

동국야구의 계속적인 용맹정신을 기대해본다.

<임수현記者>

東國漫評



◇어화둥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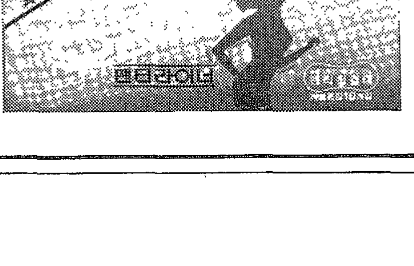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
유한킴벌리

[pǽntilàinərs]

깨끗한 여성을 위한것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에게는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벌써 팬티가 축축해지고
얼룩도 생겨 기분이 무척 불쾌해지죠.
특히 배란기, 임신전후, 피임제 사용시에는 더욱 심하답니다.
이럴 때 팬티 안쪽에 '후리덤 팬티라이너'를 살짝 붙여두세요.
그리고 하루 서너번만 갈아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답니다.
깨끗함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다 아는 것, 다 쓰는 것—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 '후리덤 팬티라이너'랍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 평상시, 질분비물을 흡수하여 항상 보송보송한 상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 배란기, 피임제 사용시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읍니다.
● 여행등 팬티교환이 어려울 경우에 편리합니다.
● 생리직전과 끝날무렵에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읍니다.



코텍스* 후리덤* 팬티라이너

* 표는 미국 킴벌리·크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 REGD. TRADEMARKS KIMBERLY-CLARK CORP., U.S.A.

카메라 뎃상

너와 내가 따로없는 自他不二의 광경。우리가 언제 남남이었던가? 우리 헤메고 뒹굴며 기다리던마지막 굽이를 넘어。도도한 행진은 문틈이건 벽틈이건 어디든 갈터이다。하나되는 곳에 노래가 낫기는 그중나아도 허공까지 갔다간 소멸할진정。어깨에 어깨를 부딪끼며 6천만이 하나되는 그날까지…

<글·사진=김영석記者>

彌勒思想의 韓國的展開 다뤄

佛文硏학술회의 불교사상의 체계적 정리위해

本校 불교문화연구원(원장=李載昌교수) 주최 불교학술세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9시30분 본관교수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사상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해마다 열려온 이 학술회의는 금년엔「彌勒思想의 韓國的 展開」란 주제로 열렸는데 이날 세미나에서 金煐泰(본교 불교학과)교수는「3국시대의 미륵신앙」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본래 佛教는 經說과 교의에 隸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무한한 창의성을 개발하여 현실생활을 보다 참되고 향상되게 하는것을 신앙의 생명으로 삼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睦楨培(본교 불교학과)교수는「미륵신앙의 현대적 의의」라는 주제강연에서『미륵이 현대사회에서 절실한 것은 언제나 인간성회복을 이끌어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인간성회복이 모든 일의 근본임을 가르쳐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이날 주제발표를 한 교수는 吳亨根(본교) 교수、石上善應(大正大) 교수、李永子(본교) 교수、金三龍(원광대) 교수、金仁德(본교) 교수、柳炳德(원광대) 교수、崔玄覺(본교) 교수、黃壽永(본교) 前총장 등이었다。

제14회 東大美展

미술과 졸업작품중심

미술학과주최「제14회 東大美展」이 내달 24~31일까지 아르꼬스모(남영동소재) 전시관 2、3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양화·동양화·고미술·조소등 각 전공별로 총 65점이 전시된다。

한편 이 전시기간내 혜화관 2층 전시장에선 미술학과 1、2、3학년들의 작품전시회가 아울러 개최된다。

교외장학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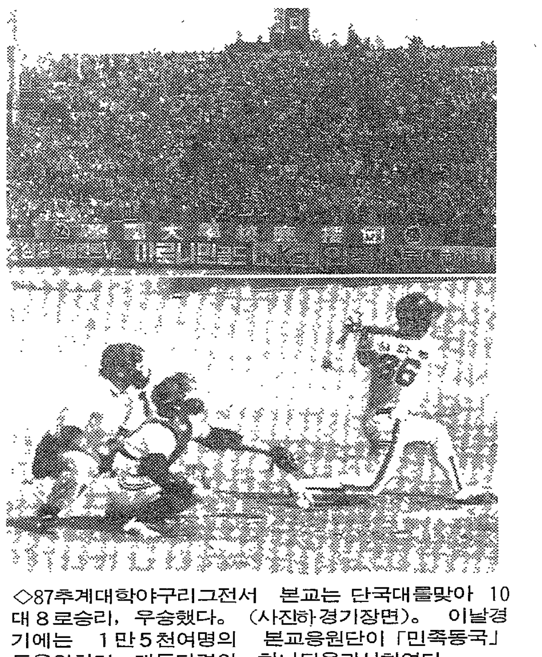
문정장학등 3종류

慶州캠퍼스 교외장학금전달식이 지난24일 오후2시 閔丙天부총장을 비롯 장학금기탁자인 李末良여사와장학금수혜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장실에서 있었다。

총3백8만5천원이 기탁된 이번 장학금은 문정장학과 원만장학이 각각 20만원씩、불국장학이 17만7천원으로서 수상자는 문정장학이 박현자(가교·4)외 4명、원만장학이 홍경표(한문·3)외 5명、불국장학이 김재경(미술·3)외 4명이다。

東國야구 또다시 정상등극

87추계 대학리그전 패권차지



◇87추계대학야구리그전서 본교는 단국대를맞아 10대8로승리, 우승했다。(사진하 경기장면)。이날경기에는 1만5천여명의 본교응원단이「민족동국」등을외치며 대동단결의 하나됨을과시하였다。

아마 全대회 석권 진기록 세워

올2관왕 최우수선수상 곽연수君

동국야구가 올2관왕에 오르며 아마야구 최정상임을 확인했다。

본교야구부는 지난 23일 동대문구장에서 펼쳐진 87추계대학야구리그전 최종일 결승전에서 단국대를 맞아 송진우(무역·4)의 솔로홈런을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10대8로 쾌승을 거두었다。

이로서 본교는 지난 6월 백호기우승에 이어 올 2관왕에 올랐으며、83년이후 5년연속 매년 한대회 이상 패권을 차지한 동시에 성인 아마 야구 全대회 우승기를 한번이상 가져오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번대회 결승전서 본교는 1대3으로 뒤지던 2회、1사1·2루의 찬스에서 지화동(체교2)、윤재호(정외3)의 연속안타로 동점을 이루고 3회 곽연수(국사교3)의 적시2루타로 역전을 한후 5회 송진우의 솔로홈런으로 기세를 올리는등 3회이후 계속 리드를 지켜 우승의 행가래를 했다。

이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곽연수군이、최우수 투수상은 송진우군이 각각 수상했고、감독상은 본교 이종우 감독이 받았다。

시국관련제적 1차 29명 복학

양청협 30일까지 2차 신청접수

학교당국은 지난17일 82학년도이후 시국사태관련제적자및 휴학자등 복학대상자 79명중 최재성(불교·84학번)君등 29명에 대해 2학기 복학을 허용했다。

이번 복학은 양심수청년학생협의회(의장=양희찬·회계4)에서 대상자들의복교신청을 받아 지난 7일 학교당국과 협의를거쳐 1차신청자 전원이 복학된 것으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2차신청은 오는 30일까지「양·청·협」사무실에서 받게된다。

「양·청·협」은 지난7일 학교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국관련 제적자및 휴학자의 무조건복학▲시국관련제적자에대한 부당징계 완전철회▲시국관련및 졸업정원제 제적자로서 84년이후 F학점처리과목의 추가시험및 재시험으로 해당학기성적인정▲졸업정원제에 의한 제적자의 복학등 4개항에 대한 요구를했는데 이에대해 학교측은 졸정제 제적자의 복학문제는 문교부관할사항임을 들어 난색을표명했으나 28일 양측이완전합의하게된것이다。

師大「학림제」

사범대 주최「학림제」가 29、30양일간학림관 소강당및제육관등지에서열린다。

사범인의 단결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학림제는 중·고생 초청잔치、사범인 체육대회、교육문제심포지움등의행사가다채롭게펴쳐진다。

閔부총장·代總 간담회가져

지난24일 학내 제반문제 논의

慶州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장찬·국문3)는「88학년도 우수신입생유치」를비롯 학내 제반문제 토의를 위한 부총장간담회를 지난24일 원효관3층 교수회의실에서 열었다。

공무 학생 총무부장등이 배석한 이날 간담회는 입학성적 과수석 차석장학금 지급、애교심부여를 위한문구류의 학교마크 인쇄、학교마크가 인쇄된 종이컵을 농촌으로보내 지방우수학생 유치、전천후 야외휴게실설치 방안、慶州캠퍼스 10주년기념시계탑건립등에 관한 문제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장학금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입학성적이 낮은과의 수석·차석이 장학혜택을받을 수도 있으면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교구류및 종이컵에 대한 학교마크인쇄는 빠른 시일내에 실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야외 전천후 휴게실 설치도 예산을 뽑아 곧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기념시계탑 건립은 학생지원금과 학교예산을 책정、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써클소식

▲동굴탐험연구회=9월30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뉴코아전시장(뉴코아백화점)에서 국내최초로「동굴사진장비전시회」를 가짐。

▲불교학생회(慶州캠퍼스)=지난24일 특별법회를 金相鉉(국사학과)교수의 강연으로 도서관 4층 정각원에서 가짐。

▲서도회=「제16회 동국서예전」을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 갖음。

▲테니스 학생회=내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국립경기공업개방대학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학 테니스연맹전에 출전。

알림

지난 974號(9월22일字) 1면 경주代總기사중「예산승인件」을「예산승인」으로 했기에 바로잡습니다。

한스 붕거트 獨레겐스부르크大총장

특별인터뷰

◇李總長과 환담을 나누는 한스總長。(가운데)

"東大에서 매년 2명의 교환학생을 학과와 자질등을 고려해 선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교와 자매교중 구라파 유일의 대학인 독일의 레겐스부르크(Regeuburg) 대학의 한스붕거트(Hans Bungert)총장의 본교방문을 맞아 자매교류의 실질방안에 대해서 그를 만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한국에대한 첫인상은。

▲한스총장=한국은 공기가 맑고 기후가 적당해서 살기 좋은 곳 이라는 생각이드는군요。

—본교에 대한 첫이미지는 어떻읍니까。

▲한스총장=글쎄요。캠퍼스가 서구의 대학에비해 협소한 느낌도 들지만 나름대로 아담한 풍치가 있는것같읍니다。뭐랄까요。佛教宗立學校답게 어떠한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듯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앞으로 양교간에 추진될 자매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우선 학생교류 방안에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한스총장=가령 이쪽학생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은후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려고할 경우、장학금과 생활비를신청할 수 있읍니다。

—교환학생은 구체적으로 몇명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석사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한스총장=파견 학생의 장학금이라든지 생활비 지급등을 감안할때 매년 2명정도까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또한 파견학생의 학과라든지、자질등의 학생선발은 전적으로 東大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그에 따를 것입니다。단지 異質文化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환교수제등 교수들의 학술교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스총장=양교의 교수들은 상호관심사에 따라서 양교를 자유롭게 방문할수 있읍니다。특히 레겐스부르크대학은 藥學분야가 발달해 있으니 이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도 좋겠읍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강연회 형식입니다。

또한 1년간의 장기체류 연구활동은 좀더 토의를거쳐야 될 사항입니다。이에 대해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읍니다。

—교수교환은 1년에 몇명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한스총장=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체류연구는 휴학기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다음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음학기 부터는 1·2주정도의 강연회중심 학술교류의 경우、연간3~4명정도의 교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이미 2명의 교수가 귀교를 방문해서 불교분야에 관한 강연회에 참석한바 있읍니다。앞으로 약학이라든지 독문학등의 학술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서적및 출판물의 교류는 본교에서 이미「高麗大藏經」등의 서적류와 본교출판물을 귀교에 전달했읍니다。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한스총장=먼저 보내준 서적등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학생이나 교수들이 잘 활용하고 있읍니다。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것이 있다면 목록을 작성해서 서양철학이나 화학등 자연과학분야의 서적류와 출판물을 전달하겠읍니다。

—귀교에서「한국어학과」를 신설하려고 한다는데、만약 신설이 된다면 본교의 교수나 본교출신의 학자를 초빙할 용의가 있는지요。

▲한스총장=기꺼이 받아드릴 용의가 있읍니다。다만 초빙교수는 독일어로 가르쳐야 하기때문에 독일어에 능통한 자질있는 분이셔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끝으로 한국에서의 여행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통역:朴庚圭(경영학과) 교수。

<노건환 記者>

회전무대

아직도「맹종형 言論」을 요구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최종평가는 主人된 국민이

○…「벙어리3년 귀머거리3년」이란 옛말이 아직도 퇴색되지않으려는 희나리인양 뭔가 알송달송한것이 있어 알아본즉-。

시어머니 시하에서보고도 못본척、듣고도 못들은척하는 며느리의『시집생활 철학(?)』을 나타낸 이 말처럼 6·29선언 이후 아직도 국익보호(?)란 美名의 언론탄압으로 맹종하는 언론인으로 강요하고 있다는것。그것은 얼마전 국내의 권위있는(?) 두월간지와 前정부고관이 가진 인터뷰가 국익에 위반된다하여 인쇄소를 점거、출판을 방해하는 작태를 벌였다는것으로 그저 착잡할 따름。진정 6·29가 민주화선언이고、이나라가 민중이 주인인 나라라면 주인이 모든걸 알고 판단해 야지、권력이 자기멋대로 판단하여 주인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닐까요。

때아닌 횡재(?)

○…지난 24일은 우리 손으로 뽑은 제19대 새 총학생회 출범식으로 인해 캠퍼스 전체가 온통 들뜬 분위기였는데…

그중에서도 그날 당일에 한해 단돈10원으로 대폭적인 가격인하(?)가 된 각음료수자판기 앞에는『이게 웬 떡이냐』하고 모여든 학형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는 後聞。

그저 싼맛에 몇잔씩 거푸 마시는 학형들이 있었는가하면『더도 덜도 말고 오늘같은날이 매일있었으면(…)』고 기뻐하는 학형들도 많았던걸보면 이「의외의횡재(?)」에모두들 흡족했던 모양。

미용(?)도 좋지만…

○…학교당국자는 본교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 빛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캠퍼스를 활보할수 있다고 믿는건지 궁금하다는데…。

이는 야간강좌 학생들이 하교길로 주로 이용하고있는 혜화문(중문)길이 데모와 과적차량의 운행으로 울퉁울퉁 패인데다가 가로등시설조차 제대로 안되어있어 밤늦은 하교길에 여학생들이 특히 곤욕을 치른다고。

남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보존하기 힘든 本校 여학생들의 미용(?)에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고칠건 정상적으로 고쳐주시는게 더 좋지 않겠읍니까。

말이 났으니 얘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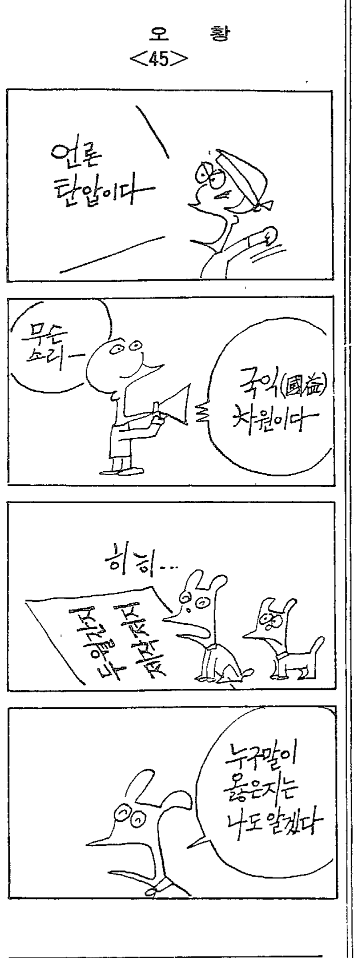
○…겉과 속이 다른채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기성 政治人들의 몹쓸 言行을 우리네 대표자님(?)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같아 씁쓸。

사연인즉 지난18일 있었던 경주캠퍼스 총학집행부의 폭력사태를 둘러싸고 각서와 사과문을 쓸테니 사건을 극소화시켜 달라고 애원(?)하던 간부들이 24일 서울캠퍼스 총학 출범식에 나타나서는 신문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이제와서 각서나 사과문을 쓸이유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는것。

『이번사태의 모든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던 강회장의 발언이나 차마 표현할수 없는 폭력을 일부 휘두르던 집행부의 작태를 일부러(?) 보도하지 않은 本紙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기회에 집행부 당사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요。

여로니

오 황
<45>



오, 어머니 당신의눈물은

민가협 엮음

새책 안내

분신열사, 장기수, 구속학생, 노동자, 교사가족등의 수기를 한데 묶어 엮어낸 책이 민가협에서 나왔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뛰어 들었던 우리들의 이웃들의 참모습들이 총4부로 나누어 실려있다. 이 시대의 가장 행동력있는 양심의 대변자들의 목소리를 대할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전하는 한권의 책이다. <동녘刊·346面·3천8백원>

한국사회의성격과 운동

조진경外著

이 책은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의 전망을 밝히는 것으로, 총5부로 14편의 논문이 구성되어 있다.

1부는 80년 한국사회 특성과 성격을, 2부는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3부는 한국사회 성격 논쟁을, 4부는 한국사회 지배구조의 성격과 방식을, 5부는 80년대 이후 각계 운동평가를 다루고있다. <공동체刊·345面·3천8백원>

러시아문학 비평사

R·H스타시著

러시아 비평의 기원으로부터 소비에뜨 비평에 이르는 주요 흐름을 통시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최초의 러시아 문학비평사이며 문학과 비평에 관심있는 일반독자들에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학안내서를 겸하고 있다.

<한길사刊·344面·4천원>

同門 투고

자백하듯 내뱉은 "I did" 逸話

○…본교 영문과를 졸업한후 본교와 자매교인 미국 EW大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유학 떠난 한 同門의 투고를 싣는다 …○

온종일 차로 달려도 산은 나타나지 않고 끝없는 밀밭만 보인다。몇시간 지나니 단조로운 밀밭만 보는 것이 짜증스러워지고 내고향 경주의 오막조막한 산들이 그리워진다。Seattle을 끼고있는 Cascade 산맥을 넘고부터 Rocky 산맥에 이르는 중간 저지대가 약 1,000㎞ 정도의 평원으로 이루어져있고 이곳이 세계제일의 밀곡창지대인 곳, 그 중간에 인구 30만의 Washington州 제2의 도시 Spokan이 있고 그곳에서 20㎞ 떨어진 대학도시 Cheney市에 E.W.大가 있다。

아직 생활한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는것 같은데, 한문화권에서 자란 본인에게는 미국문화라는 상이한 것으로부터 적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지면상 내가 이제껏 갖고 있던 가치관들과의 차이점 모두 표현할수 없을 뿐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이 사회를 단기간에 느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것 같다。

하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가치로부터의 좋은 점을 들어보고자한다。

우선 대다수 미국인들이 법을 엄격히 따르고 지키고 있다는것이다。지난달 방학기간중, E.W.大교수님과 함께 Washington州와 인접해있는 Oregon州 제1의 도시 Portland의 그분의 친척집에, 함께 여행을 갔었다。돌아오는 길에 혼자 고속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요청하니 쾌히 동의하면서 버스터미날까지 배웅해주었다。지독한 끽연가인 내겐 흡연 지정석 뒷말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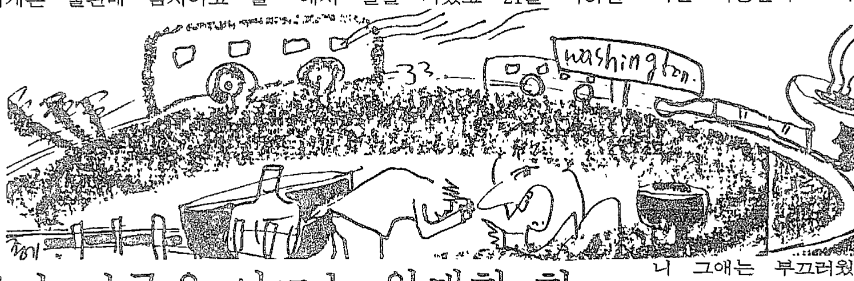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4째줄까지 흡연석이었고 나도 하나를 택해 앉았다。차가 출발하고, 누군가가 먼저 피우기 시작하면 나도 따라 피워야지하고 생각중이었는데, 마침 사십대의 중년남자가 피우기 시작했다。옳지 이제 되었구나, 나도 피워야지 하는 찰나에 버스가 서는 것이었다。차가 멈추고 운전사가 뒷좌석으로 다가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와서는『여기는 Oregon州요, Oregon州와 Idaho州의 공공버스에서는 무조건 금연이요』라는 것이었다。그러니까 중년남자가『죄송합니다。동부에서 막 이사와 잘 몰라 그렇소』라고 대답하며 사과하는 것이었다。그런 후 옆에 있던 사람이 중년남자에게 밖의 강을 가리키면서『저 Colombia강, 저쪽은 Washington州인데 이 버스가 다리를 건너 Washington州에 들어가면 피울수있소』라고 일러주었다。

결국 그많은 흡연가들이 한州의 法을 따르고 지켰다는 것이였다。

본디 애주가인 내겐 또 빼놓을수없는 얘기가 술이다。

이곳 Washington州에서는 21세이하에게는 술판매 금지이고 술을 건물밖에서는 마실수 없으며 술병이나 깡통을 연 상태로 그것을 지닌채 거리를 걷거나 차를 운전하면 꼼짝없는 벌금형이다。처음 미국친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법은 그렇고 융통성이 있겠지하면서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우리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기숙사에 있는 다른층으로 옮기자고 하길래 맥주캔을 들고 마시면서 가려고 기숙사 문을 나서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안된다고 다시금 충고를 하길래 기숙사 복도에서 그 캔을 다 마시고 나왔었다。그런데 1시간가량지나 돌아와보니 우리와 함께 마셨던 애들 몇명이 경찰과 함께 있었다。음주가 금지된 층에서 술을 마셨고 21살 이하인 2학년생 한명이 끼어있다고 그 층을 관리하는 학생이 경찰을 부른것이었다。



"준법정신과 정직성이 미국을 이끄는 위대한 힘"

슈퍼마켓에서 술을 살때도, 술집에 들어갈때도, 꼭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길래 처음엔 내가 동양인이라서 차별대우하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손님이 어려보이면 꼭 신분증을 요구하고 21살에서 며칠만 모자라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엄격하니 21세미만이 대부분인 신입생에겐 환영회때도 맥주는 찾아볼수도없고, 더러 1~2학년생들이 나이많은 학생에게부탁해서 맥주를 사놓고 마시기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직이 통하는 사회이다。이곳에 오자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기숙사 각층 마다 부엌이 2개씩 달려있다。그리고 화재 경보시스템이 되어있었다。

하루는 나와같이 5층에 있는 말레지아 학생이 저녁 늦게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하다 조금 태웠는데 경보가 울렸다。모두 그학생이 한결 알게 되자 밖에모여 다른 학생들이 그학생을 찾아보니 그애는 부끄러웠던지 어딘가에 숨어버렸다。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와서 일을 다 마무리 짓고 다시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5~6명의 학생이 안 들어가고 5층 복도에서 그애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타난 그애 앞에서 박수를 치고 함성을지르며 놀리는 것이였다。나도 먼발치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 생겼다고 지켜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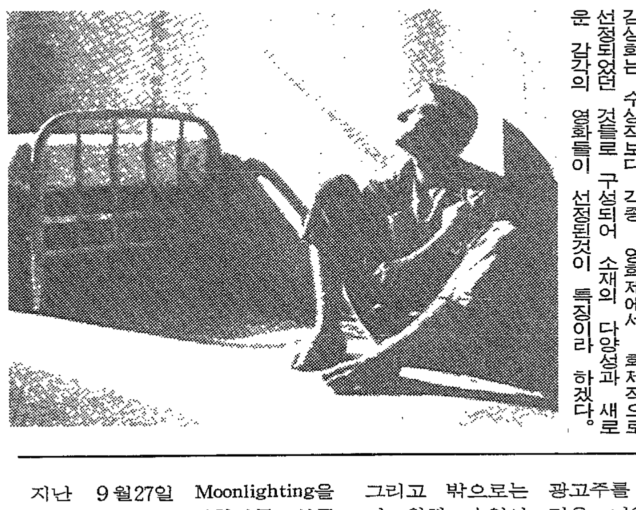
그 학생이 내성적이고 친구와 잘 어울리지도 않곤 했지만 그것 보다 더 숨어 버린데 다른 애들이 더욱 얄밉게 본것 같았다。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식사를 하려고 밥을 스토브에 올려놓고 내 방에 와서 다른 반찬거리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 가서보니 올려 놓은지 얼마되지도 않은 내 냄비에서 연기가 조금나는 것이였다。스토브를 끄고 밥냄비를 내려 잽싸게 내방에 치워놓고 비상계단을 내려오는데 자꾸만 다리가 후들거렸다。『아이고! 아침잠 자는 애들 다깨어났구나, 엊저녁같은 창피를 어떻게 당하나!』걱정이 태산같아졌다。「에라, 내가 그랬다고 그러자。」좇아 내려가 그애들이 모여있고 소방차와 경찰차가 왔다。모여있는 학생들 앞에 다가가서『I did』라고 큰 소리쳤다。몇몇 애들이『상철! You did』라고 놀리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나오더니 엊저녁에 한 학생은 숨어버렸고 지금 이놈은 앞에서 자기가 그랬다고 큰소리 치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되물어보면서 변호해주었다。

이 화재경보기는 내가 온 후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 울렸는데, 때로는 곤충이 그 속에 들어가 울리기도 하고 애들 담배연기에 울리기도 할 정도로 민감한데, 매번 울릴때 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오고 그 비용이 한번에 2백달러 정도인데도 그것을 조금 둔하게 고쳐놓지않고 울릴때마다 대피하는 것이였다。

이 상 철
<EW大 대학원·커뮤니케이션과정>

◇「제2회 80년대 화제작」감상회를 마치며



◁「동국영화연구소」의 발족과 함께 열린 이번 두번째 감상회는 수상작보다 각종 영화제에서 화제작으로 선정되었던 것들로 구성되어 소재의 다양성과 새로운 감각의 영화들이 선정된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지난 9월27일 Moonlighting을 마지막 작품으로 영화제를 성공리에 끝냈다。

그간의 준비과정을 간략하게 스케치해본다면 8월에 영화목록 선정이 있었고 9월에는 번역과 자막입히는 작업과 광고주 물색등이었다。

영화과 대학 출신 감독을 중심으로 했던 1회때와는 달리 이번 영화들은 소재의 다양화와 새로운 감각의 영화를 선정했다。수상작보다는 영화제에서 화제작으로 선정되었던 것들이었다。

9월이 되어 본격적인 준비과정으로 들어갔다。안으로는 번역, 그리고 밖으로는 광고주를 구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기업체를 전전했다。학생 행사에 가깝고도 먼 사이가 바로 기업체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광고주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광고주가 잘 잡혀야 우리는 상업성이 떠난 순수한 영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선정된 영화가 흥행성이 없는 작품들이라 더욱 절실했다。그러나 때마침 불어닥친 노사분규도 우리에게 영향이 있었으며 더우기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고 절망감에 흠씬 젖게 만들고 나서야 허락을 해 주는게 기업의 생리인지라 참으로 애를 태우며 뛰어 다녔다。

번역 작업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일등으로 지견되던 번역이 개최 일자가 다가오며 밤을 새워 마무리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막 입히는 까다로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영화연구소에 편치않은 손님을 며칠 모셔야했다。그것은 다름아닌 자막기였다。작업 없는 날에도 도난이라는 불상사가 생길것을 우려해서 밤을 지새우며 지켜야만 했었다。

자막 입히는 작업은 자막기의 키를 누르는 사람과 번역한 사람이 서로 합심하여 해야한다。번역한 사람은 장면 장면이 변할때마다 각기 옳바른 대화를 읽는다。이때 이들중 누구하나라도 졸거나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들이 모두 제대로 잘 된다해도 상영할 장소가 없다면 행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많은 학교강의실중 우리가 써야 할 곳은 동국관 L101 밖에 없었다。(이 지면을 빌려 L101을 양보해준 범과 학생분들과 수업을 다른 강의실로 옮겨 저희를 도와주신 K교수님께 감사드린다。)

"80년대 영화작가들의 영화언어 탐구노력의 발견과 오늘의 영상미학에 대한 정의내림에 접근하는 자리마련이었다"

세면을 못하는것은 물론 발이 퉁퉁 붓고 먹는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가면서도 일정에 맞춰 준비가 끝났는데, 이런것을 설상가상이라 했던가, 기계도 사람처럼 지쳤는지 첫 상영작의 자막이 기계의 거부로 하나도 삽입되지 않았다。서둘러 21일 아침에 다시 작업을 진행하여 무사히 영화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일 밀리는 관객으로 그동안의 피로를 잊고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이 영화제는 우리 대학원 자체내의 행사가 아니다。이것은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평가받는것이다。그렇기에 그 어느행사보다 진지하고 치밀하며 정성들인 결과 예상을넘는 호평을받았다。

더 좋은 작품으로 3회를 약속하며 대학원 재학생 여러분은 물론, 와서 도와준 학부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김 동 건
<대학원 석사과정·연영과>

메아리

記事 읽는 法

▲오늘의 記事 읽는법。하나, 1단기사부터 읽어라。톱기사부터 읽는 습관은 버려라。볼만한 기사는 항상 1단에 있다。또한 비교적 정확한 사실만이간략히 기술되어 있기도하다。분신·최루탄, 고문에의한죽음·관리의 부정부패·性고문등의 기사는 1단부터 시작한다。최소한의「알」권리를 포기하고싶지 않다면 1단기사부터 읽을 노릇이다。▲둘, 行間을 읽어라。활자에는 直言을 못하더라도 行間에나마 진실을 담고자하는 기자가 더러는 남아있기때문이다。톱기사나 해설기사를 읽을때는 특히 주의 할 일이다。별볼일 없는 기사도 주의깊게 살펴보면 의외의 뜻이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마치「말이 그렇지 어디 뜻이 그런가?」의 형태라고나 할까。이런 점에서 S신문도 사양말라。行間의 뜻만 정확히 읽어 낼수 있다면 오히려 훌륭한 정보지일수도 있다。▲셋, 일단 회의해 보라。신문기사라고해서 모두 진실은 아니다。대개 신문이란 50퍼센트의 그릇된 희망과 47퍼센트의 그릇된 예언, 그리고 3퍼센트의 진실만을 표현하고있을따름이다。여기서 진실만을 추린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記事를 액면 그대로가 아닌, 일단 회의해 보고 行間을 읽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최근 현황에 대입해 본 후 그 진위여부를 결정할 일이다。힘들고 짜증이 나도 하는 수 없다。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인데 하물며 왜곡된 言論現實속에서 진실을 캐내기 위해선 어쩔수 없지 않는가。오늘의 新聞은 50퍼센트의그릇된 희망과 47퍼센트는은폐와조작, 그리고3퍼센트의진실만이 담겨 있기에 하는 충고다。▲위의 조건을 지킬 수 있다면 한 신문만 읽어도 좋다。어차피 그 신문이 그 신문이기는 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아는 사실이니 굳이 보도지침·홍보정책실 이야기는 않겠다。다만오늘의언론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 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해직기자를 중심으로 한 전·현직 언론인이 모여 민중의 신문, 자유수호의 신문이 될 수 있는「새신문」을 창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또한 그간 문제되었던 前중앙정보부장의 K氏납치사건 기사가 이제 출판 가능하다는 소식이다。그간 언론인의 투쟁에 갈채를 보낸다。결국 언론은 민중의 뜻이고 민중의 뜻은 어떠한 폭압에도 결코 굽힘이 없는 것이다。애정을 갖고 읽어라。이것이 네번째 조건이다。<勝>

文化短信

「고추먹고 맴맴 담배먹고」

오는30일까지 엘칸토예술극장서

극단「춘추」제40회 공연작품인「고추먹고 맴맴 담배먹고」(엄한얼作·문고헌演出)가 오는 30일까지 엘칸토 예술극장 무대에 올려진다。공연시간은 하오4시30분, 7시30분 하루2회 공연。

「장 날」공연

오는30일까지 마당세실극장서

극단「마당」에서는 제60회 공연작품으로「장날」을 마당세실극장에서 오는 30일까지 공연한다。박채규, 양현자 夫婦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공연시간은 평일 하오5시, 7시30분 주말 하오4시, 6시30분 각각 하루 2회 공연。

「不可不可」공연

내달 7일까지 문예회관대극장서

극단「쎄실」창작극시리즈 아홉번째 작품인「不可不可」가 (이현화作·채윤일演出) 제11회서울연극제 참가작품과 제24회동아연극상참가작품으로 문예회관대극장 무대에 내달 3일부터 10일까지 올려진다。공연시간은 하오4시30분, 7시30분 하루2회 공연。

「제12기 한국역사」강좌

오는11월26일까지 한길사에서

지난 17일부터「한국 고대사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역사강좌 제12기를 개최한 도서출판 한길사는 오는 11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하오 7시부터 한길사 세미나실(안암동)에서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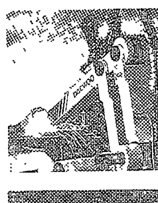
「삼국유사」 강의개설

慶州 박물관학교개설「삼국유사강의」가 매주 토요일 하오 4시 김원주(향토사학자)氏의 강연으로 국립 경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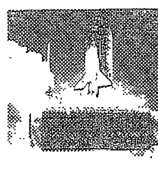
「제3회 유희」공연

성대에서는 오는30일 유생들의 사회풍자극「제3회 유희」를 교내 인문사회과학大 금잔디 광장에서 양현관 주최로 열린다。공연시간은 하오 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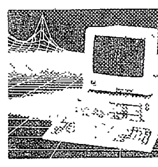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
대우테크놀로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대우인의 의지와 집념으로
펼쳐나가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세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여는 뉴미디어기술은
물론 로봇트, 레이저, 신소재, 생명
공학 등 첨단복합기술이 하나로
결합되어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대우테크놀로지 --
대우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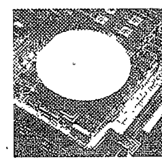
로보트산업
국내최초로 다목적 산업용 로보트 NOVA 10을 자체개발한 대우는 고도의 이동 및 센서기능, 지능을 갖춘 다양한 로보트의 연구개발을 통해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하는 로보트 시대의 자동화기술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신소재산업
꿈의 소재인 탄소 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는 대우는 첨단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세라믹, 바이오 소재등을 현실화시켜 신소재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통신산업
대우는 MODEL-D컴퓨터 수출, TDX-1 전자교환기 수출, 광통신 실용화, 주문형 반도체생산 등 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도종합 정보통신망(ISDN)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읍니다.



전자산업
대우는 세계 세번째로 최첨단방식 디지틀 칼라 TV의 개발 등 뉴미디어를 개발하여 가정자동화(HA)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인간생활을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미래와 함께――
대우가족